2023년 동학학회 춘계학술대회

학문후속세대의 동학연구 재발견

▶ 일시 : 2023년 6월 15일(목) 오후 2시-오후 5시
▶ 장소 : 수운회관 907호 & Zoom

2023년 동학학회 춘계학술대회

학문후속세대의 동학연구 재발견

▶ 일시 : 2023년 6월 15일(목) 오후 2시-오후 5시
▶ 장소 : 수운회관 907호 & Zoom

세부 계획

일정		발 표 및 내 용	비 고
2023. 06. 15. (13:30-17:00)	13:30~14:00	등록 및 접수	
	14:00~14:20	개회사 : 임형진 (동학학회 회장) 축사 : 박상중(천도교 교령)	진행 사회자 : 김영진 (경희대)
	14:20~14:50	반원 손필규의 생애와 활동 김대훈(쎈뿔여자고등학교)	사회자 : 김남희 (가톨릭대)
	14:50~15:20	일제강점기 천도교 유학생의 현실인식 성지윤(일본 히토츠바시 대학 박사과정)	
	15:20~15:50	동학의 인물과 역사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한국어 정신문화 교수학습모형 개발 정하린(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휴식시간(15:50~16:00)		
	16:00~17:00	종합토론 참석자 전원	사회자 : 박세준 (덕성여대)

목차

발표 1: 김대훈(쎈뽈여자고등학교)

반원 손필규의 생애와 활동 ····· 1

발표 2: 성지윤(일본 히토츠바시 대학 박사과정)

일제강점기 천도교 유학생의 현실인식 ····· 21

발표 3: 정하린(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동학의 인물과 역사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한국어 정신문화 교수학습모형 개발 ····· 39

반암 손필규의 생애와 활동

김대훈(쌘뽈여자중학교)

1. 들어가며

논산은 지리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가 활발한 곳이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남북접 연합 대지휘소가 구성되었던 장소이며, 일제강점기에도 3·1운동에서부터 청년운동,[1] 형평운동,[2] 신간회[3] 등 여러 민족 운동과 사회 운동이 매우 활발히 일어났던 지역이다.

이 글에서는 일제강점기 논산 지역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반암(槃菴) 손필규(孫弼奎)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지금까지 그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를 다룬 글 또한 두 가지 면에 중점을 두어 기술되었다. 첫째 1919년 논산 지역 3·1운동에 있어서의 역할,[4] 둘째 1938년 무인멸왜기도사건과 이로 인한 사망이다.[5] 그러나 지역 사회에서 갖는 무게감에 비해 단편적으로 소비되는 경향이 강했다. 즉 여러 참여 인물 중 한 명으로 언급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이런 중에 논산문화원[6]과 지역신문[7]에서 손필규라는 인물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 역시 3·1운동과 무인멸왜기도사건에 집중되고 나머지 생애 부분은 간략하게 기술하는 정도여서 『독립유공자 공훈록』[8]의 기록에서 몇 가지 추가되는 것에 불과했다.

따라서, 연구 목적은 지역 독립운동가 손필규라는 인물의 생애와 활동 전반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는 논산 지역 독립운동사를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지역 인물 연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연구는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손필규의 가계도와 그의 품성과 경제 상황 등 주로 인물과 환경 탐구에 중점을 두었다. 사료적 한계로 말미암아 유년 시절의 학문적 기반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지 못했다. 둘째, 동학의 입도에서부터 김낙철과 함께 활동하며 천도교에서 시천교를 거쳐 다시 천도교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이다. 셋째, 김낙철 사망 후 그가 독자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논산 교구장 활동과 '반암'이라는 시호를 받고, 논산 지역 3·1운동과 특별성미금 사건으로 첫 번째 옥고를 치르기까지의 기간이다. 넷째, 3·1운동 이후의 천도교 중앙총부에서 지역대표로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1938년 무인멸왜기도사건을 겪으며 두 번째 옥고를 치르고 이로 인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이다. 다섯째, 그가 조선총독부의 토지 강탈에 맞서 반환소송을 전개한 활동을 기술했다.

연구 방법은 김낙철 일기, 재판기록문, 신문자료, 천도교 관련 기록 등에 의존하되, 사료적 한계는 손필규 후손(김선일-손자며느리와 손자들), 김낙철 후손(김영웅-손자)의 증언으로 보완했다.

손필규의 행적에서 부족한 부분은 김낙철의 행보를 통해 유추했다. 왜냐하면 1898년 7월 김낙철의 석방 이후부터 1917년 12월 사망 전까지 함께 활동했기 때문이다. 김낙철과 손필규의 관계는 특별했다. 최시형

---

1) 허종, 「1920년대 충남지역의 청년운동 -공주.논산.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제55집, 2010.
2) 김재영, 「일제강점기 호서지방의 형평운동」, 『충청문화연구 제18집』, 2017.
3) 신간회 논산지회는 1928년 3월 10일 준비위원회를 열고, 4월 1일 창립대회를 개최한다고 하였으나, 관련 후속보도가 없으므로 결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준비위원회가 동아일보 지국에서 열린 것으로 보아 동아일보 기자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였으리라 짐작된다.(『동아일보』, 1928.3.13.)
4) 정을경, 「충남지역 천도교인의 3·1만세운동 전개」, 『지방사와 지방 문화』 19권 2호, 2016, 372쪽. 이양희, 「부여인의 3·1운동 전개와 천도교」,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63집, 2018, 46,57쪽.
5) 정을경, 「일제강점기 박인호(朴寅浩)의 천도교활동과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3집, 2009.
6) 논산문화원, 「손필규」, 『논산 지역의 독립운동사』, 1991, 137~140쪽.
7) 이진영, 「남산리의 남산재와 손필규의 항일운동」, 『놀뫼신문』, 2019.3.12. 이진영, 「사라지는 논산·계룡을 기록하라」, 『놀뫼신문』, 2021.6.23.
8) 국가보훈처, 「손필규」, 『국가유공자공훈록』 3권, 1987.

을 체포하러 온 관군에게 김낙철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은진(恩津)** 사람으로 이곳을 지나다가 5~6일 전에 주인 이 아무개가 이곳에서 훈학(訓學)을 해달라고 부탁해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다.[9]

그는 스스로를 일컬어 '은진 사람'이라고 말했고, 석방 후 부안으로 가기 전 들렸던 곳도 은진 손필규의 집이었다.[10] 또한 기록에서 보듯 김낙철에게 '외종'이었다.

하루는 구암어른(주: 김연국)께서 일서(一瑞)의 이름으로 쓴 편지가 **외종(外從)** 필규에게 왔는데, 그 편지에, "긴급하게 의논할 일이 있으니 이종(姨從) 박해룡(朴海龍)을 바로 보내라"고 하므로 바로 보냈다.[11]

위 기록은 단지 '외종'[12]이라는 인척 관계뿐만 아니라 종교활동에 있어 긴밀한 동지였다고 볼 수 있다. 부안의 재력가이자 명망가였던 김낙철이 삶의 터전을 손필규의 곁으로 옮긴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13] 손필규 후손과 김낙철 후손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14]

2. 동학 입도와 김낙철과의 활동

손필규는 1870년 7월 20일 밀양 손씨 세거지인 현재의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남산리에서 출생했다.[15] 어릴 적 15년간 한학을 익혔으며, 별명이 달서(達書)였을 만큼 독서를 즐겼다.(<사진1, 손필규 인물>, <사진2 손필규의 필체> 참조.) 키는 5척 3촌으로,[16] 정확히는 163cm였다.[17] 맑은 정신으로 늘 좋은 품행을 유지하기 위해 술을 멀리했고, 지역 사회에서 평판이 좋았으며, 명망이 있어 따르는 이들이 많았다.[18] 지역 내 영향력과 활발한 활동으로 말미암아 요시찰 인물로 분류되어 줄곧 감시 대상이었다.[19] 일제

---

9) 부안문화원, 「김낙철역사」, 『동학농민혁명과 부안』, 2011, 184쪽.(밑줄 필자)
10) 「김낙철역사」, 위의 책, 189쪽.
11) 「김낙철역사」, 위의 책, 198쪽.(밑줄 필자)
12) 『부안김씨 족보』에 김낙철의 처가 밀양 손씨이며, 장인은 손이상(孫履祥)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밀양손씨 족보』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다.(『밀양손씨 족보』. 『천도교 논산교회 교보』, 1935,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소장. 『부안김씨 족보』, 부안문화원 제공.)
13) <그림1>은 「지적원도」, 실제 답사, 증언자료를 바탕으로 구글 지도에서 정리한 것이다.(조선총독부, 「지적원도」 은진면 남산리, 1914년 5월 1일 著手-7월 31일 完成, 국가기록원 소장. 구글어스. <그림1 손필규, 김영식(金永植)의 집과 손필규, 김낙철 묘의 위치> 참조.)
14) 김영웅(1939년생(호적 1941년생), 족보명 형태(炯台), 김낙철 손자)도 남산리에서 태어났다고 한다.(김영웅, 「부안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후손 증언록」, 『동학농민혁명과 부안』, 부안문화원, 2011, 265~267쪽.) 그는 어릴 적 손필규의 아들 손우진(孫遇鎭)으로부터 자신의 아버지가 김낙철의 가방을 들고 다녔다는, 즉 비서 역할을 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김영웅 녹취, 2022.11.25.) 김선일 또한 두 분은 자주 함께 식사했으며, 서로 좋은 반찬을 미룰 만큼 관계가 돈독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한다.(김선일-1941년생, 손필규 손자며느리 녹취, 2022.8.15.)
15) 그는 1919년 기준으로 선산을 비롯하여 논 20두락(약 13,200㎡, 싯가 2천 원), 기타 동산·부동산을 합해 500원을 소유하고 있었다.(국사편찬위원회, 「피고인 손필규 소행조서(素行調書)」,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0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김선일이 혼인할 당시 논은 8두락(마지기)이었다고 하니, 12두락(마지기)이 줄어든 셈이다.(김선일 녹취, 2022.8.15.) <그림2 손필규 소유지의 위치>는 「지적원도」를 정리했다.(조선총독부, 「지적원도」 은진면 남산리, 1914년 5월 1일 著手-7월 31일 完成, 국가기록원 소장.) (<그림2 손필규 소유지의 위치> 참조.)
16) 국사편찬위원회, 「피고인 손필규 소행조서(素行調書)」,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0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논산문화원, 「일제시요시찰명부」, 『논산 지역의 독립운동사』, 1991, 140쪽. 「天民寶錄」. 직업을 분류함에 농업 혹은 소작농으로 적고 있으며, 중산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후손은 손필규의 집은 5채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장년의 일꾼 3명이 함께 기거했다고 한다. 손필규의 장남인 손우진이 당시 논산읍 부창국민학교를 다녔는데, 매일 업어다 주는 일꾼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소작농은 아니고 소규모의 자산가였던 것으로 짐작된다.(손필규 손자 모임 증언, 2023.3.11., 2023.4.5.)
17) 손우진으로부터 들었다고 한다.(손혜순 증언, 2023.4.5.)
18) 「피고인 손필규 소행조서(素行調書)」. 「일제시요시찰명부」. 천도교 논산교구장이었던 관계로 1910년대 후반부터 줄곧 요시찰 인물이었다. 「일제시요시찰명부」에 현재 종법사라고 적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감찰 기록은 1928년 이후

가 완고하며 오만하다고 평가할 만큼 불의한 회유와 협박에는 결단코 굴하지 않는 강직한 성품이었다.[20] 손필규 가계도는 다음 <표1>로 정리했다.[21](<표1 손필규 가계도> 참조.)

그는 밀양 손씨 성열과 죽산 안씨 정덕의 3남 2녀 중 셋째 아들이었다. 큰형인 정규와는 15년, 둘째 형인 봉규와도 12년 차이가 났다. 그와 처에서부터 시작하여 자식들 모두 천도교를 믿었고,[22] 논산교회도 손필규와 장남인 손우진에 의해 관리되었다.[23]

손필규는 1894년 7월 15일 부인 안정덕과 함께 동학에 입도했다.[24] 동학농민혁명 당시 11월 10일 초산포(楚山包)[25] 접주(接主)로 임명되었고, 기포(起包)했다. 그의 나이는 25세였다. 은진현은 동학의 세가 강한 곳이었다. 1894년 10월 15일 동학 농민군이 은진 현감 권종억(權鍾億)을 잡아갔고,[26] 황산성 전투가 있었던 11월 14일 오전 일본군이 동학 농민군의 퇴로를 차단하고자 병력 일부를 은진 방면으로 파견했으나 거센 저항에 직면하고서 돌아온 것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다.[27]

1897년 3월 5일 충은(忠恩) 차접주(次接主) 및 별도집(別都執)으로, 이듬해 2월 10일에는 현기사(玄機司)의 서계원(書計員)으로 임명되었다.[28]

1898년 6월 2일(양 7월 20일) 최시형이 처형되고, 한 달여 뒤인 7월 13일(양 8월 29일) 김낙철(金洛喆)이 서울 감옥에서 풀려나 동생인 김낙봉(金洛鳳), 사촌 동생 김낙정(金洛貞) 그리고 김일서(金一瑞)[29]와 함께 낙향할 때였다. 그는 최시형을 대신해 죽을 각오까지 했던 부안 동학의 거두였다. 김낙철에게 외종이었던 손필규(孫弼奎)는 남산리(南山里) 자신의 집에서 손광수(孫光洙)와 손환규(孫煥奎) 등 여러 사람이 그를 맞이했다.

> 동생·사촌 동생·김일서와 함께 고향으로 갈 때에 중도에서 이일호(李日顥)를 만났는데, “지금부터 상종(相從)하자”라고 하였다. 하루는 주점(酒店)에 매달린 자라 4마리를 사서 물에 풀어주니 그 뜻이 양양(洋洋)해서 떠나갔다. 차차 은진(恩津)의 남산리(南山里) 손필규(孫弼奎) 집에 이르러 손광수(孫光洙)와 환규(煥奎) 등 여러 사람과 처음으로 상종(相從)하였다.[30]

로 추정된다. 아버지 손필규는 한문에 능통했으며,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모아 가르치며 남산리 사람들의 문맹을 깨우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손우진으로부터의 전언이 이를 짐작하게 한다.(손혜자 증언, 2023.3.11.)

19) 3·1운동으로 복역을 마치고 집으로 온 후 줄곧 일경 2명이 보초를 섰다는 얘기를 손우진으로부터 들었다고 한다.(손혜자와 손혜영 증언, 2023.4.1.)

20)「피고인 손필규 소행조서(素行調書)」.「일제시요시찰명부」. 손우진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형제들과 우애가 깊었으며, 나이 차이도 있었겠지만, 매사에 형들에게 순종적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학문에 관해서는 의욕적이었고, 본인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열띤 토론을 벌였다고 한다.(손혜자 증언, 2023.3.11.)

21)「天民寶錄」.『천도교 논산교회 교보』, 1935.『밀양손씨 세계』.『밀양손씨 족보』,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소장.「손필규 제적등본」, 대법원 소장.

22)「天民寶錄」.『천도교 논산교회 교보』의 기록에 따른 손필규 가족의 천도교 입교 시기는 <표2>로 정리된다.(<표2 손필규와 가족의 천도교 입교> 참조.)

23)「天民寶錄」.『천도교 논산교회 교보』. 증언에 의하면, 천도교 논산교회는 현재 남산3리 탑정로 117번지(한국환경공단 논산수거사업소)에 있었다.(김선일, 2022.8.15. 녹취.) <사진1 천도교 논산교회 터>(2022.10.30. 촬영.) 원래 욱정(현재 반월동, 부창동)에 있었는데, 이곳으로 옮겨온 것으로 보인다.(<사진3 천도교 논산교회 터> 참조.)

24) 1919년 5월 19일 재판기록에 20년 전 입도하였다고 적고 있다.(국사편찬위원회,「의견서」,『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9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이에 의거하면, 1899년 즈음일 것이나「天民寶錄」에 정확히 입도 연도가 명시되어 있다.(「天民寶錄」,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소장.)

25) 당시 초산(楚山)은 평안북도에 속하는 지명이기에 이곳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논산 주변 지역에서도 이를 찾을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정읍의 옛 지명이 초산이었음에 주목한다. 초산은 손화중(孫華仲)의 호이기도 하며, 정읍 출신이자 본관이 밀양이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26)「兩湖右先鋒日記」,『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15권, 56쪽.

27) 김대훈,「논산 지역 동학농민혁명 연구」,『동학학보』제61호, 2022, 183~184쪽. 당시 그가 이 전투에 참여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28)「天民寶錄」. 충은(忠恩)은 충남 은진의 줄임말로 짐작된다.

29) 정읍 출신으로 김연국과 함께 체포되었고, 1903년에 풀려났으나 3년 뒤 사망했다.(「창산후인 조석헌역사」 1900.11.13.(양 1901.1.3.),『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10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30)「김낙철역사」, 위의 책, 189쪽.

1900년 4월 5일 대도주(大道主) 의암(義菴) 손병희(孫秉熙) 설법으로 오편의장(五便義長)에 신택우(申澤雨) 외 4인을, 팔도대접주(八道大接主)에 손필규(孫弼奎), 김낙철, 김낙봉 등이 임명되었다.[31] 그가 임명된 데에는 지역 사회에서의 영향력과 나이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손필규는 김낙철이 나설 수 없을 때 직접 역할을 담당하기도 할 만큼 신뢰가 깊었다. 1901년 김낙철이 스승으로 모시던 구암 김연국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주 중대장 이민직(李敏稷)은 의도적으로 김연국에게 접근하여 그와 그 주변 사람들을 잡아들였다. 이민직의 꾀임에 속아 체포된 사람은 4월 28일부터 동 8월까지 김연국을 비롯하여 김일서 등 모두 12명이었다.

1901년 6월 10일(음) 뜻밖에 그는 김일서의 이름으로 씌여진 김연국의 편지를 받았고 김낙철에게 전달하였다. 편지에는 "이번 6월 1일에 당신과 김일서·최명기·강건회가 잡혀 8일에 공주에 갇혀있으니 각 접(接)에 은밀히 알리고 몰래 숨어서 주선하라"고 적혀 있었다. 김낙철은 바로 각 접에 알리고, 손필규(孫弼奎)의 집으로 가 손광수(孫光洙)·손환규(孫煥奎)·유진규(兪鎭奎)·하우현(河禹鉉)·김양식(金陽植)과 함께 상의했다. 그리고 은진군 화지산면(花枝山面) 취암리(鷲岩里)(현재 논산시 취암동)의 임기형(林基衡) 집으로 가서 동생인 김낙봉·전장섭과 함께 은밀히 주변을 탐문한 결과 김연국이 체포된 자초지종을 알게 되었다.[32]

손필규는 다시 김연국으로부터 김일서(一瑞) 이름으로 된 편지를 받았는데, "긴급하게 의논할 일이 있으니 이종(姨從) 박해룡(朴海龍)을 바로 보내라"고 하였다. 김낙철은 손필규로부터 전달된 편지를 받고 곧장 내용을 실행에 옮겼다. 박해룡은 밀서(密書)를 가지고 돌아와서 말하기를, "저들의 대장 이민직이 구암(김연국) 어른에게 은밀히 며칠 내로 돈 몇백 원을 주면 바로 풀어주겠다고 했다." 하였다. 그래서 '토물(土物)' 20여 개를 박해룡과 이덕련(李德連)에게 주어 보냈다. 공주부의 사관(舍館)에 묵고 있었는데, 이민직이 흉계를 부려 병사를 보내 토물을 모두 빼앗고 잡아 가둬 버렸다. 그때 김연국을 빼내기 위해 힘쓴 사람들은 전라도에서는 김낙정(김낙철 사촌동생) 외 23인, 충청도에서는 손필규(孫弼奎) 외 59명으로, 모두 84명의 동학도였다.[33]

이후로도 손필규는 김일서와 내외종(內外從) 사이라 속이고, 여러 차례 공주 감옥에 가서 김일서를 통해 상세히 김연국의 안부를 알아 와 김낙철에게 전했다.[34] 무기형이었던 김연국은 감형되어 4년 형을 마치고 1904년 12월 7일에 석방됐다.[35]

최시형은 1896년 차기 지도체제로 손병희, 김연국, 손천민의 3인 집단지도체제로 운영했다. 하지만, 최시형은 처형되기 1년 전인 1897년 12월 24일 강서(降書)를 통해 의암 손병희에게 종통을 이양했다. 손병희는 1901년 3월 일본으로 망명했고, 1903년 24명의 똑똑한 청년들을 선발하여 일본에 유학시켰으며, 망명 중 신문 기고 등으로 내정개혁론과 근대화론을 설파했다. 1904년 2월 손병희(孫秉熙)의 지령에 따라 조직책인 이용구(李容九)와 홍병기(洪秉箕) 등이 주도해 진보회(進步會)를 만들었는데, 이때 손필규는 권동진, 오세창과 더불어 참여했고, 전국 360개 군(郡)에 지방조직을 설치하는 데 힘을 쏟았다.[36]

한편 1904년 8월 20일 송병준(宋秉畯)은 일진회(一進會)를 조직했고, 그해 12월 2일 이용구를 통해 전국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던 진보회를 통합했다. 1905년 11월 5일 일진회가 '보호청원선언서'를 발표하자, 손병희는 동학이 매국 조직으로 변질되어 감을 우려하여 교인을 수습하고 재조직하기 위해 천도교(天道敎)로 개칭했다. 그리고 1905년 12월 1일 '대한매일신보'와 '제국신문'의 광고를 통해 세상에 알렸다. 1906년 1월말 일본에서 귀국하여 천도교중앙총부(天道敎中央總部)로 문호(門戶)를 설립하고, 일진회와 관계가 없

---

31)「東學道宗繹史」제2편 제16장 의암설법 대도주 및 대두령의 차정,『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11권, 377~378쪽, 한국사데이터베이스.

32)「김낙철역사」, 위의 책, 197~198쪽.

33)「김낙철역사」, 위의 책, 198~199쪽.

34)「김낙철역사」, 위의 책, 200쪽.

35)「창산후인 조석헌역사」1900.11.13.(양 1901.1.3.),『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10권, 한국사데이터베이스.「侍天敎宗繹史」제12장 무술년의 조난-제2편 하,『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11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36) 김정인,「大韓帝國期.日帝强占期 侍天敎의 존재 양태와 활동」,『국사관논총』제103집, 2003, 2~3쪽. 논산문화원, 위의 책, 137쪽.

음을 밝혔다. 일진회장(一進會長) 이용구(李容九)에게 권고하여 일진회를 해산하라고 했으나 듣지 않자 26명을 출교(黜敎)했다.[37] 손필규는 이때 김낙철과 함께 천도교로 귀속한 것으로 보인다.

1906년 12월 30일 손필규는 부령(部領)에 선출되었고, 이듬해 1907년 6월 17일 은진군 교구장에 임명됐다.[38]

출교당한 이용구는 1907년 4월 5일 박형채(朴衡采)·권병덕(權秉悳)·송병준(宋炳畯) 등과 신도들을 모아 시천교 창건 선포식을 거행했다.[39] 그리고 1907년 12월 16일 손병희와 갈등을 빚고 있던 천도교 대도주(大道主) 김연국을 끌어들여 시천교(侍天敎)의 대례사(大禮師)로 내세웠다. 김낙철 또한 1900년부터 줄곧 해월이 내린 도통을 확인하려는 손병희에 대해 김연국과 함께 반대 입장을 밝혀 왔고,[40] 시천교로의 이적을 선택했다. 이 무렵 손필규도 함께 이동한 것으로 짐작된다.

1912년 1월 7일 임원을 개선하면서 김연국은 종례사(宗禮師)에 이용구, 종리사(宗理師)에 송병준, 종무사(宗務長)에 권병덕을 임명했다. 이용구 사후에는 송병준이 종례사직을 이어받았다. 송병준이 시천교의 전면에 부상한 것은 일진회파가 교단 내에서 주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종례사에 취임한 송병준은 「시천교종규(侍天敎宗規)」를 개정하여 김연국을 대례사 지위에 올려놓고 영구히 자리를 보장했다. 처음 종통 계승을 거론하며 김연국을 끌어들인 자체부터 송병준의 일진회파가 장악하기 위한 시도였다.[41]

1913년 초 시천교 내 김연국계 권병덕이 간부직을 사임하고 낙향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막대한 재력을 갖춘 송병준이 사실상 교권을 장악하면서 독단적인 교단 운영을 자행하자 이에 반발한 것이었다. 송병준을 후광으로 하여 자행되는 박형채와 전태현의 만행은 극에 달했다. 김연국은 3월 25일에 신임 종리사 김낙철을 내세워 맞서는 한편, 3월 29일에 서울과 지방 교인의 대표 자격으로 손필규(孫弼奎)와 이근상(李根尙)·이범철(李範哲)·박노학(朴魯學) 등 40여 명을 소집했다. 그들은 박형채와 전태현 등의 불법행위와 전후 교단 안의 사실을 적은 포고문(布告文)을 지방 교인에게 반포했다.[42]

결국 김연국계는 1913년 4월 16일 시천교총부(侍天敎總部)를 설립하여 송병준계의 시천교본부와 결별했다. 시천교총부 내에서 2인자 자리인 대종원장(大宗院長)직을 비롯한 중앙간부직 자리를 놓고 또다시 내분이 발생해 김연국은 1914년 4월 권병덕 외 2명을 출교했고, 이를 계기로 1915년 5월 18일 시천교총부의 권병덕계는 중앙시천교회본부(中央侍天敎會本部)를 창건했다.[43]

한편 1915년 7월 12일 시천교인 2명이 김연국과 김낙철을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김연국을 위해 김낙철이 1년에 한두 차례 성금을 거둬 상납하였는데, 김연국이 용처를 밝히지 않고 개인적으로 전용한 일 때문이었다.[44] 이 사건을 계기로 김낙철과 손필규는 권병덕계로 옮긴 것으로 짐작되는데, 김연국에 대한 실망감 때문으로 보인다.

권병덕계의 중앙시천교회본부는 의결기구인 찬리회(贊理會)를 통해 역할 분담을 하고, 1915년 9월 중앙간부를 각 지방에 파견하여 교인을 수습 단속하게 했다. 충청남북도는 손필규가 이근상(李根尙)·송배헌(宋培憲) 등과 함께 역할을 맡았다.[45]

1916년 4월에는 송병준계의 시천교본부가 권병덕계의 중앙시천교회본부와의 합동을 시도했다.[46] 이 시

---

37) 「東學道宗繹史」 제19장 일진회의 창립과 교회의 분립,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11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38) 「天民寶錄」.
39) 「侍天敎宗繹史」 제12장 무술년의 조난-제2편 하,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11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40) 박맹수, 「김낙철계의 동학농민군 활동과 갑오 이후의 동향」, 『동학학보』 제17집, 2009, 87쪽.
41) 김정인, 위의 글, 12쪽. 『논산 지역의 독립운동사』의 「손필규」 편에 의하면, 1912년 그는 서울 우이동 봉황각에서 49일간 열린 국운 회복 기도회에 참여했다고 한다.(논산문화원, 위의 책, 138쪽.) 봉황각은 손병희가 지도자 양성을 위한 수련장으로 지었으며, 1912년 4월 15일부터 1914년 4월까지 3년 동안 483명이 거쳐 갔다. 그러나, 명단에서 손필규의 이름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다.(성주현, 「3·1운동과 봉황각」, 『3·1운동과 민족대표 손병희 선생 학술발표회 자료집』, 2009,9,29, 32~39,49~54쪽.) 당시 손필규는 김낙철과 함께 시천교에서 활동했다.
42) 「김낙철역사」, 위의 책, 213쪽.
43) 『每日申報』, 1914.4.22. 김정인, 위의 글, 14~15쪽.
44) 『每日申報』, 1915.7.13. 최소한 1915년 9월에는 권병덕계에 속했으며, 늦어도 1916년 권병덕이 천도교에 이적할 무렵까지는 권병덕계 시천교였음은 분명해 보인다.
45) 『中央侍天敎會宗報』 1915년 9월호, 66~68쪽.
46) 『每日申報』 1916.4.18.

도 역시 실패했고, 1년 뒤부터 간부와 교인들이 천도교로 이적하기 시작했다. 1916년 8월부터 1918년 1월까지 73명이 천도교로 귀의했다.[47] 이는 시천교의 분열과 세력 다툼 및 비리에 기인하였지만, 세 세력 모두의 만만치 않은 친일 행위도 큰 역할을 했다.[48] 권병덕조차 1916년에 참회식을 거친 뒤 천도교 간부로 복귀하면서, 중앙시천교회본부는 사실상 해체됐다.[49] 생존을 위한 지나친 경쟁적 친일 행위가 권병덕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였으며, 시천교의 김연국계나 송병준계와의 합당보다는 천도교로의 흡수 합당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천도교와의 화해 교섭에 나섰던 김낙철은 1917년 11월 23일 천도교로 귀의했고, 12월 20일 손병희는 그를 성도사로 임명했다.[50] 이때 손필규도 함께 이적한 것으로 보인다. 1907년 김연국을 따라 시천교로 옮겨간 후 권병덕계를 거쳐 10년 만인 1917년이 되어서야 천도교로 돌아왔다.

1917년 12월 22일 의형제와도 같았던 김낙철이 60세의 나이로 사망하자,[51] 그의 역할을 대신하여 본격적으로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

4. 논산 지역 3·1운동과 특별성미금사건

손필규는 1918년 1월 4일 지방 순회위원에, 4월 28일 논산 교구장에 선출됐다.[52] 손병희 산하에서 교령(敎領)으로 동지를 규합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53] 그해 8월 14일 손병희는 두목(頭目) 14인에게 도호(道號)를 부여하였는데, 그에게는 '반암(槃菴)'이 내려졌다.[54]

1919년 전국에 걸쳐 3·1운동이 일어나자 논산 교구장으로 있던 손필규(孫弼奎)는 만세 시위를 계획했다. 3월 2일 이리교구장인 이중열로부터 함열천도교원인 민영순(閔永淳)[55]이 독립선언서 약 40매를 받아 저녁 6시경 욱정(현재 반월동과 부창동 일대) 천도교 교구실에서 손필규를 비롯하여 김태호(金泰昊 혹은 金泰午)[56]와 이백순(李伯純)[57]에게 전달했다. 당시 논산군은 익산대교구 관할이었다.[58] 김태호는 그중 한 꾸러미를 들고 밤 9시경 부여 천도교구실에 도착해 김종석(金鍾錫), 황우열(黃宇烈), 박성요(朴性堯), 이범인(李範仁), 최규석(崔奎錫) 등에게 각지에 전달할 것을 요청했다. 나머지 독립선언서는 3일 새벽 논산 읍내에 뿌려졌다.[59]

---

47) 『天道敎會月報』 1916년 8월호, 9월호, 1917년 12월호, 1918년 1월호.; 김정인, 위의 글, 13~16쪽.

48) 「侍天敎摠部의 紛擾」, 『每日申報』 1915.4.22. 김정인, 위의 글, 13~16쪽.

49) 『天道敎會月報』 1916년 8월호, 權秉悳, 「懺悔錄」, 『天道敎會月報』 1917년 1월호.; 김정인, 위의 글, 17쪽 재인용.

50) 『天道敎會月報』 1917년 11월호. 「天道敎書」 제3편 의암성사(義菴聖師),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13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김낙철역사」에 의하면, 1915년 2월 3일 손병희를 찾아 전수식을 가진 후 성도사에 임명되었다.(「김낙철역사」, 위의 책, 218쪽.) 그러나, 1915년에는 천도교에 '성도사'라는 직책이 없으며, 1917년에 만들어졌다고 한다.(성주현, 「용암 김낙철과 부안지역 동학」, 『동학농민혁명과 부안』, 부안문화원, 2011, 158쪽.)

51) 성주현, 위의 글, 158쪽.

52) 「天民寶錄」,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소장.

53) 국사편찬위원회, 「손필규 신문조서(제2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0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논산문화원, 위의 책, 138쪽.

54) 「天道敎書」 제3편 의암성사(義菴聖師),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13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55) 주소는 익산군 성당면 대선리로, 당시 44세였다. 이 사건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함열교구장(1908~1910.10.), 이문원(1910.12.), 공선원(1911.3.), 함열군교구 전제원(1911.4.), 함열교구장(1913~1916.11.)과 공선원(1917.1~1918.)을 역임하였다.(이양희, 위의 글, 52쪽.)

56) 주소는 은진면 가산리로 이 사건으로 옥사했는데, 당시 40세였다. 논산군교구 서기(1916.1.), 순회교사(1917.4~1918.5.), 금융원(1918.5.)을 역임했다.(「김태호 등 14명 판결문」, 대정8년(1919), 공 제95호. 이양희, 위의 글, 52쪽.)

57) 주소는 벌곡면 조룡리로, 당시 35세였다. 이 사건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연산교구 공선원 및 전제원(1911.1.), 공선원(1911.3, 1913.6.), 연산교구 서기(1916.1.), 논산교구 포덕원(1923.1.)의 이력을 갖고 있다.(이양희, 위의 글, 52쪽.)

58) 『天道敎會月報』, 1914년 8월호. 1910년 당시 논산군은 은진교구와 연산교구로 나뉘어지는데, 연산교구에 진산교구가, 은진교구에 노성교구가 병합되었다.(『天道敎會月報』, 1910년 9월호, 12월호.)

59) 「김태호 등 14명 판결문」, 대정8년(1919), 공 제95호,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3권, 1987,

3월 12일 손필규와 이백순, 김태호는 검거됐다.[60] 오후 3시 반쯤 되어 강경 시민과 학생 약 100여 명이 단체를 지어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 시위를 일으켰다. 일제는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주모자 10여 명을 잡아들였다.[61] 그러나 강경, 논산에서부터 시작한 시위는 연산, 노성, 은진, 두계, 벌곡으로 확산되며 4월 중순까지 계속됐다.[62]

손필규는 논산 교구장으로서 이 지역의 3·1만세 운동을 주도하고 김태호를 통해 부여지역으로 독립선언서를 전달하는 등 충남 남부지역으로 퍼져나가는 데 있어 가교역할을 한 인물이었다.[63] 그는 공주 지방법원에서 3월 31일 불기소처분을 받지만,[64] 거기에는 더 큰 사건으로 엮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있었다. 일제는 3·1운동을 기회로 삼아 천도교 종단 전체를 탄압하고자 하였다. 1919년 5월에 벌어진 '천도교 특별성미금 모금'을 문제 삼아 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65] "각 도로부터 특별성미금이라 빙자하여 조선 독립에 관한 비용으로 지방교도로부터 독립이 성공하는 날에는 천도교도들을 중용하겠다고 부르짖으며 금전을 모집하고 있던 자"라며 각 지역 교구 임원 159명을 체포하고 이 중 45명을 기소했다.[66]

지역 천도교인들은 중앙총부에 기도미(祈禱米)와 성미금(誠米金)을 납부했는데, 성미금은 매끼 각 가족 수만큼 한 숟가락씩 쌀을 덜어 모은 다음 지역 교구에 납부하도록 했다. 이를 매월 말 현금화하여 절반 정도를 중앙으로 올려보내고, 나머지는 교구 운영비로 사용했다. 기도미는 기도시에 사용된 5홉가량의 쌀을 모아뒀다가 지역 교구에 납부하고 이를 일 년에 두 번 납부했다.[67]

이 기도미를 '특별성미금'이라 하여 천도교 중앙총부의 자금원으로 봤고, 천도교 대교당 건축 명목으로 대규모 기부금을 모아 독립운동에 전용했다는 혐의였다. 손필규 또한 1919년 5월 2일에 각 교도들로부터 150원을 모금한 혐의를 받았다.[68]

1919년 5월 16일 손필규는 경성 헌병분대에서 육군헌병 오장 이마오카 시게이치(今岡重一)로부터 첫 번째 심문조서를 받았다.

문: 피고가 150원을 중앙총부(中央總部)에 납부하였다는 돈은 예년에 납부하는 기도미의 대금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명목으로 납부한 것이 아닌가?

답: 사실이 기도미의 대금이며, 다른 명목으로 납부한 것은 아니다.

문: 정광조(鄭廣朝, 주: 천도교 대종사장)는 기도미의 대금이 아니고 다른 명목으로 납부한 것이라는데, 어떠한가?

답: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다. 만약에 정광조가 그런 말을 하였다면 미치기라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문: 정광조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도 그와 같이 말하였는데, 어떠한가?

답: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으나 나로서는 그런 일이 없다.

문: 그렇다면 건축비로 납부하였는가.

104~105쪽. 『매일신보』, 1919.3.13. 박창건, 「3.1운동과 천도교 지방교구의 활동」, 『신인간』 통권 458호(1988년 3월호), 81쪽. 정을경, 「충남지역 천도교인의 3·1 만세 운동 전개」, 『지방사와 지방 문화』 19권 2호, 2016, 372쪽. 이양희, 위의 글, 43쪽. 김진호, 「충남지역 3·1운동의 전개와 의의」, 『충남 3.1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충남연구원, 2019. 23쪽.

60) 이들 세 명은 손필규의 집에서 태극기를 제작해 안방 천정을 뚫어 보관했다는 얘기를 손우진으로부터 들었다고 한다.(손혜순과 손혜영 증언, 2023.3.11.)

61) 손필규의 피검 투옥일이 「天民寶錄」에 3월 12일로 되어 있으므로, 『매일신보』 1919년 3월 13일 기사 내용의 시위 기록은 3월 12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天民寶錄」. 『매일신보』, 1919.3.13. 이양희, 위의 글, 46쪽.)

62) 국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3권, 1987, 104쪽. 정을경, 위의 글, 372~373쪽.

63) 부여는 논산의 천도교구에서 전달한 독립선언서가 군내 각 지역으로 배포되면서 확산된다.(이양희, 위의 글, 81쪽.)

64)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형사사건부 재판기록』, 1919, 386쪽, 국가기록원 소장.

65) 이양희, 위의 글, 54~55쪽.

66)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9권, 1989, 406쪽.

67) 이양희, 위의 글, 54~57쪽.

68) 국사편찬위원회, 「손필규 신문조서(제2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0권, 1989. 이양희, 위의 글, 54, 57쪽.

답: 그러한 일도 없었다. 사실이 기도미의 대금이었다.
문: 피고가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도사(道師)나 대종사장(大宗司長, 주: 정광조)이 희사금을 모집하도록 명한 것이 아닌가?
답: 나는 그런 것을 듣지 못하였다.
문: 피고에 대하여 직접 그런 말은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일은 없는가?
답: 간접으로도 들은 일이 없다.
문: 천도교에서 희사금을 모집하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피고의 교구에서만 듣지 못했을 리가 없으니 사실상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답: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으나 나의 교구에서는 결코 그러한 일은 없었다.
문: 피고가 150원을 납부한 일은 틀림없는가?
답: 틀림없다.
문: 틀림없다고 하지만, 천도교에는 130원 이상은 납부되어 있지 않은데 20원은 피고가 소비하였는가?
답: 130원은 기도미이고, 20원은 월성미(月誠米)의 대금이므로 별도로 장부에 기재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69]

5월 19일, 정광조(鄭廣朝)는 형법 제78조·형법 제198조·형법 제252조 및 보안법 제7조에, 신승희(申勝熙)는 형법 제197조·형법 제103조에, 박노학(朴魯學)은 형법 제78조·형법 제103조·보안법 제7조에, 손필규(孫弼奎) 외 42명은 형법 제78조 및 보안법 제7조에 각각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했는데, 손필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70]

피고(주: 손필규)는 20년 전부터 천도교 신자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자로서 현재 논산의 교구장인데, 중앙총부로부터 1919년 4월, 날짜는 알 수 없으나 조선 독립에 관한 운동비를 모집하라는 명령을 받고 신도로부터 돈 150원을 모집한 후 5월 2일에 서울 중앙총부로 가서 납부한 자이다.

관련자들은 당일 내란 및 보안법 위반 등의 죄명으로 송치되는데, 손필규를 비롯한 29명이 구속되고, 16명이 불구속 처리되었다.[71]
손필규의 보안법 위반사건은 1919년 5월 21일 경성 헌병분대에서 조선총독부 검사 카와무라 시즈미(河村靜水)에 의해 재차 확인받는다. 손필규는 신분을 재확인받은 뒤, 위기(位記: 관리의 품위)·훈장(勳章)·종군기장(從軍記章: 군 휘장)·연금(年金)·은급(恩給) 또는 공직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형벌에 처해진 적이 없는지에 대해 없다고 대답했다.[72]
한 달 뒤인 6월 3일 보안법 위반사건으로 손필규는 경성 지방법원 인천지청에서 카와무라 시즈미(河村靜水)로부터 두 번째 신문을 받았다.[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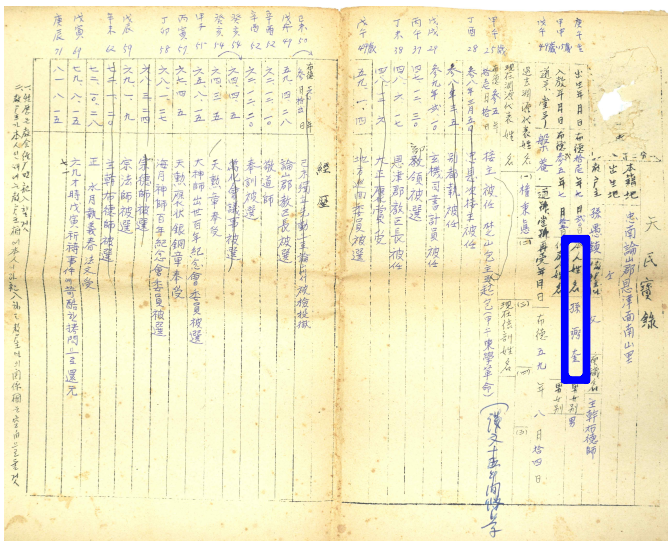
문: 그대는 언제부터 천도교 논산교구장을 하고 있는가?
답: 작년부터이다.
문: 그대는 금년 5월 2일에 각 교도들로부터 150원을 모아서 천도교중앙총부에 납부한 것이 틀림없는가?
답: 그렇게 했으나, 그것은 특별성미금(特別誠米金)으로서, 매년 납부하는 관례로 되어 있는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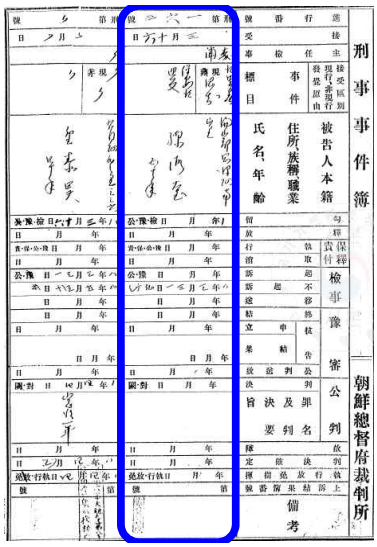
69) 국사편찬위원회, 「피고인 孫弼奎 조서(제3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9권, 1989.
70) 국사편찬위원회, 「의견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9권, 1989.
71) 기록에 따른 구속자와 불구속자 명단은 <표3>과 같다.(국사편찬위원회, 「의견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9권, 1989.) (<표3 '특별성미금 사건' 구속·불구속자 명단> 참조.)
72) 국사편찬위원회, 「손필규 신문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9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73) 국사편찬위원회, 「손필규 신문조서(제2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0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문: 위는 특별성미금이라는 명목하에 모금한 조선독립운동의 자금이 아니었는가?
답: 결코 그런 일은 없었다.
문: 그러나 그대는 금년 4월경 천도교중앙총부로부터 조선독립에 관한 자금을 모집하라고 명령을 받은 일이 있다는데, 어떠한가?
답: 그런 명령을 받은 일은 없다.
문: 정광조(鄭廣朝)에게서 그러한 명령을 받은 일이 없는가?
답: 없다.
문: 그들이 조선독립운동의 자금을 특별성미금이란 명목하에 모금한 사실은 모르는가?
답: 조금도 모른다.
문: 그대는 조선독립운동에 관계한 일이 없는가?
답 조금도 없다.
문 그대는 조선의 독립을 희망하고 있는가?
답 그런 희망은 전연 없다.

그는 중앙총부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신념과는 무관하게 본인의 행동이 독립운동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거짓으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징역 3년 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른 것으로 보인다.[74] 그런데, 실제 3년을 다 복역한 것 같지는 않다. 아마도 1년여 남짓 복역한 것으로 짐작된다.[75]



자료출처:「천민보록」,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자료출처: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형사사건부 재판기록』, 1919, 국가기록원 소장.

4. 1920·30년대의 활동과 무인멸왜기도사건

그는 출옥 후 오히려 더 왕성히 활동했다. 1921년 12월 10일 경도사(敬道師)에 추대되고, 같은 달 20일 봉훈(奉訓)으로 선출됐다.[76] 그의 노력은 1923년 3월 5일 천훈장(天勳章)[77] 수여로 이어졌다. 이는 오관을 믿고 지킨 사람이 3년 계속 믿음과 정성이 있을 때 주어지는 표창장이었다.

1922년 12월 25일 천도교 내 화합을 유도하기 위해 친목 조직으로 만화회(萬化會)가 설립되는데, 1923

74) 국가보훈처,「손필규」,『국가유공자공훈록』3권, 1987.
75) 1920년 9월 12일 가족 소유의 묘지 일대가 은진면유림으로 편입되어 국유화한 것에 관해 불복신립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출소는 이전이다.(「特別緣故林讓與」서류 중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 제출 "진술서", 1920.9.12. 국가기록원 소장.)
76)「天民寶錄」.
77) 조기주,『동학의 원류』, 천도교중앙총부, 1982, 293쪽.

년 4월 5일 손필규는 의사(議事)로 선출됐다.[78]

1923년 7월, 논산에서 광제조합(廣濟組合)이 설립되었다. 천도교종리원 종리사 손창진(孫昌鎭)[79]과 황우열(黃宇烈)이 중심이 되어 소비 절약과 부업 장려를 목적으로 하였다. 특이한 점은 전국적이 아닌 논산교구와 부여교구가 연합하여 자체적으로 만든 단체였다. 조합장으로 손필규(孫弼奎)가 추대되었는데, 그의 지역적 영향력과 명망에 부응하여 활성화하고자 한 의도였다. 부장에 손창진(孫昌鎭), 간사에 황우열(黃宇烈)·김종오(金鍾午)[80], 의사(議事)에 신석손(申錫孫)·김용배(金容培)의 임원진이 구성되었다.[81] 황우열은 부여지역 3·1운동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였으며, 임천 만세운동을 주도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다.[82]

1922년 5월 손병희가 사망하자 이후 내분이 시작됐다. 박인호(朴寅浩)를 교주로 인정하는 문제로 1926년 1월 신·구파가 각각 중앙종리원을 구성하면서 명실공히 분립했다. 1927년 구파 종리원에서 교인대회파(敎人大會派, 혹은 사리원파)가 다시 분리되었다.[83]

손필규는 1920년대 중반부터 천도교 내 지역대표로 중앙의 여러 산적한 문제에 관여했다. 당시 천도교 신파와 구파 간의 통합 문제와 지방의 신자 감소, 교세 위축, 교비 감소 등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었다.

그는 1924년 8월 15일 대신사출세백년기념회(大神師出世百年紀念會) 위원으로 선출됐고, 열성적 활동에 힘입어 1926년 4월 5일에는 표창장인 천훈포장(天勳褒狀) 은동장(銀銅章)을 수여 받았다.[84] 1927년 1월 27일 해월신사백년기념회(海月神師百年紀念會) 위원으로, 이어 3월 24일 종덕사(宗德師)로 선출되었다.[85] 1928년 1월 9일 종법사(宗法師)로 선출되고,[86] 10월 29일 서울 경운동 천도교 강당에서 '천도교 제1세 대신사 수운선생 탄생일 기념기도회'가 열렸는데, 그를 포함하여 38명이 참석했다.[87] 12월 26일 서울에서 열린 천도교 제4회 정기총회 개최에도 참여했다.[88] 이 시기 통합에 대한 내부적 진통이 따랐고, 그는 지역대표 자격으로 열심히 활동했다.

1930년 10월 17일 신파인 최린의 제안에 따라 합동이 성사되어 12월 23일 합동대회를 개최했다. 1931년 1월 20일 손필규는 주간종덕사(主幹宗德師)로 선출되어 활동했다.[89] 신·구 합동에 따라 신파의 청년당과 구파의 청년총동맹도 1931년 2월 16일 천도교 청우당의 결성으로 이어졌다.[90] 4월 3일부터 4일까지 첫 합동 정기대회가 개최되었다. 통합은 이루어졌으나 일반 교인 확대 문제가 여전히 관건이었고, 특히 지방에서의 교세 확장은 재정 문제의 해결에 있어 필수적이었다. 손필규는 이때 지역대표 265명의 일원으로 참석했다. 교세가 위축된 것은 기본적으로 일제의 탄압에 기인하는 것이었지만, 대공황의 여파 때문이었고, 결국 당시 상황이 신·구 통합의 필요성을 부여했다. 이날 숙직비를 182엔 삭감하여 포덕비에 편입할

---

78) 「天民寶錄」. 창립대회에서 회장에 최린(崔麟), 부회장에 주옥경(朱鈺卿, 주: 손병희의 두 번째 처)이 선출되었다.(『동아일보』, 1922.12.27.)

79) 동명이인일 수도 있겠으나, 근거리에 살고 있던 손필규의 7촌(큰할아버지인 손영규의 증손자)일 가능성이 크다.(『밀양손씨 족보』.「지적원도」 은진면 남산리.)

80) 은진교구장에서 출교 처분(1911.9.7.) 후, 교구장에 재임(1911.10.24.)되었다. 논산교구 공선원(1914.8.19.) 역임되었다.(『天道敎會月報』, 1911년 9월호, 10월호, 1914년 9월호.)

81) 「논산광제조합설립」, 『동아일보』, 1923.7.23.

82) 본적은 부여 임천면 송전리이며, 1864년 1월생으로, 봉훈(1911.2.), 부여군교구 전제원(1916.1.), 논산교구 전교사(1921.11.), 논산교구 서무원(1923.1.), 논산종리원 면종리사(1923.5.1.)를 역임하였다.(이양희, 위의 글, 43,47,53쪽. 정을경, 「충남지역 천도교인의 3·1만세운동 전개」, 『지방사와 지방 문화』 19권 2호, 2016, 368쪽.)

8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천도교청년회 80년사』, 글나무, 2000, 122~155쪽.

84) 「天民寶錄」.

85) 위의 글.

86) 위의 글.

87) 京城 鍾路警察署長, 「천도교 제1세 대신사 수운선생 탄생일 기념기도회에 관한 건」, 『思想問題에 關한 調査書類』 5, 1928.10.29, 한국사데이터베이스.

88) 京城 鍾路警察署長, 「천도교 제4회 정기총회 개최의 건」, 『思想問題에 關한 調査書類』 5, 1928.12.26,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전국단위의 총결집이었던 이 회의에서 손필규(孫弼奎)는 경성으로 되어 있으며, 강경의 김선화(金善華), 김창하(金昌河), 논산의 노순화(盧順和)와 함께 손필구(孫弼求)로 적고 있다. 손필규의 오기일 수 있고, 이때 손필규는 중앙에서 활동했을 수도 있다.

89) 「天民寶錄」.

90)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위의 책, 165~168쪽.

것을 결정했으며, 지방 교인 확대를 위해 중앙종리원 간부를 파견하여 지방 교무를 협조하도록 했다.[91]

1931년 8월 19일 춘암(春庵) 박인호는 '정 수월집의춘(正 水月執義春)'라는 법문(法文)을 만들어 교인들에게 내려주는 한편 독실한 자들에게 재호(齋號)를 만들어 수여했다. 10월 28일 손필규도 법문을 받았다.[92] 이는 천도교 구파에서 수운(水雲)-해월(海月)-의암(義菴)-춘암(春菴)으로 이어지는 계보와 정통성을 명시하고 확고히 하고자 할 목적으로 배포됐다. 그러나 이를 부정하는 신파에 의해 이후 갈등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병 치료를 위해 일본에 있던 간부 최린이 11월 1일 치료를 중단하고 귀국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는 구파와 신파 간 발생한 갈등을 봉합할 목적으로 급히 지역대표를 소집하고 회의를 개최했다. 그리하여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천도교 인일기념일(人日紀念日: 의암 손병희 승통일)'을 매개로 집회가 열렸고, 손필규 또한 지역대표로 참석했다.[93] 이유인즉, 신·구간 합동 이래 경제계의 불황에 직면하여 교회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자 간부 50여 명의 급료가 지불되지 못했고, 이에 일부 교도들이 신·구 합병으로 인해 간부 수가 늘어난 점에 기인한다고 보아 합병을 비난하는 말이 나오면서 불거진 갈등이었다. 12월 23일 천도교 임시대회 및 제4회 전체 대표대회의 결과, 유급 간부 42명 중 약 21명을 정리하고 체제를 전면 개편했다.

그러나, 박인호가 내린 법문을 비롯하여 여러 문제로 인해 1932년 4월 2일과 3일 신파와 구파 간 각각 별도의 대회를 개최하면서 통합 1년 6개월 만에 다시 분열하게 되었다.

1932년 12월 24일 구파는 '천도교 중앙종리원 집회'를 열어 박인호를 교주로 추대하며 교헌 개정을 단행했고, 손필규를 포함하여 108명이 참석했다.[94] 교헌 개헌 중에는 지방교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졌으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인의 호수가 100호 이상인 경우는 교회를, 그 이하는 직접지도실을 설치한다. 지방교회의 직원은 교장(敎長) 외 5인을 두며 교화와 교무를 통일하기 위해 향후 전교실을 설치하고 전교사 1인을 둔다. 또한 전교실에는 포덕(布德) 및 오관실행(五欵實行)을 장려하기 위해 포덕부를 설치한다. 포덕부는 교인의 호수가 5호 이상으로 조직한다.

1936년 8월 14일 지일기념일(地日紀念日: 해월 최시형 승통일)을 기해서 교주 춘암(春菴) 박인호(朴寅浩)는 비밀 지령을 내렸다. 구파의 중요 연원대표를 통해 비밀리에 멸왜기도를 명하였는데, 결국 발각되어 1938년 "무인멸왜기도사건(戊寅滅倭祈禱事件)"이 발생했다. 천도교 구파의 대표적 활동으로서 교인들 간 결속을 다지고 이를 바탕으로 독립에 대비한 자원 마련과 독립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된 운동이었다.[95] 손필규는 여기에 연류되어 다시 체포됐다. 두 번째 겪는 옥고였다.

멸왜기도운동은 '식고문(食告文)', '특별희사금모집', '특별기도'라는 세 가지 계획으로 진행되었다. '식고문'은 아침과 저녁을 먹을 때 시행하는 운동의 기초로 교인들의 정신적 결합을 위함이었고, '특별희사금모집'은 중일전쟁으로 인해 구파의 국권 회복의 기회에 대비한 활동 자금 마련이었으며, '특별기도'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는데, 독립 의지를 강고히 하고자 함이었다.

> 무궁(無窮)한 내 조화(造化)로 개같은 왜적(倭敵)놈을 일야간(一夜間)에 멸(滅)하고서 전지 무궁(無窮)하여 놓고 대보단(大報壇)에 맹서(盟誓)하고 한(汗)의 원수(怨讐)까지 갚겠습니다.[96]

---

91) 京城 鍾路警察署長, 「天道敎舊派中央宗理院 集會取締 狀況報告(通報)」, 『思想에 關한 情報』 2, 1931.4.6, 한국사데이터베이스.
92) 「天民寶錄」.
93) 京城 鍾路警察署長, 「天道敎人日紀念日 및 그 前後 諸集會狀況에 관한 건」, 『思想에 關한 情報』 1, 1931.12.28, 한국사데이터베이스.
94) 京城 鍾路警察署長, 「[天道敎舊派中央宗理院] 集會取締 狀況報告(通報)」, 『思想에 關한 情報』 2, 1932.12.24, 한국사데이터베이스.
95) 정을경, 「일제강점기 朴寅浩의 천도교활동과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3집, 2009, 365~369쪽.
96) 천도교 京忠全淵源, 『天道敎精神史』, 1981, 36쪽.

그러나 1938년 2월 17일 최택선의 비밀누설로 인해 256명이 투옥되었다. 일제는 중일전쟁 중이라는 특수한 시대 상황의 고려하에 이 사건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여 5월 20일부터 모두를 석방했다.[97] 그러나 손필규는 당시 고령이었고, 혹독한 가해진 고문을 온전히 견뎌내기에는 무리였다.[98] 결국, 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8월 15일 후유증으로 인해 69세로 사망했다.[99] 1977년 대통령 표창, 1990년에는 애족장이 추서되었다.[100]

한편, 1914년 논산 지역에서 토지 조사 사업[101]이 실시되었고, 1917년부터 전국에 걸쳐 임야 조사 사업이 시작됐다. 손필규는 은진 토양리 산 68번지에 소유하고 있던 집안 임야(묘지림 포함 1町 1段 3畝=약 11,187㎡)가 은진면유림(恩津面有林)으로 편입된 사실을 알게 됐고, 1917년 10월 5일 증거자료 18통과 함께 신고서를 제출하여 문제 제기했다. 이어 1920년 9월 12일 불복신립(不服申立) 진술서를 조선총독부 임야조사위원회에 제출했다. 결국 임야조사위원회는 공문을 통해 1921년 12월 20일 임야 중 소유권이 있음을 일부분 인정했다.[102] 이같은 결정에 또다시 불복하여, 다음 날인 21일, 임야의 경계가 잘못 측정되었다면서 2정(町) 2단(段) 5무(畝)에 대해 충청남도지사에게 연고림경계오류정정(緣故林境界誤謬訂正) 신청을 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듯하다. 1924년 임야조사사업이 끝나고 2년 뒤인 1926년부터 임야조사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연고자에게 일제는 대거 삼림을 양여하기 시작했다.[103] 그러자 그는 1927년 7월 14일 임야 2정 2단 5무(약 22,275㎡)에 대해 증거자료와 함께 특별연고임양여원(特別緣故林讓與願)을 제출했고, 1932년 12월 14일 연고임야조서(緣故林野調書)를 작성하며 청취서를 남겼다. 결국 1934년 1월 15일 특별연고삼림양여처분조서(特別緣故森林讓與處分調書)에 따라 임야 2정 2단 5무 중 1정 3무(약 10,197㎡)가 인정되어 국유토지양여통지서(國有土地讓與通知書)를 받게 되었다.[104] 그의 끈질긴 노력이 얻어낸 값진 성과였다.

지금까지 확인된 손필규의 활동과 이력은 <표4>로 정리된다.(<표4 손필규 활동 일지> 참조.)

5. 나오며

반암 손필규는 은진 남산리에서 태어났다. 1894년 25살의 늦은 나이에 동학에 입도했고, 그해 11월 10일 초산포의 접주로 임명되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 안타깝게도 개인 기록 이외에 초창기 그의 구체적인 활동을 확인할 방법은 없다.

1898년 손필규는 김낙철이 출소한 후 귀향하는 길에 그를 맞이했고, 이후 그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종교활동의 동지로서 함께 했다.

김낙철에게 외종이었기에 둘은 매우 가까웠고, 김연국이 체포되자 둘 사이의 연락책으로 활동하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 진보회에서 활동하던 그는 1907년 은진 교구장으로 임명된다. 그런데 종통의

---

97) 「天道敎 舊派不穩事件 不穩文特別 祈禱文 一般信徒에게 配布 特別喜捨金도 募集」, 『동아일보』, 1938.5.1. 정을경, 위의 글, 368~369쪽.

98) 장남 손우진(孫愚鎭)이 인계하여 업고 집으로 왔을 때는 모진 고문으로 인해 몸은 피멍에 부어올라 가위를 사용하여 벗겨내야 했다고 한다.(김선일 녹취, 2022.8.15. 손혜순 증언, 2023.3.11.)

99) 정을경, 위의 글, 369쪽.

100) 국가보훈처, 「손필규」, 『국가유공자공훈록』 3권, 1987.

101) 「지적원도」 은진면 남산리.

102) 『조선총독부 관보』 2807호, 1921.12.20,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93쪽.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 완료 후 잘못된 토지사정(土地査定)에 대해 개인이 토지를 되찾는 과정을 보여주며, 이는 토지조사사업 과정에서 실제로 민유지가 국유지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103) 최병택, 「일제하 임야조사사업의 시행목적과 성격」, 『한국문화』 37, 2006, 201쪽. 일제는 1911년 삼림령을 발표하면서 1917년부터 1924년까지 임야 조사 사업을 실시한다. 임야는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으로 나누고, 그중 연고자가 있는 불요존국유림은 기준(위의 글, 202쪽 참조.)에 따라 연고자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여 조림토록 하고, 성공할 시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하였다.

104) 조선총독부, 「특별연고삼림양여-손필규」 관련서류, 1915~1934, 국가기록원 소장.

승계 문제에 불만을 품고 있던 김연국이 천도교에서 갈라져 나와 시천교로 이적하자 뜻을 같이하던 김낙철과 함께 손필규도 옮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연국 개인의 비리 문제뿐만 아니라 시천교 내 여러 문제가 불거지고, 점점 친일적 성향을 띠게 되자 김낙철과 함께 권병덕계를 거쳐 1917년 즈음하여 손병희의 천도교로 돌아왔다.

그해 12월 평생의 스승이자 동지였던 김낙철이 사망하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1918년 논산교구장에 임명되고, 손병희로부터 '반암(槃菴)'이라는 도호(道號)를 부여받았다.

1919년 3·1운동 당시 논산 교구장이었던 손필규는 독립선언서를 전달받아 논산 지역 만세 시위를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으로의 전파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했다. 일제에 의해 중앙 천도교 조직과 연결된 특별성미금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여 구속됐고, 3년형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그는 논산교구에서 조직한 광제조합의 장으로 임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천도교 중앙 조직 내 지역대표로서 왕성히 활동했다. 1920년대 후반부터 천도교 내 신·구파 간의 통합 문제, 신자 감소 문제와 이로 인한 재정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1938년 2월 17일 무인멸왜기도사건이 발생했고, 고문의 후유증으로 그해 8월 15일 죽음에 이르렀다. 그의 나이 69세였다.

그는 지역 사회에서 좋은 평판을 지녔으며, 묵묵히 영향력을 행사했다. 품행이 발랐으며, 불의한 회유와 외압에도 굴하지 않았다. 돈과 권력에 대한 탐욕이 없었으므로 일제의 숱한 감시에도 조국의 해방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했다. 위험한 경계에서도 늘 올곧은 신념으로 현명한 선택을 했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신념을 위해 살다 간 인물이었다.

<참고문헌>

(전자정보)
구글 어스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기초자료)
『東亞日報』
『每日申報』
『天道敎會月報』
『밀양손씨 족보』,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소장.
『밀양손씨 세계』,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소장.
『부안김씨 족보』, 부안문화원 소장.
『천도교 논산교회 교보』, 1935,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소장.
「손필규 제적등본」, 대법원 소장.
「天民寶錄」,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소장.
「김태호 등 14명 판결문」, 대정8년(1919), 공 제95호, 국가기록원 소장.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형사사건부 재판기록』, 1919, 국가기록원 소장.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관보』 2807호, 1921.12.20, 한국사데이터베이스.
_____, 「특별연고삼림양여-손필규」 관련서류, 1915~1934, 국가기록원 소장.
_____, 「지적원도」 은진면 남산리, 1914년 5월 1일 著手-7월 31일 完成, 국가기록원 소장.
京城 鍾路警察署長, 「천도교 제1세 대신사 수운선생 탄생일 기념기도회에 관한 건」, 『思想問題에 關한 調査書類』 5, 1928.10.29, 한국사데이터베이스.
_____, 「천도교 제4회 정기총회 개최의 건」, 『思想問題에 關한 調査書類』 5, 1928.12.26, 한국사데이터베이스.
_____, 「天道敎舊派中央宗理院 集會取締 狀況報告(通報)」, 『思想에 關한 情報』 2, 1931.4.6, 한국사데이터베이스.
_____, 「天道敎人日紀念日 및 그 前後 諸集會狀況에 관한 건」, 『思想에 關한 情報』 1, 1931.12.28, 한국사데이터베이스.
_____, 「天道敎舊派中央宗理院 集會取締 狀況報告(通報)」, 『思想에 關한 情報』 2, 1932.12.24,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 「손필규 신문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9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_____, 「의견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9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_____, 「피고인 孫弼奎 조서(제3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9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_____, 「3·1운동과 국권회복단- 1.경성헌병대 의견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9권, 국사데이터베이스.
_____, 「손필규 신문조서(제2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0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_____, 「피고인 손필규 소행조서(素行調書)」,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0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논산문화원, 「일제시요시찰명부」, 『논산 지역의 독립운동사』, 1991.
부안문화원, 「김낙철역사」, 『동학농민혁명과 부안』, 2011.
「창산후인 조석헌역사」,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10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侍天敎宗繹史」,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11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東學道宗繹史」,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11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天道敎書」,『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13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兩湖右先鋒日記」,『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15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논문 및 저서)
조기주,『동학의 원류』, 천도교중앙총부, 1982.
천도교 京忠全淵源,『天道敎精神史』, 1981.
한국민족운동사학회,『천도교청년회 80년사』, 글나무, 2000.
국가보훈처,「손필규」,『국가유공자공훈록』3권, 1987.
논산문화원,「손필규」,『논산 지역의 독립운동사』, 1991.
김대훈,「논산 지역 동학농민혁명 연구」,『동학학보』제61호, 2022.
김재영,「일제강점기 호서지방의 형평운동」,『충청문화연구 제18집』, 2017.
김진호,「충남지역 3·1운동의 전개와 의의」,『충남 3.1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충남연구원, 2019.
김영웅,「부안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후손 증언록」,『동학농민혁명과 부안』, 부안문화원, 2011.
김정인,「大韓帝國期.日帝强占期 侍天敎의 존재 양태와 활동」,『국사관논총』제103집, 2003.
박창건,「3.1운동과 천도교 지방교구의 활동」,『신인간』통권 458호(1988년 3월호).
성주현,「3·1운동과 봉황각」,『3·1운동과 민족대표 손병희 선생』학술발표회 자료집, 2009.9.29.
_____,「용암 김낙철과 부안지역 동학」,『동학농민혁명과 부안』, 부안문화원, 2011.
이양희,「부여인의 3.1운동 전개와 천도교」,『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63집, 2018.
정을경,「충남지역 천도교인의 3·1만세운동 전개」,『지방사와 지방 문화』19권 2호, 2016.
_____,「1920년대 충남지역 천도교단의 변화와 청년문화운동」,『역사와 담론』제84집, 1917.
_____,「일제강점기 朴寅浩의 천도교 활동과 민족운동」,『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33집, 2009.
최병택,「일제하 임야조사사업의 시행목적과 성격」,『한국문화』37, 2006.
허 종,「1920년대 충남지역의 청년운동 -공주.논산.대전 지역을 중심으로-」,『역사와 담론』제55집, 2010.

(신문기사)
이진영,「남산리의 남산재와 손필규의 항일운동」,『놀뫼신문』, 2019.3.12.
_____,「사라지는 논산·계룡을 기록하라」,『놀뫼신문』, 2021.6.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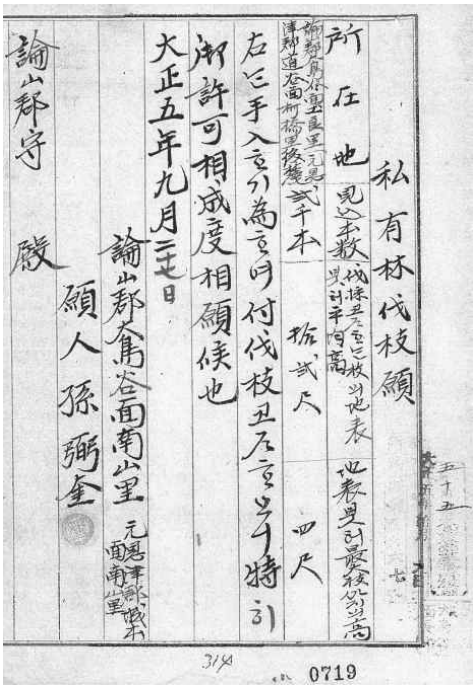
(증언)
김선일-1941년생, 손필규 손자며느리 녹취, 2022.8.15.
김영웅-1939년생(호적 1941년생), 족보 명 형태(炯台), 김낙철의 손자 녹취, 2022.11.25.
손필규 손자 모임 증언, 2023.3.11., 2023.4.5.

*참조 자료 목차

<사진1 손필규 인물>
<사진2 손필규 필체>
<사진3 천도교 논산교회 터>
<표1 손필규 가계도>
<표2 손필규와 가족의 천도교 입교>
<표3 '특별성미금사건' 구속·불구속자 명단>
<표4 손필규 활동 일지>
<그림1 손필규, 김영식(金永植)의 집과 손필규, 김낙철 묘의 위치>
<그림2 손필규 소유지의 위치>

<사진1 손필규 인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소장

<사진2 손필규 필체> 조선총독부, '사유림벌지원' 「특별연고삼림양여-손필규」 관련서류, 1916.9.27. 국가기록원 소장.



私有林伐枝願

所在地

右之手入之分為之時付伐枝丑尺之儀特別

御許可相成度相願候也

大正五年九月三十日

論山郡斧谷面南山里

願人孫弼金

論山郡守殿

0719

<사진3 천도교 논산교회 터>

<표1 손필규 가계도>

```
孫柱錫 ┌孫抗┬孫永郁
       └孫漆 ├孫永爀┬孫箕烈
             └孫永祐 ├孫晃烈
                     ├孫勖烈
                     ├孫晟烈┬孫廷圭(1855.4.18.~1879.7.25.)
                     ├女    ├孫奉圭(1858.7.27.~1895.7.19.)
                     └女    ├孫弼奎(1870.7.20.~1938.8.15.)
                            ├女
                            └女

孫弼奎(婦 安貞德)┬孫順姬 女┬김갑술
                  │        ├김복자 女
                  │        └김경숙 女
                  ├孫遇鎭(1912.5.12.)(婦 金丙順)[105]┬孫濟元(婦 김선일)
                  │                                  ├孫濟德(일찍 사망)
                  │                                  ├孫惠子 女
                  │                                  ├孫惠順 女
                  │                                  ├孫惠榮 女
                  │                                  ├孫濟世(일찍 사망)
                  │                                  ├孫濟公(婦 이강순)
                  │                                  ├孫惠淑 女
                  │                                  ├孫濟千(婦 천영희)
                  │                                  └孫惠善 女
                  ├孫堯姬(1915.3.12.) 女┬金亨洙
                  │                     ├金玉洙 女
                  │                     └金今洙 女
                  ├孫尙鎭(1918.6.17.)[106](婦 성순옥)┬孫濟權
                  │                                  ├孫濟仁
                  │                                  ├孫濟華
                  │                                  ├孫德姬 女
                  │                                  └孫仁姬 女
                  └孫京鎭(1921.12.12.)(婦 이순희)-孫濟文(일찍 사망)
```

105)『천도교 논산교회 교보』에는 손성진(孫聲鎭)으로 되어 있으며, 그의 처 또한 김성화(金聲嬅)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손필규 제적등본」에는 손우진과 김병순으로 적혀 있고, 특히 김병순과 김성화는 김해김씨인 부 낙식(洛植)의 2녀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일인임이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후손들의 증언이 이를 입증한다.(「손필규 제적등본」, 대법원 소장.『천도교 논산교회 교보』, 1935,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소장. 김선일 녹취, 2022.8.15. 손혜숙 증언, 2023.5.18.)

106)「天民寶錄」.『천도교 논산교회 교보』에는 1918년 7월 24일생으로 적혀 있다.

<표2 손필규와 가족의 천도교 입교>

이름	관계	입교 년월일
손필규(孫弼奎)	본인	1894.7.15.
안정덕(安貞德)	처	1894.7.15.
손우진(孫遇鎭)	장남	1927.5.5.
김병순(金丙順)	장남婦	1927.4.5.
손요희(孫堯姬)	여	1928.5.5.
손상진(孫尙鎭)	남	1929.6.15.(천도교 논산교회 교보), 혹은 1933.4.5.(천민보록)
손경진(孫京鎭)	남	1932.1.15.

<표3 '특별성미금사건' 구속·불구속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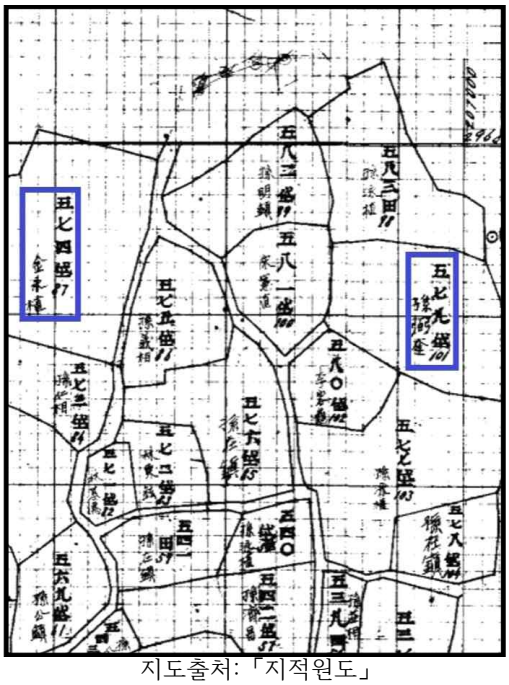
구속				불구속	
정광조(鄭廣朝)	홍기억(洪基億)	김영윤(金永倫)	오응선(吳膺善)	오상준(吳尙俊)	홍일창(洪一昌)
홍성운(洪聖運)	정도영(鄭道永)	이기완(李岐琓)	이상현(李象鉉)	노헌용(盧憲容)	김천일(金天一)
이병춘(李炳春)	오명운(吳明運)	김태현(金台鉉)	최사민(崔士岷)	방찬두(方粲斗)	이변일(李釆一)
이인숙(李仁淑)	박화생(朴花生)	이동구(李東求)	장기렴(張基濂)	황석교(黃錫翹)	신승희(申勝熙)
김순성(金順成)	박노학(朴魯學)	오영창(吳榮昌)	김문벽(金文闢)	김금득(金今得)	임동호(林東昊)
신광우(申光雨)	신태연(申泰鍊)	한현태(韓賢泰)	김재근(金在根)	오지영(吳知永)	김종학(金鍾學)
정용근(鄭瑢根)	**손필규(孫弼奎)**	정계관(鄭桂瓘)	김희봉(金羲鳳)	김상규(金相奎)	우사현(禹士鉉)
정계완(鄭桂琓)				김영언(金泳彦)	임근태(林根泰)

<표4 손필규 활동 일지>

	년 월 일	나이	활동 일지 (*표시: 토지반환 소송 관련)
1	1970.7.20.	1	출생
2	1894.7.15.	25	동학 입도
3	1894.11.10.		초산포(楚山包) 접주(接主) 被任 및 기포(起包)
4	1897.3.5.	28	충은(忠恩) 차접주(次接主) 被任
5	1897.3.5.		별도집(別都執) 被任
6	1898.2.10.	29	현기사(玄機司) 서계원(書計員) 被任
7	1900.4.5.	31	팔도대접주(八道大接主)로 임명
8	1901.		김연국 석방을 위한 충청도 대표 중 1명으로 참여
9	1904.2.		진보회(進步會) 조직시 함께 참여
10	1906.12.30.	37	부령(部領) 被選
11	1907.6.17.	38	은진군 교구장 被任
12	1907.12.16.		시천교로의 이적**(추정)**
13	1913.3.29.	44	서울과 지방교인 대표 자격으로 박형채와 전태현 등 불법행위 단속
14	1915.7.전후	46	시천교 권병덕계로 이동**(추정)**
15	1915.9.		권병덕계의 중앙시천교회본부 의결기구인 찬리회(贊理會)에서 지방에 파견한 위원으로 충청남북도 교인 수습 단속
*16	1915.9.27.		사유림벌지원(私有林伐支願) 논산군 대조곡면 토양리(元 은진군 도곡면 柯橋里 일대) 2,000그루 벌지 허가서를 제출함
*17	1915.10.		삼림지엽벌채허가원(森林枝葉伐採許可願) 면적 1정 1단 3무 4보
*18	1916.2.	47	묘적계(墓籍屆) 손제창(孫濟昌, 손정규의 자) 제출 분묘소유자 손필규, 제주(祭主) 손제창(1906.5.5.생), 면적 15평. 사망자 손정규(孫廷圭, 1855.4.18.~1879.7.25.), 사망원인 서증(暑症)
*19	1917.10.5.	48	임야의 면유림(面有林) 편입에 대한 신고서 제출(1정 1단 3무). 지주

			또는 연고자 손필규. 100여년 금양한 서류18통을 증거자료로 제출.
20	1917.11.23.		천도교로의 이적**(추정)**
21	1918.1.4.	49	지방순회위원 被選
22	1918.4.28.		논산군 교구장 被選
23	1918.		교령(敎領)
*23	1918.9.25.		사유림벌지원(私有林伐支願) 은진면 토양리 일대 5,000그루 벌지허가서를 제출함
24	1919.3.2.	50	천도교 논산교구장 손필규는 이리교구장인 이중열로부터 전달된 함열천도교원인 민영순의 독립선언서 약 40매를 김태호와 이백순과 받아 3일 새벽 논산 읍내에 살포. 김태호에게 부여로 전달케 함.
25	1919.3.12.		3·1운동으로 논산에서 피검(被檢) 투옥(投獄)
26	1919.5.2.		'천도교 특별 성미금 모금 사건'으로 보안법 위반에 의거 기소
27	1919.5.19.		내란 및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28	1920.9.12	51	불복신립(不服申立) 진술서를 조선총독부 임야조사위원회에 제출 종형(6촌형) 용규(龍圭)로부터 매수하여 오랫동안 禁養·長養한 삼림과 가족 분묘 5기가 있으며, 매수문권(買受文券), 은진현감 도형제사(圖形題辭) 証明에 관한 서류, 채벌허가증 등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은진면유림 설정 시 잘못 포함되어 돌려받기를 요구함
29	1921.12.10.	52	경도사(敬道師)
30	1921.12.20.		봉훈(奉訓) 被選
*31	1921.12.20		조선총독부 관보에서 임야조사위원회공문(林野調査委員會公文)을 통해 불복신립사건(1921.11.2.) 재결한 내용을 군청에 열람케 함(12.20.). 일부 소유권을 인정받음.
*32	1921.12.21.		연고림경계오류정정(緣故林境界誤謬訂正) 신청 관련 특별지도면과 함께 경계가 잘못 선정되어 국유지로 편입되기에 정정신청함.(林野 2町 2段 5畝)
33	1923.3.5.	54	천훈장(天勳章) 奉受
34	1923.4.5.		만화회(萬化會) 이사(議事) 被選
35	1923.7.		논산 광제조합(廣濟組合) 조합장으로 추대
36	1924.8.15	55	대신사출세백년기념회(大神師出世百年紀念會) 위원 被選
37	1926.4.5.	57	천훈포장은동장(天勳褒狀銀銅章) 奉受
38	1927.1.27.	58	해월신사백년기념회(海月神師百年紀念會) 위원 被選
39	1927.3.24.		종덕사(宗德師) 被選
*40	1927.7.14.		특별연고림양여원(特別緣故林讓與願), 임야 2町 2段 5畝 제출
41	1928.1.9.	59	종법사(宗法師) 被選
42	1928.10.29.		천도교 제1세 대신사 수운 선생 탄생일 기념기도회 참석
43	1931.1.20.	62	주간종덕사(主幹宗德師) 被選
44	1931.4.3.~4.		신구 합동 첫 합동 정기대회 참석
45	1931.12.22.~26.		천도교 인일기념일 참석
46	1931.10.28.		정 수월집의춘법문(正 水月執義春法文) 받음
*47	1932.12.14.	63	연고임야조서(緣故林野調書), 청취서(聽取書) 제출. 母 任(임)씨, 큰형 손정규(孫廷圭), 5촌 숙부 승렬(承烈)과 妻 분묘와 함께 妻의 母의 분묘가 소재하고 있음과 6촌형 손봉남(孫鳳男)이 과거 김종록(金鍾祿)과의 산송 문제로 인한 소송문건, 손봉규(孫奉奎)의 단자(單子), 1832년 손용규(孫龍圭)의 토지등기서류인 전명문(前明文)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
48	1932.12.24.		천도교 구파 중앙종리원 집회 참석
*49	1934.1.15.	65	특별연고삼림양여처분조서(特別緣故森林讓與處分調書)에 따라 임야 1정 3무에 대해 국유토지양여통지서(國有土地讓與通知書) 받음.
50	1938.2.	69	무인멸왜기도사건(戊寅滅倭祈禱事件)으로 구속
51	1938.8.15.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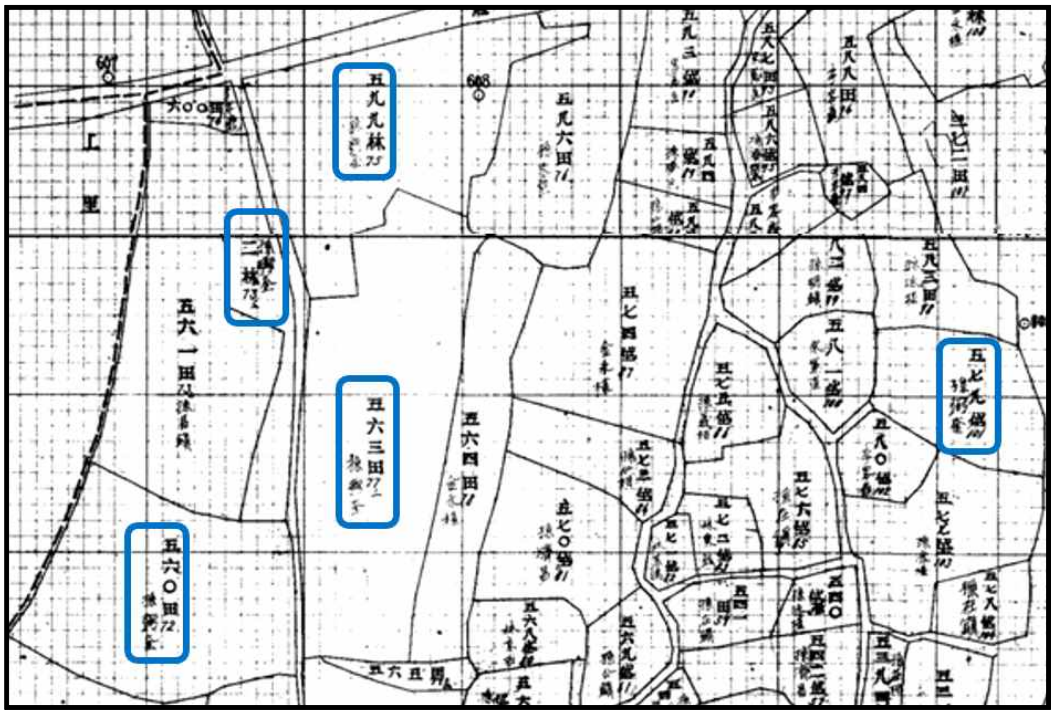
<그림1 손필규, 김영식(金永植)의 집과 손필규, 김낙철 묘의 위치>



지도출처:「지적원도」

지도출처: 구글 어스

<그림2 손필규 소유지의 위치>



지도출처:「지적원도」

1920~1930년대 천도교 도일 유학생의 현실인식

성지윤(히토츠바시대학교대학원 박사과정)

1. 머리말

본 연구의 목적은 1920~1930년대 일제하 식민지 조선사회에서, 천도교 도일 유학생(이하, 천도교 유학생)이 바라보는 사회상과 현실인식을 파악하고, 그들이 추구하던 민족운동의 지향점을 밝히는 것이다.

천도교 유학생들의 사상과 지식은 천도교 청년 조직의 운영에 반영되었고, 그것이 천도교 민족운동의 방향을 이끌어간 발판이 되었다. 그렇기에 그들의 행동과 실천 기반인 현실인식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사회 다방면으로 영향을 끼친 천도교의 민족운동을 보다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에 단서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천도교 민족운동을 이끌었던 그들의 사상을 살펴봄으로써,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사와 사상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재고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시기는 도일 유학생이 급격히 증가한 1920년대부터, 오심당 사건으로 천도교 청년조직의 사회적·정치적 활동이 사실상 끝을 맺는 1934년까지이다. 특히 1920년대 중반 이후 시기는 대내적으로는 천도교단의 분화 및 조선농민사 분리,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 사상의 확산과 가중화되는 일제의 경제수탈 등으로 인해 천도교 유학생의 사상적 고민이 깊어지는 한편, 그 지향점은 더욱 분명해지는 시기였다. 해당 기간 동안 천도교 유학생의 현실인식을 통해 일제강점기 천도교의 민족운동 속에서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천도교 유학생은, 동학 시기인 1902년을 시작으로 1910년 강제병합 이후로도 꾸준히 파견되었다.[1] 본격적으로 천도교에서 유학생을 파견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부터였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는 1920년 이후 천도교가 해외 포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관한 천도교의 입장을 살펴보면, 포덕자를 양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년교인을 외국에 유학 보내 사회가 원하는 포덕자로 양성하자는 제안이나,[2] 조선을 넘어 해외에서도 포교가 이루어지길 희망한 글[3] 등이 있다. 둘째는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식민지 조선사회의 교육열이 높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1919년 3·1운동 이후 많은 지식인들이 실력양성을 바탕으로 한 독립운동을 고려하였고,[4] 이에 따라 1910년대에 비해 교육열이 높아져 취학률이 크게 늘었다.[5] 또, 이 시기 조선총독부의 유학 정책이 바뀌면서 조선인의 유학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유학생이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일본으로 유학을 가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생각해보면, 당시 유학을 통해 지식인을 양성하는 것이 곧 조선 독립에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되었던 것이다.

도일 유학생들은 학업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천도교 유학생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천도교 청년 조직의 일원으로 민족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방학을 이용해 순회강연을 열기도 하였다. 한편, 언론과 잡지에 글을 투고함으로써 당시 사회상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과 사상 등 현실인식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천도교적 이데올로기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천도교가 이끄는 민족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으며, 유학 중은 물론 유학 이후에도 꾸준히 조선사회의 민족운동에 관여하였다.

---

1) 동학농민운동 이후 천도교의 3대 지도자 손병희는 조선 정부의 탄압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조직 개편과 문명 개화 체험을 목적으로 일본에 머물렀는데, 그 당시에 손병희의 주도하에 유학생 파견이 추진되었다. 이용창, 「동학교단과 합동일진회의 일본 유학생 파견과 단지동맹」, 『동학학보』 22, 2011, 165쪽.
2) 류재풍, 「덕을 천하에 펴랴면 엇지할가」, 『천도교회월보』 131호, 1921년 7월, 13쪽.
3) 이원행, 「辛酉年과 余의 默禱」, 『천도교회월보』 126호, 1921년 2월, 53쪽.
4) 「朝鮮敎育會趣旨書」, 『동아일보』, 1920년 6월 23일.
5) 한우희, 「일제 식민통치하 조선인의 교육열에 관한 연구」, 『교육사학연구』 3, 1990, 122쪽.

천도교 유학생이 일원 혹은 간부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천도교 청년조직은 여러 부문에서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청년·농민·여성·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천도교의 민족운동이 일제강점기 동안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유학생들은 이러한 천도교 민족운동에 유학 중은 물론 유학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 순회강연에 강사로 나서거나 언론사에 근무하거나 교원이 되는 등 식민지 조선사회의 장래를 위해 꾸준히 활동을 벌였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천도교 유학생이 유학처인 일본에서 잡지『동학지광』을 발간한 것은 주목할 만한 활동이다.[6)]

지금까지 천도교 유학생이 언급된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선, 천도교 청년조직에 관한 연구[7)]는 1920년대 천도교 유학생의 강습·강연 활동에 대해 일정과 내용, 강연자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였으며, 관련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어, 천도교 문화운동에 관한 연구[8)]는 1920년대 천도교 문화운동의 발단부터 사상적 배경과 활동내용 등을 상세히 분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천도교 유학생들의 교육활동을 검토함으로써 문화운동의 관점에서 그 의의를 평가하였다. 또, 천도교청년당 도쿄지부에 관한 연구[9)]는 천도교 유학생이 도쿄에서 천도교청년회를 조직하게 된 배경부터 천도교청년당으로 변화하는는 과정 및 활동 내용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활동 내용으로는 포교활동을 비롯한 강연활동과 대외활동 등에 대해 다루었다. 다만 이들 연구는 천도교 유학생의 존재와 역할을 비교적 간략하게 소개하는 데에 그치고 있거나 활동 내용에 집중하고 있다. 때문에 그들의 구체적인 현실인식이나 사상적 동향에 대해서는 보다 검토할 여지가 있다.

일본에서도 천도교 유학생애 대해 다룬 연구가 있는데, 먼저 일본 내 천도교 활동을 다룬 연구[10)]가 있다.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해방 이후까지, 일본 도쿄와 교토, 오사카, 고베 지역에서 이루어진 천도교 활동을 정리하였다. 그 중에서 도쿄를 중심으로 한 천도교 유학생들의 활동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사상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고, 활동내용 또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았다.

이어, 1920년대 조선인 유학생을 다룬 연구[11)]에서는 1920년대 천도교 유학생과 천도교와 명확한 관계를 가진 유학생 지원 단체 자강회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자강회 내에서 천도교 유학생이 맡았던 지위나 학비 지원 내역 등에 대해 밝혔고, 자강회 회원 중 천도교 유학생의 존재를 명료하게 정리하였다. 또, 일제강점기 천도교의 교육활동을 다룬 연구[12)]는 1920년대 평안도 지역을 중심으로 천도교의 교육 활동을 분석하면서 활동에 참여한 도일 유학생에 대해 논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그들의 출신 지역과 강연활동, 유학 이후의 행적 등을 검토함으로써 천도교 교육 활동이 유학생의 행적에 토대가 되어있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천도교 유학생의 일부를 다룬 것에 불과하며 그들의 현실인식에 대한 검토는 아직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방정환·백세철·김형준 등 천도교 유학생 개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다수 발표되었다.[13)] 그러나 이

---

6) 동학지광사인,「東學之光 三號 準備에 臨하여」,『신인간』, 1928년 2월 21호, 51쪽. 동학지광의 발간 목적과, 발간을 담당한 유학생들의 사회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현대의 탈선된 제도와 모순된 조직' '현대의 공평치 못한 처사로 기울어지는 윤리' 등,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이 명확히 드러난다. 또한, 단순히 유학생들의 잡지라는 존재가 아닌, 동학에서부터 시작하여 천도교라는 차원에서 발간된 잡지라는 점을 강조하여 그 정체성이 '천도교'라는 종교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동학지광 편집 및 발행, 인쇄 관계자인 김병순, 최광룡, 강호원, 김형준, 홍순길, 김상린 등의 잡지 투고문 및 활동 내역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그들은 정치, 국민사회주의, 생활투쟁, 농촌갱생, 종교문제, 노동운동, 세계정세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투고문을 썼으며, 특히 농촌과 노동 분야에 관련된 글이 다수 게재된 것이 확인된다. 또, 천도교 청년당원, 조선농민사, 조선노동사, 농민강좌 등에 참여한 것이 확인된다.

7) 성주현,『근대신청년과 신문화운동』, 모시는 사람들, 2019.

8) 조규태,『천도교의 문화운동론과 문화운동』, 국학자료원, 2006.

9) 청암대학교 재일코리안 연구소,『재일코리안 운동과 저항적 정체성』, 선인, 2016, 99~124쪽.

10) 한석희,「中国と日本の東学・天道教」,『朝鮮民族運動史研究』5, 1988.

11) 배영미,「1920年代における在日朝鮮人留学生に関する研究:留学生・朝鮮総督府・「支援」団体」, 一橋大学大学院 박사학위논문, 2010.

12) 졸저,「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天道教の教育活動 －1920年代の平安道を中心に－」, 一橋大学大学院 석사학위논문, 2021.

13) 이에 관한 대표적인 논문은 다음과 같다. 송준석,「소파 방정환의 아동존중교육사상 실천에 관한 연구」,『한국교육사학』18, 1996. 박민영,『일제강점기 김형준(金午星)의 천도교 청년운동과 문예활동』,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들 연구는 유학 시기에 대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언급하거나, 연구 대상을 '천도교 유학생'이 아닌 '운동가' 내지는 '문학가'로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천도교 유학생'으로서 유학 시기를 중심으로 그들의 사상 내지는 활동을 전면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14]

이처럼 천도교 유학생은, 주요 연구대상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다루어지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관련 연구는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천도교 유학생은 그동안 일제강점기 천도교의 민족운동 혹은 천도교단 및 청년 조직이라는 비교적 거시적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때문에 그들의 현실인식은 물론, 사상적 지향점 역시 집중적으로 분석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천도교 청년 조직 가운데 도일 유학생들의 존재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의 천도교는 사회 각 방면에서 다양한 운동과 사업을 일으키고 실행했으며 큰 영향력을 끼쳤고, 동시에 식민지당국의 요시찰 대상인 종교였다. 때문에 그만큼 일제강점기 동안 영향력을 끼쳤던 천도교라는 종교 단체에 도일 유학생이 존재했고, 그들이 천도교 내에서 어떤 사상과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동학지광』,『신인간』,『개벽』,『농민』 등의 잡지를 분석하였다. 해당 잡지에는 천도교인로서의 종교적 내용에 관한 논의는 물론 식민지 지배하 조선 사회가 직면한 사회 문제와 식민지 당국에 대한 비판의식이 담겼다. 특히『동학지광』은 지금까지 보조적인 자료로 일부 활용된 적은 있으나 주요 분석 자료로서는 충분히 검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적극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15] 다만 통권 18호까지 발간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현재는 1929년 12월호, 1930년 4월호, 1930년 10월호, 1933년 11월호 등 4권만이 확보되어 있다. 그 수만 놓고 보면 매우 적은 양임에 틀림없지만,『동학지광』은 천도교 유학생들이 발간한 잡지였다는 점에서 당시 유학 중인 이들의 사상과 입장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기에 적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물론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수가 매우 적어 독자적인 분석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천도교 유학생의 투고문이 실린 다른 잡지『신인간』,『개벽』,『농민』,『천도교회월보』,『별건곤』 등을 활용하였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본 연구는 그동안 연구의 공백이었던 천도교 유학생의 현실인식을 분석함으로써 일제강점기 도일 유학생 및 민족운동 연구의 심화를 이루고자 한다.

2. 천도교 유학생의 교육 인식

3·1운동 이후 조선총독부의 이른바 문화통치가 시행됨에 따라, 천도교에서는 1919년 9월 청년조직 교리강연부를 만들고, 청년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민족운동에 나섰다. 당시 가장 큰 관심사였던 청년과 교육 부문 운동을 시작으로, 교리강연부는 1920년 3월에 천도교청년회로, 1923년에는 천도교청년당으로 조직을 개편 및 발전하면서 신문화운동을 주도하였다. 1920년대 중반 이후로는 농민과 노동 분야를 포함한 7개 부문으로 운동 범위를 확장해 나아갔고, 그러한 민족운동에는 천도교 유학생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 각 방면에서 전개된 천도교 민족운동에 참여했던 천도교 유학생의 관심사를 크게 교육과 농촌 및 농민, 그리고 사회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본절에서는 가장 먼저 교육에 관련된 인식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천도교가 1920년대 초 신문화운동을 시작하면서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중시했던 것은 교육 문제였다. 주지하다시피, 당시는 3·1운동 이후 전반적으로 교육열이 높아진 시기였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발맞추어 천도교 유학생은 교육에 대한 담론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그들이 무엇보다 강조한 것은 교육의 중요성과 보

논문, 2016. 조미영,「천도교의 문화주의가 백철 문화에 끼친 영향 연구」,『인문사회』21, 2020 등.

14) 물론 방정환처럼 수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는 인물들의 경우는 최근 유학 시기에 착안한 연구도 등장하고 있다. 성강현,「소파 방정환의 일본 유학 시기 활동」,『방정환연구』6, 2021이 그것이다.

15)『동학지광』에 관한 자료 해제 및 소개는 다음과 같은 연구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조규태,「天道教青年黨 東京部機關紙『東學之光』」,『한국민족운동사연구』25, 2000. 김인덕·성주현,『문헌으로 보는 일제강점기 재일코리안 역사와 문화Ⅱ』, 선인, 2012, 348~515쪽.

편적 교육의 보급이었다.

1920년 6월 『개벽』에 실린 박달성의 글 「時急히 解決할 朝鮮의 二大問題」라는 글에는, 그 첫 번째로 교육 문제가 언급되었다. 그는 교육이 곧 국가의 생명이자 사회의 생명이며, 전 우주의 생명이라는 말로 당시 교육 문제가 생명과 같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16] 그는 교육이 있는 곳에 생명을 비롯한 복리와 문명, 행복과 승리가 있으며 때문에 교육이 없다면 민족과 국가, 사회는 멸망하고 쇠퇴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영국이나 미국처럼 세계 열강으로 손 꼽히는 나라는 교육으로 부강과 문명을 이루었다고 설명하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17] 한편, 교육기관과 교육자가 부족하고 그 때문에 피교육자 또한 적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조차 제대로 된 학교가 매우 적은 현실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진실로 각성하여 교육의 필요성을 알아야 할 것을 역설하였다.[18]

이어, 박달성은 바로 다음달에 한 번 더 교육 문제를 다루는 글을 실어 청년 교육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는 교육열이 낮아 배우려 하지 않았던 과거의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청년층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음을 비판하였다.[19] 하지만 세계1차대전 이후 확산된 개조사상과 더불어 조선에도 변화가 생겼고, 그로 인해 '학교학교에 입학원지가 동이 나고 강당강당에 괘상(掛床)이 부족하니 취학열은 그 얼마나 고도이며 거리거리에 게시가 부절(不絶)하며 회당회당에 만석의 보(報)가 연락하니 집회열, 웅변열은 그 얼마나 격증함인가'라며 높아진 교육열과 취학률을 긍정하였다.[20] 또, 이로 인해 조선민족과 조선사회에 사상이 있게 되었고 실력이 갖춰지게 되었으며, 앞으로 조선청년은 실력주의와 강력주의를 가지게 될 것이니 조선의 미래는 걱정할 것이 없다면서 교육을 받은 청년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21]

이처럼 천도교 유학생은 교육 문제에 큰 관심을 드러내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그와 동시에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제시된 방안 중 하나는 바로 서당 개량이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서당을 수리하고 확장하여 제대로 된 교육기관의 외관을 갖출 것, 둘째 신구학문을 겸비한 인물을 훈장으로 초빙할 것, 셋째 학생들을 강압적으로 교육하지 않을 것, 넷째 한문 이외에 조선어·한술·지리·역사 등을 가르칠 것과 수업 연한을 정해 가르치고 보통학교 저학년 수준으로 가르칠 것 등이 설명되었다.[22] 다만 이는 서당 자체를 가장 바람직한 교육기관으로 상정한 것은 아니었다. 현실적으로 학교를 설립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서당 개량을 제시한 것이었다.[23] 때문에 도회에 살면서 학교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 현대적 교육을 받게 하라고 당부하였다.[24] 이와 함께, 방학을 맞아 고향으로 가는 학생들에게는 농촌에 가서 자기 집, 자기 이웃들에게 한글 하나라도 꾸준히 알려줄 것을 당부함으로써 교육 보급의 역할을 촉구하였다. 더불어 학생 계층을 조선의 가장 믿음직한 역군이라고 긍정하며, 학생들이 적은 지식이라도 널리 퍼뜨려 가장 뿌리부터 가르쳐서 민중을 일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25] 뿐만 아니라 농민 야학과 부녀강습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면서, 학생계층이 지식인으로서 조선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어줄 것을 요청했다.[26]

이처럼 교육은 중대하게 여겨지는 사안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농촌교육은 더욱 그러했다. 이에 관해서는

---

16) 박달성, 「時急히 解決할 朝鮮의 二大問題」, 『개벽』 1호, 1920년 6월, 23쪽.
17) 위와 같음, 24쪽
18) 위와 같음, 25~26쪽.
19) 박달성, 「急激히 向上되는 朝鮮靑年의 思想界, 可賀할 朝鮮靑年의 知識熱」, 『개벽』 2호, 1920년 7월, 25~28쪽.
20) 위와 같음, 28쪽
21) 위와 같음, 29~30쪽. 한편, 그는 같은 시기 천도교회월보에도 유사한 내용의 글을 실었다. 그는 「활동기에 立한 천도교인의 실력여하를 논함(續)」, 『천도교회월보』 119호, 1920년 7월, 6~9쪽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알지 못하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으니 학교교육이 필수이고, 그렇지 못하면 강습이나 독학으로라도 반드시 지식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 박달성, 「世界와 共存키 爲하야 敎育問題를 再擧하며 爲擧 書堂改良을 絶叫함」, 『개벽』 5호, 1920년 11월, 28~29쪽.
23) 위와 같음, 26쪽.
24) 위와 같음, 29쪽.
25) 방정환, 「夏休 中 歸鄕하는 學生 諸君에게 - 數萬名 新進役軍의 總動員 - 일은 맨미테 돌아가 始作하자」, 『개벽』 49호, 1924년 7월, 63~64쪽.
26) 천도교종리사 이인숙, 「농민과 부녀를 위하여 일하라」, 『신인간』 3호, 1926년 7월, 31~32쪽.

박달성이 농촌으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1920년대 초반에 유행하던 각종 청년단체의 순회강연이, 교통이 불편하고 여비가 많이 든다는 등의 이유로 산간벽지(삼수, 갑산, 초산, 벽동 등)에는 거의 오지 않았다면서, 민족운동을 하는 이들이 대중, 민족, 지방, 농민을 위한다면 반드시 찾아와 강연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27] 그 외에도 농촌에는 소작이나 구습 문제로 여전히 깨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피해를 입고 있는 문제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에 공감한 박달성은 식자층이 농촌의 요청에 응하여 교육 보급에 힘쓸 것을 촉구하였다.[28]

농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대한 논의는, 1920년대 중반 이후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1920년대 초반에 중시되었던 교육의 주대상이 이제는 '청년'뿐 아니라 '농민'으로까지 확장되었기 때문인데, 1925년 천도교 청년당의 주요 인물이 농민운동에 관심이 많은 인사들과 함께 조선농민사를 조직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천도교 유학생은 농한기를 이용해 농민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방책을 제안하였다. 박달성은, 인간은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에 입각하여, 농업이 없는 농한기에 농민들이 교육에 참가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주학이든 야학이든 하루 세 시간씩 6개월간 조선문과 교리를 중심으로 한 농민강습을 개최하고, 사흘에 한 번 시사강화회(時事講話會)를 열어 신문, 잡지 등을 읽고 토론하여 사회상식을 얻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교인이 아닌 사람들까지 참가하게 하여 조선 내 정세는 물론 세계 정세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알게 하고 깨우치게 할 것을 주장하였다.[29]

여기서 비교인을 농민 교육의 대상으로 상정한 것은, 천도교가 종교단체였기 때문에 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사직은 조선 농민의 처참한 생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촌 발전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농촌에서의 포교를 주장하였는데, 이때 소위 '신문명'이라고 하는 주의나 사상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농민들에게 조선농민사의 잡지 『농민』을 구독하여 지식을 갖출 것을 촉구하였다.[30] 즉, 이는 농민을 대상으로 단순히 천도교를 포교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차원에서 농민에게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세상사를 알게 하여 그들 스스로가 사상이나 주의를 받아들이고 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중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백세철은, 청년운동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인은 물론 조선민중 대다수가 농민층이고, 때문에 운동을 하기 위한 의식 향상 및 교육을 위해서는 농민을 주요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31]

보다 구체적으로 조선농민사를 중심으로 한 교육실시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종오는 조선농민사에서 책임지고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산계급 아동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민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신문잡지 윤독회(輪讀會)나 순회강좌, 토론회 등을 열어 농민들에게 현실생활에서 필요한 내용을 가르치고 학구열을 환기시킬 것을 언급했다.[32] 나아가 김병순은 농민 교육 기관 설치를 주장했는데, 그는 1929년 개정된 '서당규칙'으로 인해 서당이 폐지되면서 농민들의 교육 기회가 더욱 줄어들게 되었음을 지적하며,[33] 조선농민사의 사명으로 농민 교양을 위해 교육을 제공하자고 논했다. 이와 함께 그는 농민 교양기관 설치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제시했는데, 그 주된 내용은 보편적 교양기관과 지도자 양성기관을 따로 설치하며 교과서 및 기관 설치의 책임은 조선농민사에서 담당한다는 것이었다.[34]

---

27) 박달성, 「地方兄弟를 代하야 - 識者諸君에게」, 『개벽』 56호, 1925년 2월, 16~17쪽.
28) 위와 같음, 20~21쪽.
29) 박달성, 「내가 만약 農村에 있다면」, 『신인간』 41호, 1929년 11월, 22~25쪽
30) 박사직, 「天道敎와 朝鮮農民」, 『신인간』 48호, 1930년 6월, 5~7쪽.
31) 백세철, 「靑年運動의 諸問題」, 『동학지광』 10호, 1930년 4월, 18쪽
32) 조종오, 「農村敎育의 貫徹」, 『농민』 2권 8호, 1931년 8월, 22~25쪽.
33) 김병순, 「敎養機關 設置에 對하야」, 『농민』 3권 5호, 1932년 5월, 11쪽. 농민의 교육 기회가 줄어든 이유로는 1. 학비문제, 2.원거리관계, 3.농촌의 계절관계, 4.중학교 입학준비인 보통학교 교육을 필요로 못 느낌 등을 꼽았다.
34) 위와 같음, 11~12쪽. 구체적인 제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보편 교양기관. 각 동 농민사가 책임지고 1개소씩 설립할 것. 명칭은 ○○농민학원이라 할 것. 교과서는 본사 책임 간행으로 지정할 것. 기간은 하기 동기 혹은 상설로 할 것. 시간은 주학 혹은 야학 혹은 주야학으로 할 수 있고 학생은 남녀유소년과 성인별로 할 것.
2.지도자양성기관. 농민대중 교양에 적당한 학술과 정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지도자를 우리들의 설계 안에 양성해야 하므로 이 기관을 설치한다. 명칭은 ○○농민고등학원으로 하며 군농민사가 설립하며 기간은 1개월로 할 것. 학생은 군농민사 책임자와 동 단위 농민사 책임자, 보통교육 받은 자로 농민운동에 뜻을 가진 자로 한다. 교과서는 본

한편, 천도교 유학생은 당시 이루어지고 있는 공교육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박달성은 교육의 본 목적은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것인데, 현재의 교육은 상품 제작 과정과 같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교육은 인류상호가 인류본위로 살게 하는 사람을 만드는 대본영이기 때문에, 사람본위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선에서의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고 책임감이 막중한 일인데,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사들이 책임감 없이 그저 밥벌이로만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염려하기도 하였다.[35] 방정환 또한 '지금의 학교, 그는 기성된 사회와의 일정한 약속 하에서 그의 필요한 인물을 조출(造出)하는 밖에 더 이상도 계획도 없습니다. 그때 그 사회 어느 구석에 필요한 어떤 인물(소위 입신출세자겠지요)의 주문을 받고 고대로 작고 판(版)에 찍어 내놓는 교육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라고 하면서 상품식 공교육을 비판했다.[36]

또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박사직은 강습소와 같은 시설을 만들어서라도 여성을 가르쳐야 하며, 그 수준은 반드시 보통학교 정도는 되어야 함을 역설했다.[37] 여성 교육이 어느 정도 실시된 이후에는 여학교 교육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도 하였는데, 이에 관해서 방정환은 1931년 당시 조선의 여학교는 고등학교를 보내도 실생활과 관계없는 것들만 가르치기 때문에, 졸업을 해도 신문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는 상황임을 지적하였다. 그와 동시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교육방법을 제시하였는데, 그는 신문과 잡지를 교재로 쓸 것과 실제 현장을 접하는 것이 중요하니 재판소, 강연회, 토론회, 신문사 등을 자주 방문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여학교 교육이 개선되기를 희망하였다.[38]

이러한 천도교 유학생의 교육에 대한 인식은, 1930년대에 이르러 정치의식과 얽혀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와 관해서 백세철은, 현재 조선 청년들은 교육을 받지 못해 정치의식이 부족하고 때문에 민족운동을 할 여력이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조선 청년을 교육시켜 정치적 의식을 갖게 해야 하며, 이때 천도교청년당과 함께 청년 교육 및 의식 향상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9] 그리고 이 같은 의식을 바탕으로 1930년 당시 도쿄에 있던 천도교 유학생들은 현지에 시일학교를 설치하고, 유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강사가 되어 교리해석·천도교역사·한글·자연과학과 더불어 정치시사 등을 가르쳤으며,[40] 여름방학을 이용해 귀국강연을 여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41]

여기까지 살펴본 결과, 교육은 천도교 유학생에게 있어 시대의 흐름에 관계없이 큰 관심사였다.[42] 그들에게 있어 교육은 조선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수단이었다. 때문에 일관되게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교육을 통해 사회적 참여 역량을 기르는 점을 중시했다. 또,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유학 생활을 하면서도 '강사'의 역할을 맡아 교육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처럼 유학생이었던 이들이 끝없이 교육을 통한 계몽을 중시했다는 점은, '깨우침'과 '각성'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교육을 통해 지식을 얻는 것이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사 책임 간행으로 한다.

3.군 농민사 연합강좌와 전조선 지도자 강습. 이것은 지도자 양성 기관의 책임자가 될 만한 인격을 양성하기 위함. 몇 개 군이 연합하여 단기강습회를 개최하고 지도 책임은 본사가 담당. 중앙에서 전조선지도자 강습회를 열 것.

한편, 김정주 또한「각지 농민운동자들의 새해 새經綸」,『농민』4권 1호, 1933년 1월, 25쪽에서 농민사를 기준으로 해 상설농민학원을 세울 것을 언급했다.

35) 박달성,「朝鮮教育界와 教員資格問題」,『개벽』33호, 1923년 3월, 25~26쪽.

36) 재동경 소파,「소년의 지도에 관하여, 잡지 어린이 창간에 際하여 경성 曺定昊형께」,『천도교회월보』150호, 1923년 3월, 53쪽.

37) 박사직,「婦人教育 問題로 動議하야, 一般人士의 可決을 促함」,『개벽』9호, 1921년 3월, 35~38쪽.

38) 방정환,「딸잇서도 學校에 안보내겟소, 女學校教育改革을 提唱함」,『별건곤』38호, 1931년 3월, 10~11쪽.

39) 백세철,「青年運動의 諸問題」,『동학지광』10호, 1930년 4월, 12쪽~18쪽.

40)「時報」,『동학지광』10호, 1930년 4월, 33쪽.

41) 위와 같음, 36쪽.

42) 1920년대 이전부터 이미 천도교에서는 1910년대에 교리강습소를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교인 여부에 관계없이 실천하고 있었다. 또, 그보다 앞선 1905년 전후에도 천도교 3대 지도자 손병희의 주도로 일본에 유학생을 파견하고 학교 운영을 지원하거나 출판사 설립 및 잡지 간행을 추진하는 등, 천도교는 이전부터 끊임없이 교육을 중시하고 있었다. 교리강습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졸저,「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天道教の教育活動 ー1920年代の平安道を中心にー」, 一橋大学大学院 석사학위논문, 2021을 참조할 것. 또, 손병희의 교육사상에 관해서는 졸저, 손병희의 일본 망명과 개화사상의 형성 ー손병희의『準備時代』를 중심으로ー, 동학학보 59호, 2021을 참조.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3. 천도교 유학생의 농민 및 농촌 인식

천도교 유학생에게 있어 교육만큼이나 중시되었던 것은 농민과 농촌에 관한 문제였다. 전절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교육을 논하는 데에 있어 농민에 관한 논의가 빠지지 않았던 것도 그만큼 두 가지는 중요한 관계였다고 볼 수 있다. 또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당시 조선 민중의 대다수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때문에 일제강점기 전반에 걸쳐 조선사회에서 농민과 농촌 문제는 가장 대표적인 사회 문제였다. 더욱이 천도교는 교인의 대부분이 농민층이었기에, 천도교 유학생 또한 해당 문제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천도교 유학생은 농민과 농촌에 관한 문제가 불거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일본의 침략으로 규정하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특히 1920년부터 1926년까지 간행되었던 『개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박달성은 당시 동양척식주식회사(이하 동척)가 우세한 고양군 은평면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러 다녀온 뒤 글을 남겼는데, 이를 보면 동척으로 인한 일본의 침략과 지배에 따른 피해가 서술되어 있다. 그는 은평면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지주로 살면서 '內地ヨリイイ(내지보다 좋은)' 생활을 하고 있는 반면, 대다수의 조선인은 소작인으로 살면서 제대로 된 소득을 얻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고 하였다.[43] 그러면서 동척의 피해는 매해 심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인은 조선 땅을 지키고 버티며 근검절약하며 살아내야 한다고 하였다.[44] 이어, 소작 문제에 관해서도 조선의 농민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에 관해서는 전라남도 무안군 암태도에서 있었던 소작쟁의를 언급하면서,[45] 일본의 식민지 수탈정책과 탄압으로 인해 수많은 소작농이 희생당했다고 논했다. 그러면서 소작쟁의를 일으킨 암태도 소작농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46]

박달성이 언급한 암태도 소작쟁의는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소작쟁의로 손꼽히는 중요한 사건이다. 소작쟁의의 대상인 지주 가문 문가는 크게 소금 생산 및 거래, 고리대금업자, 소작미 판매를 통해 경제적·사회적으로 성장한 가문이었다. 특히 지주 문재철은 적극적인 토지 매입을 통해 대지주가 된 인물이었다. 대지주인 그는 대부분의 토지를 소작농에게 대여하여 지대를 징수하는 지주제 경영 방식을 취하였으며, 그의 땅을 경작하는 대부분의 농민은 영세 소작농이었다. 문재철이 징수한 소작료는 기본적으로 예상 수확량의 50% 정도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예상 수확량이 더 높게 책정되어 실제 수확량의 60%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70~80%의 소작료를 징수하는 경우도 있어 소작농들의 불만을 키우는 원인이 되었다.[47]

결국 이러한 소작료 징수에 반발한 암태도 소작농들은 소작인회를 조직하여 6가지 결의사항을 내걸었다. 그 중 첫 번째 사항이 소작료 비율에 관한 내용으로 논은 40%, 밭은 30%로 한다는 것이었다.[48] 그러나 소작농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쟁의는 이듬해인 1924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던 중 그 해 4월 조선 노농 총동맹이 결성 대회를 열어 소작료를 30%로 하기로 결의했다. 반면 조선총독부는 일부 일본인 지주가 소작농의 소작료 40% 운동을 받아들이자 이에 맞서 소작료를 수확의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지주층을 지원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암태도 소작쟁의는 조선 노농 총동맹과, 조선총독부의 지원을 받는 일본인 지주층의 대립으로 확대되어 전국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다.[49] 더욱이 암태면민들이 목포에서 대규모 원정 시

---

43) 박달성, 「內外로 觀한 彼의 二大勢力-恩平에서 東拓農場을 보고」, 『개벽』 30호, 1922년 11월, 66~68쪽.
44) 위와 같음, 69쪽.
45) 1923년 8월부터 1924년 8월까지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도의 소작인들이 벌인 소작농민항쟁. 암태도의 소작인들은 암태소작인회를 조직해, 약 1년간에 걸쳐 암태도의 식민성 지주 문재철(文在喆)과 이를 비호하는 일제에 대항해 소작쟁의를 벌였다. 문재철은 암태도 수곡리 출신으로 일제의 식민수탈정책에 편승해 토지 소유를 확대한 전형적인 식민성 지주였다. 소작인회는, 신문이나 노동단체에 직접 호소하였다. 그 결과, 각 신문에서는 연일 암태도소작쟁의를 보도하면서 여론을 비등시켰다. 암태도소작쟁의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세인의 관심을 끌게 되자, 일제는 쟁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재에 나섰고, 1년간에 걸친 쟁의는 소작인측의 승리로 일단락되었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박과사전』, 「암태도 소작쟁의」)
46) 달성, 「南鮮의 旱災 岩泰의 農亂」, 『개벽』 50호, 1924년 8월, 21~23쪽.
47) 박찬승, 「1924년 암태도 소작쟁의 전개과정」, 『한국근현대사연구』 54, 2010, 136~138쪽.
48) 위와 같음, 139~140쪽. 최성환, 「암태도 소작쟁의 참가인물과 쟁의의 특징」, 『도서문화』 56, 2020, 212쪽.

위를 벌이면서 사회적 반향은 한층 커졌고, 1924년 7월에는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조선 노농 총동맹과 조선 청년 총동맹이 「암태 소작쟁의 동정 연설회」 개최를 결정하기에 이르렀으나[50] 종로경찰서의 금지로 개최는 무산되었다.[51] 그러자 조선 각지의 사상·청년·노농 단체들이 동정금 모금에 나서는 등 암태도 소작쟁의에 대한 지원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52] 이 같은 암태도 소작쟁의는 이후에도 조정과 갈등을 거듭했으나 사실상 소작인회의 승리로 일단락되었다. 후에 암태 소작인회는 1926년 1월 암태 농민조합으로 명칭을 바꾸고 소작권 영구 보존과 논 40%, 밭 30%의 소작료 책정 등을 결의하였다.[53]

이처럼 당시 언론과 사회단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승리를 거둔 암태도 소작쟁의에 대해 천도교 유학생이 관심을 갖고 지지를 표명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기본적으로 천도교 유학생은 식민지 지배로 인한 당시 조선 농촌에 경제적 혼란이 만연해 있음을 지적하며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조선 농촌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강구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농촌 지주-소작농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구체적으로 자본가들은 각성하여 농촌 개량과 빈민 구제에 힘써야 하며, 지주는 기존 소작료제를 바꿔 최소한 소작농이 70%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농민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군과 면, 마을 등에서 저축 및 농업 장려를 목표로 한 농회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54] 그 중에서도 특히 소작료에 대한 언급은 암태도 소작인회와 조선 노농 총동맹의 결의와 일치하고 있어 박달성이 당시 농촌에서 대두되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있게 고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어, 일찍부터 조선의 농촌문제를 우려하고 있었던 오봉빈은, 1920년 8월 『천도교회월보』에 도시화에 따른 농촌 청년의 이동 현상에 대한 글을 실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계가 공전(空前)의 대성황을 맞게 되었고, 조선 또한 영향을 받아 청년들이 돈을 벌기 위해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모여들고 있지만, 만약 불경기가 찾아오면 실직의 위험이 있어 귀농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견하며 농촌 활성화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 1929년 세계경제대공황(이하, 경제대공황)으로 인해 세계경제가 침체되자 그 영향으로 조선에서도 도시의 실직자가 늘어났던 사실을 생각해보면, 그는 상당히 일찍부터 농촌문제를 내다보고 대책을 세우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55]

한편, 조선의 농촌사회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계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달성은 여전히 무당을 부르는 등의 미신을 믿고 있는 현상이나, 집안이 가난해 먹고 살 게 없다는 이유로 12살인 딸을 22살 남자와 혼인시키는 조혼 풍습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특히 그는 자신이 직접 농사와 교육, 종교, 관혼상제, 풍속관습의 개량, 신문잡지 등에 대해 농촌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설명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난한 것도 지방 탓 사망질고(死亡疾苦)도 지방 탓 풍속관습도 지방 탓 교육불능도 지방 탓 기타 무엇 무엇이 다 지방 탓'이라며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지적하였다. 물론 환경적인 탓을 부정할 수 없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배움을 통한 사람의 노력에 대해 농촌 사람들이 각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했다.[56]

1929년 경제대공황이 시작된 이후에는 조선 농촌 경제가 한층 더 어려워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농촌 경제 파탄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에 관해서 1929년 당시 도쿄에 있었던 장원준은, '현

---

49) 박찬승, 앞의 논문, 145~146쪽.
50) 「암태쟁의 동정 연설」, 『조선일보』, 1924년 7월 13일.
51) 「암태쟁의 동정 연설 금지」, 『조선일보』, 1924년 7월 14일.
52) 박찬승, 앞의 논문, 150쪽.
53) 「암태 소작인회를 농민조합으로 총회에서 개칭 결의」, 『동아일보』, 1926년 2월 1일. 「암태 소작 임총」, 『조선일보』, 1926년 2월 4일.
54) 박달성, 「時急히 解決할 朝鮮의 二大問題」, 『개벽』 1호, 1920년 6월, 29쪽. 다만, 농회 조직에 관한 규약은 지면상의 문제로 첨부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55) 오봉빈, 「전원생활과 도회생활」, 『천도교회월보』 120호, 1920년 8월, 100~102쪽. 그가 제시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대지주가 합동하여 기(其) 사업으로 제1 토지보존, 제2 금융기관 장악, 제3 산출 물가 조절, 제4 토지개량, 제5 농학지식 발달에 힘을 다 하여, 소작인조합을 조직하여 其 시행조건은 제1 기술개량, 제2 친선화목, 제3 저축장려, 제4 생활향상, 제5 농업지식보급이라.'
56) 박춘파, 「嗚呼 地方農村의 衰頹」, 『개벽』 22호, 1922년 4월, 77~81쪽.

하 세계 자본주의적 제국주의 국가 정치 과정의 필연적 소산물인 소위 농민촌 문제(농업농민 문제)의 근본적 의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는 이에 대한 대답으로 식민지당국의 지조경감책과 소작제도를 언급하면서, 두 제도는 농민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수탈을 조장한다고 하였다. 이어, 소작농은 점점 경제적으로 그 지위를 잃어가고 있고, 지주에 대한 의무는 늘어가며 경작 조건은 날로 열악해지고 있다고 논했다. 또, 그로 인해 현재의 자본주의적 사회 제도[57]에서 농민은 빈곤할 수밖에 없으며, 지주에 비해 소작농의 수가 너무 많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소작농이 자신들의 현실과 계급 문제를 인식할 것의 중요성 및 단합할 것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58] 즉, 조선의 농민들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제국주의적 자본주의라는 현실을 자각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1933년 도쿄에 재주하고 있던 지암생(知菴生)이라는 필명의 필자 또한 '조선사람은 지금 경제상 비상시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면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조선총독부의 정책을 비판하였다. 그는 일본과 동척으로 인해 대부분의 토지를 빼앗겼고, 수많은 농민이 빈농으로 전락한 현실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소작농이 대다수인 조선 농민에 대한 세금이 너무 과하고 그로 인해 빚까지 늘어나며 결국에는 소작조차 못하게 된다고 논했다. 그러면서 천도교인으로서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타개해야 할 의무가 있고, 때문에 적극적으로 민족운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59]

같은 시기에 마찬가지로 도쿄에 있던 장이근은, 당시 총독부가 제정하려고 하는 소작령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하는 글을 실었다. 그는, 향후 제정될 소작령이 대다수 농민의 사활문제를 장악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했는데, 첫째, 현재 소작농은 지주에게 생산량의 대부분을 빼앗기고 있고 이로 인해 생활이 계속해서 궁핍해지고 있으며, 둘째, 소작쟁의의 원인은 소작령의 핵심이 봉건적이고 소작료 산정 방식이 비합리적이며 불리하기 때문이며, 셋째, 소작료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소작료 산정을 요구하면 지주는 오히려 소작권을 뺏으려고 하며 법 또한 지주를 보호하고 있어 소작농은 할 수 없이 쟁의를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60] 그러면서 소작령에 대해 요구하고 싶은 것 네 가지를 주장하였는데, 1.소작농 보호와 대원칙 확보, 2.소작권 확립, 3.소작료 경감, 4.입모 차압 금지가 그것이었다.[61]

김병순의 경우, 조선 농촌의 현상에 대해 '소유 재산 이상의 과도한 부채', '자작농의 전락', '궁농기근' 등으로 설명된다고 하면서 사선에 이르렀다고 논했다. 그리고 이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부채탕감, 소작료인하, 국유미경작지 개방 등이 있지만 식민지당국은 그럴 생각이 없으며, 항만공사, 도로수선, 비행장 설치 등만 생각하고 있고, 정작 이는 실제로 농민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비현실적인 식민지당국의 정책에 비판을 가했다. 때문에 그는 농민갱생의 힘은 농민 그 자체이며, 경제적으로 단결하여 부채 농민이 조합을 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62]

이처럼 일제강점기 악화 일변도인 조선의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천도교 유학생은 일관되게 민족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찬전은 천도교 청년당의 부문 운동 중에서 농민운동이 가장 '치중 주력하여야 될' 운동이라고 보았는데, 다만 농민운동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천도교 청년당이 전개하는 모든 부문운동이 서로 지지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63]

---

57) 여기에서 말하는 자본주의적 사회라는 것은 단순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식민지 현실, 즉 제국주의적 자본주의적인 식민지 현실에 대한 비판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58) 장원준, 「우리 農民은 어디로」『동학지광』 8호, 1929년 12월, 29쪽~31쪽

59) 지암생, 「朝鮮의 現實과 우리의 態度」, 『동학지광』 18호, 1933년 11월, 6쪽~10쪽. 구체적으로 그는 조선 경제 파탄의 원인을 1.부를 가진 이들이 조선 사회를 위해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 2.과중한 세금, 3.사치하는 풍조, 4.유흥에 과소비하기 때문, 5.외국 자본의 조선 침략, 6.소작료 과중, 7.부채 중과와 강제집행 등이라고 보았다.

60) 장이근, 「小作令의 出世를 바라보면서」, 『동학지광』 18호, 1933년 11월, 34쪽~35쪽

61) 위와 같음, 37쪽. 구체적으로는 소작 기한 최소한도를 20년 이상으로 하여 소유권과 대등한 물권법으로 할 것, 소작료를 총수확의 4할 정도로 경감할 것,

62) 김병순, 「農村更生의 道」, 『농민』 3권 8호, 1932년 9월 8일, 2~7쪽. 부채 농민이 조합을 결성하여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1.부당고리를 교정하고 2.5개년간 차금 거치와 20개년 연부 상환으로 농민의 경제능력을 배양할 것, 3.저이자금을 융통할 것 4.조합원의 일절 책무는 조합으로서 처리하여 무리한 강제집행을 방지할 것을 제시하였다.

63) 김찬전, 「黨的으로 본 共組運動의 趣勢」, 『동학지광』 18호, 1933년 11월, 11~12쪽.

김병순 또한 농업경제가 자본주의에 잠식된 탓에 농민들은 정치경제상, 일반생활상의 권익을 상실하게 되었고, 때문에 근본대책으로써 농업 경제를 중심으로 한 농민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민운동의 의의에 대해, 농민운동은 농촌진흥이나 계발의 의미에서 나아가 농민의 권익을 확고히 하는 것이며, 농민의 지위를 한층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정치, 경제, 문화적 권위를 얻기 위해 농민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농민운동은, 농민의 이득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농민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64] 또, 그는 구체적인 운동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하였다. 우선, 식량의 공동경작과 공동저축을 제시하여 식량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또, 의복문제를 위해서는 양잠조합과 기업(機業)조합을 만들어야 함을 주장했고, 농민들이 자각하여 결속해서 소작권을 확립하고 소작료를 절대 5할이 넘지 않게 해야 할 것을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충족된 후에는 농민들의 수입을 위해 부업으로 양돈과 양우를 제안했다. 그 외에도 부채 정리, 저축 기관 설치 등을 언급하며 농민들이 이러한 방책을 실행에 옮길 것을 요청했다.[65]

이러한 인식을 종합해 보면, 천도교 유학생은 식민지 조선사회의 부조리함을 지적하면서 그 원인을 제공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조선인의 힘으로 조선 농촌을 지켜내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더불어, 당시 소작쟁의 등으로 드러난 심각한 조선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농촌 및 농민 문제에 큰 관심과 우려를 보이며 적극적으로 관여하고자 했다.[66]

또, 천도교 유학생은 농업을 모든 산업의 기간 산업으로써 중요시하면서 농촌 경제 및 농업생산 향상을 위하는 동시에, 농민들이 스스로 배우고 깨달아 실천적 행동에 나서는 것 또한 촉구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천도교 유학생이라는 신분이었던 만큼 천도교인으로서 조선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의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천도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식민지 조선의 농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당시 전개된 기독교 농촌운동과도 유사하다. 감리교회의 YMCA 농촌운동과, 유재기라는 기독교 유학생을 대표로 하는 장로교 농촌운동과 비교하면 종교를 바탕으로 농촌계몽과 농촌지도력 양성을 위해 농민중심의 각종 조합을 운영한 것, 사회주의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운동을 전개한 것 등을 공통점으로 꼽을 수 있다. 다만 전자인 YMCA 농촌운동의 경우, 1920년대 이후 만연해 있는 농민 몰락을, 산업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즉 이들은 식민지배로 인한 조선의 기형적 자본주의 체제가 갖는 식민지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찰하지 못한 채 민족문제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더욱이 YMCA 농촌운동은 서구형의 전형적인 자본주의 근대화를 지향하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식민지 조선사회에 대한 이해와 고민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67] 이러한 점에서 천도교 유학생들이 지향한 농촌 문제의 해결책과는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후자인 장로교 농촌운동은 '예수마을 건설'을 목적으로 협동생활과 기독교리를 통한 지상천국 건설을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천도교가 공작과 천도교리를 바탕으로 추진한 이상사회건설론과 상통한다.[68] 다만 조직력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드러나는데, 장로교 농촌운동은 구성원 간에 사상이나 의식의 차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해 조직 내부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69] 그에 비해 천도교 유학생들의 농민 및 농촌 인식은

---

64) 김병순, 「規範運動에서 科學的 運動에로」, 『농민』 2권 6호, 1931년 6월, 2, 4, 7쪽. 김병순은 「農業은 人類生活의 基礎産業」, 『농민』 3권 1호, 1932년 1월, 2~6쪽에도 농업은 인간 생명의 근간이며 농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민이 노력하여 농촌 문명과 농촌 문화, 농촌경제를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농촌 청년들이 농촌 경제 파탄으로 인해 도시 노동자로 변모하는 현상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65) 김병순, 「農村經濟의 改建要綱」, 『농민』4권 6호, 1933년 6월, 6~10쪽.

66) 「時報」, 『동학지광』 8호, 1929년 12월, 44쪽. 1929년 10월 월례회에서 2시간 반에 걸친 「조선의 농촌과 금후의 문제」라는 강연이 있었다는 것을 통해, 조선의 농촌 문제에 대해 당시 도쿄에 있는 천도교 유학생에게 큰 관심사였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67) 장규식, 「1920~1930년대 YMCA 농촌사업의 전개와 그 성격」. 『한국기독교와 역사』 4, 1995, 260쪽.

68) 위와 같음, 257~258쪽. 김권정, 「1920~1930년대 유재기의 농촌운동과 기독교 사회사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0, 2009. 186~188쪽. 조성운, 「1930년대 천도교의 이상농촌건설론과 공작계」, 『동학연구』 16, 2004, 52쪽.

69) 김권정, 앞의 논문, 185, 189쪽.

천도교 중앙총부와 비교적 통일되어 있었다.
다만 이러한 기독교 농촌운동은 천도교에 비해 운동의 토대가 되는 현실인식이 크게 달랐다. 먼저 천도교 유학생들은 1920년대 초반부터 농민과 농촌 문제가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 가장 큰 현안임을 인식하고 일찍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하고자 하였다. 반면 기독교는 오랫동안 농촌 문제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었고, 1928년 예루살렘 대회에서 조선 농촌에서 선교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은 후 농촌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70]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겠지만 이는 천도교가 과거부터 사회적 참여와 사회적 책임, 현실적 운동을 주장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크게 상반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천도교 유학생은 식민지 조선사회의 대표적인 사회문제에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이며 조직적으로 대응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4. 천도교 유학생의 사회 인식

사회에 대한 천도교 유학생의 인식은 크게 인간 집단 형태의 사회와 식민지 지배하에 놓인 조선 사회, 이 두 가지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개인과 사회의 관계 혹은 개인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고, 후자의 경우는 주로 식민지 조선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으로 되어있다.
우선 전자에 해당하는 인식에 대해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일제강점기 도일 유학생들이 1910년대에 가지고 있던 개인-사회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71] 천도교 유학생의 그것과 공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천도교의 경우, 개조사상이 유행함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후천개벽설을 주장함으로써 개인에서 사회로의 변화를 추구하였는데,[72] 이에 관해 박사직은 사회를 위해 의무를 다 하고 실행을 통해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실었다. 그는 개인과 사회 사이에 관계를 원활히 하는 것을 '수양'이라고 칭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것이 '사회적 생활'과 '개인의 활동'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개개인이 고유의 재능을 발휘하고 타인과 협동함으로써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고 하였고, 실질적인 실행을 통해서 개인은 물론 사회를 위해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을 설명하였다. 나아가 개인은 국가와 사회, 세계의 일원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개인의 인격은 무한히 존경 되어야 한다고 논하며 개인의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강자가 자진하여 약자를 보호하고, 부자가 자진하여 빈자를 구제하는 도덕이 세워지는 사회를 추구하였다.[73]
이처럼 사회에 대한 개인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인식은, 앞서 후자로 설명한 식민지 지배하의 조선 사회 현실과 필연적으로 이어졌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곧 조선 독립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해 박달성은 개조에 대해 언급하면서, 조선인으로서 조선 민족 문제를 우선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개인이 스스로 개조되고 각성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74] 이렇게 자기를 깨닫고 난 후에는 사회에 대한 직무를 알고 그 직무를 다하기 위해 사회적 '공복(公僕)'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면, '금후의 세계는 압박, 구속, 전제, 권위, 행세 등 모든 불미(不美)의 행동 즉 인도정의에 모순되는 과거 죄악의 퇴적물은 업슬 것이다.'라고 하며 '압박과 구속과 전제와 권위를 행사할 누구도 업고 바들 누구도 업다'고 논하였다.[75] 즉, 개조를

70) 김권정, 「1920년대 후반 기독교 세력의 반기독교운동 대응과 민족운동의 전개」, 『한국기독교와 역사』 14, 2001, 97~98쪽.
71) 박찬승, 「1910년대 도일 유학생의 사상적 동향」, 『한일공동연구총서』 12, 2007, 153~156쪽에 따르면, 1910년대 유학생들은 자신들이 선구자로서 국망의 나락에 빠진 조선을 구제해야 한다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 스스로를 '청년'이라 칭하면서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또한, 조선 청년들에게 조선 사회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각성할 것을 촉구하고 강조하였다.
72) 천도교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개조사상을 받아들여, 개인에서 사회, 사회에서 세계로 이어지는 개벽을 주장하였다. 이때, 조선민중 개개인을 개조의 주체로 보고 세계를 바꾸기 위한 개인의 역량을 중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졸저, 앞의 논문, 2021a, 34~37쪽.
73) 박사직, 「朝鮮社會의 修養問題」, 『개벽』 2호, 1920년 7월, 45~49쪽.
74) 박달성, 「社會問題에 先하야 自我問題에 反하라. 그리하야 社會에 對한 公僕이 되라」, 『개벽』 12호, 1921년 6월, 14~15쪽.
75) 위와 같음, 18~20쪽.

위해서는 각자가 사회적 역할을 다 하여야 하며, 그래야만이 압박당하고 구속받는 현시대의 식민지 지배 체제에서 벗어나 진정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조기간 또한 '조선은 조선이요 결코 중국도 영미법덕(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도 기타 다른 나라도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다…(중략)…조선은 조선 만한 독특성이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76] 고 논하면서 조선 청년들이 조선의 정체성을 잊지 말 것 당부하였다. 더불어 사회의 질병을 자기의 병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치료하라고 하면서, 조선 사회를 위하여 개개인이 각자 해야 할 일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을 당부하였다. 농촌에서든 도시에서든 각자가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 하면 조선도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77]

조선 사회의 이상을 논함에 있어, 조종오는 사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는 사회의 최종단계를 '민족과 민족의 연쇄'라고 보았고, 때문에 '사회적 도덕이란 세계 각 민족을 일원으로 하고 그의 균등의 조화를 구(求)하며 균등의 발달을 도(圖)하며 균등의 행복을 피(被)하게 함이 곧 사회도덕의 극치일 것'이라고 논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각민족은 각기 자민족 자체의 세계적 균등 발달이 동일한 선상에 달하기로 노력하며 세계적 균등 조화의 수평선상에 달하기로 감위(敢爲)치 아니함이 불가하겠다. 다시 말하면 세계 각민족은 도덕상에서 각각 균등의 지위를 보지(保持)하여 상호협조 공보의 정의를 가지지 아니함이 불가하겠다'고 덧붙였다.[78] 즉, 식민지 지배 체제는 정의로운 것이 아니며,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나 조선이란 나라와 조선 민족이 세계 속에서 '평등'한 관계를 맺기를 추구한 것이다.

한편, 조선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박달성은, 1926년 당시의 사회상에 대해 '이놈의 세상은 욕밧게 할 것이 업는 세상'이라고 한탄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선은 일이 업다. 갑오혁명을 말하고 기미운동을 말하나 (원문 이하 3줄 삭제) 일이 업는 고로 이러케 잠잠하다'고 한 것과 같이, 더 이상 사회를 바꾸려는 운동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조선 사회가 아무 일이 없는 걸 좋아하는 이들에게 '무사태평을 운위하는 부물(腐物)들아. 무사태평을 말할진대 차라리 송장이 되야 북망산천에 가 누어 잇스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79][80] 조기간 또한, 1927년 당시 조선 사회가 '혼탁무세력(混濁無勢力)'한 것은 전체를 위할 줄 모르고 자기만 위할 줄 아는, 사회생활을 무시하는 인간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81]

비판적인 시선은 식민지 조선 사회 그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조선인들에게 향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박달성은 1921년 6월 여름방학을 맞아 순회강연을 하기 위해 도쿄를 떠나 조선으로 건너오는 과정에서 목격한 조선인들에 관한 글을 실었다. 그는, 시모노세키에서 부산으로 가는 배 안에서 만난 조선인들의 모습이 여전히 너무나도 구시대적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것이 '우리 민족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스스로에 대해 '천벌을 당할', '억울하고 통분한' 일이라고 안타까워하였다.[82] 그러나, 그는 같은 글에서 조선의 장점을 발견했다면서 긍정하기도 하였다. 순회강연을 다니면서, 문명국의 전유물이라고만 생각했던 미풍양속이 알고 보니 조선에도 많이 있었고 오히려 나은 것도 있었음을 깨달았다고 논했다. 동시에, '이 조흔 강산에 왜 문화의 꽃이 못 피며 이 조흔 낙원에 왜 행복의 과(果)가 업겟'느냐고 조선의 미래를 긍정하였다.[83] 또, 그는 조선 사회에서 조선 고유의 양식과 의식, 생활, 문화 등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외국 것의 모방이 아닌, 조선 고유의 것을 만들어낼 필

---

76) 조기간, 「신인간이 되는 방편」, 『신인간』 3호, 1926년 7월, 25쪽.
77) 위와 같음, 22~25쪽.
78) 조종오, 「道德的 場面에 立하여 誠敬信을 論하노라」, 『신인간』 45호, 1930년 3월, 22쪽.
79) 춘파, 「豪言妄談」, 『개벽』 69호, 1926년 5월, 75~77쪽.
80) 이후 박달성은 청년 교인의 장래에 관한 글에서 조선이 독립하지 못한 상황으로 가정하였다. 그는, 현재 동경하고 있는 사회가 장래에 결국 오지 않는다면 농사는 물론 장사나 월급생활도 할 수 없고, 일어나 영어를 모르면 부당한 일을 겪을 것이라고 하였다. 천도교 청년만이 아니라 조선 청년 전체의 미래가 불안하다고 보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천도교를 세상에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박달성, 「恐怖냐? 歡喜냐? 靑年敎人의 將來如何」, 『신인간』11호, 1927년 3월, 61~63쪽.
81) 조기간, 「第一 미운 일 第一 보기 실흔 일 -私有思私有視하는 者들」, 『별건곤』 9호, 1927년 10월, 59쪽.
82) 박달성, 「回顧 夏路七千里」, 『개벽』 16호, 1921년 10월, 41~42쪽.
83) 위와 같음, 46~47쪽.

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84] 그러면서, 사람들 중에는 새로운 조선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뭐든지 파괴하고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만, 조선 사회에는 파괴할 것보다 지키고 아낄 것이 많다고 하면서 그러한 급진적인 사상에 동의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85]

사회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촉구하는 인식은 1920년대 후반에도 계속되었다. 다만, 1920년대 후반 이후에는 그 양상이 조금 달라졌는데, '투쟁'이나 '계급'과 같은 용어가 사용된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적 참여와 관련된 내용을 통해 달라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1929년 『동학지광』에 글을 실은 최광룡은 사회를 살아가는 존재로서 '인간생활의 가치를 찾고 인간 존재의 의의를 증명하려면 오직 의식적 생활을 하는 끝에서뿐 가능하다고 단언한다'고 하였다.[86]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가치와 존재의 의식을 찾아내려거든, 자기 개인 일원을 붙들고 야단법석을 하지 말고 의식적 사회생활 즉 전체를 위하여 생활'[87]하여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개인과 사회의 관계성을 중시하는 인식은 계속되고 있었다.[88]

뿐만 아니라 현실 참여를 중시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김병순은 천도교가 가진 사회적 참여의 정당성과 필요성, 그리고 천도교의 정교합일을 주장하였다. 그는 시대적 산물로 생기는 것이 종교이고 종교는 시대적 지도원리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천도교 또한 현 조선 사회의 시대적 산물이자 현 시대의 지도 원리라고 설명하였고 나아가 종교적 교양과 민족운동의 병행, 즉 교정합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89] 구체적으로, 인간의 일률 평등을 실천하고자 하는 인내천주의를 실현하는 것은 곧 지상천국 건설이고, 천도교는 유물과 유심을 하나로 보는 성신쌍전을 실현할 특수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수단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에게 있어 천도교의 성신쌍전과 교정합일은 '사회의 지도원리를 지지하는 동시에 자체의 진리를 자체의 투쟁력으로 진전시키는 것'으로 설명된다.[90]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회의 존재성을 의심할 금일에 처하여 과감스러히 싸울 것은 목하 천도교도의 당면한 임무'라고 하면서 천도교리를 바탕으로 한 투쟁을 통해 사회의 존재성을 찾자고 주장하였다.[91]

보다 강력하게 정치투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도 있었다. 이응진은 약소민족의 민족운동 방향을 제시하는 글에서, 현시대에 결정적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로 계급문제와 민족문제를 언급했다. 다만 식민지 지배하에서는 계급문제 보다 민족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았다. 그는 민족문제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피지배, 피압박, 피착취, 피침략의 민족이 생기는 것이라고 하면서, 식민지 민족은 정치투쟁을 통해서만이 민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92] 나아가 민족과 민족이 대립하는 오늘날에 민족이라는 것은 소멸하여야 할 계급에 이른 것이라고 하면서, 민족적 계선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족운동이 필요하고 천도교의 민족개벽이 바로 그에 해당하는 운동이라고 하였다.[93]

백세철은 청년운동과 관련하여 정치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그는 조선 사회의 청년운동이 침체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청년운동단체을 의식적이고 조직적으로 재조직을 해야 하고 지금까지 해온 문화운동을 넘어 정치적 행동까지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청년운동이 완전히 정치 부문에 몰입하거나

---

84) 박달성, 「창작생활과 인생의 가치」, 『신인간』 44호, 1930년 2월 6~7쪽.
85) 박달성, 「是非를 明白키하기 爲하야」, 『개벽』 25호, 1922년 7월, 90쪽.
86) 최광룡, 「意識的社會生活」, 『동학지광』 8호, 1929년 12월, 26쪽.
87) 위와 같음, 28쪽.
88) 그는 10월호 『동학지광』에도 직업과 사회성에 관한 글을 실었다. 이 글에서 그는 육체노동을 경시하는 사회현상을 지적하는 하면서 모든 직업은 평등하고 가치 있으며, 사회성을 가진 동시에 일이라는 그 자체로 근본적으로 신성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각자의 천직을 충실히 실행함으로써 진실로 국가와 사회를 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최광룡, 「人生觀一端面 -人生世處世에 對하야-」, 『동학지광』 10호, 1930년 4월, 26쪽~28쪽.
89) 김병순, 「天道敎의 敎政合一論」, 『동학지광』 10호, 1930년 4월, 8~9쪽.
90) 위와 같음, 10쪽.
91) 위와 같음, 5쪽.
92) 이응진, 「經濟學上으로 본 民族問題에 對한 若干의 論議」, 『동학지광』 창당7주년 기념호, 1930년 10월, 24쪽.
93) 위와 같음, 28, 31쪽.

맹목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청년들이 정치 행동에 아무 관심이나 주의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94]

이어, 김형준은 조선 사회 전반에 대한 천도교 청년당의 임무를 계급이라는 관점에서 논하였다. 우선 그는 당의 정의를 '역사가 발전하는 새 계급에서 그 새 계급을 대표할 주인들의 역사적 생활이 지어 놓은 필연의 산물', 즉 새 시대의 역사적 임무를 다 하기 위해 나타난 존재라고 규정하였다.[95] 더불어 사회에는 계급적 대립과 알력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진 이들이 하나의 계급을 형성하고, 기존의 사회를 변혁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당'을 만들며, 이러한 당은 역사적 생활과 현실적 특수성 아래 운동을 해 나아가야 한다고 하였다.[96] 그는 이러한 설명을 바탕으로, 현재 조선 사회가 참담해진 원인은 민족적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분석하였는데, 때문에 계급투쟁 보다는 민족 문제를 우선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주장하였다. 즉, 현하의 당은 식민지 지배하라는 조선사회의 특수사정을 바탕으로 조선 민중을 새로운 계급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97] 그러면서 조선 사회에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실천 경험과 조직역량을 갖춘 당이 필요하며, 그러한 조건을 갖춘 건 천도교 청년당이라고 주장하였다.[98] 김정주 또한 현하 해결할 중요 문제로써 조선의 현실과 천도교 청년당의 역할을 꼽으면서, 청년당이 사회 전반에 걸쳐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당 자체가 통일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99]

이처럼 천도교 유학생은 조선 사회 전반에 큰 관심을 두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었다.[100] 그들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사회적 임무와 책임, 사회적 참여를 꾸준히 강조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이미 상술한 바와 같이 1910년대 도일 유학생의 사상적 특징과 공통된다. 다만, 천도교 유학생은 조선 독립이라는 최종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인 사회적 참여를 주장함에 있어 천도교가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다. 그들은 천도교인이라는 자각과 교리를 바탕으로 청년운동 및 농민운동 등을 전개함으로써, 조선 민중 개개인의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그리고 천도교라는 종교를 통해 식민지 조선 사회 전반에 걸친 민족적, 사상적,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다. 이러한 인식은, 1920년대 후반 이후 천도교가 사회적 차원을 넘어 정치적으로도 운동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한편, 조선의 사회 문제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의 자체적인 문제로 해석하려는 시각이나, 조선의 현대화되지 못한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것 역시 당대 도일 유학생의 인식과 공통된다. 이는 당시 천도교 유학생을 포함한 도일 유학생들이 가지는 사상적 한계라고 할 수

---

94) 백세철, 「靑年運動의 諸問題」, 『동학지광』 창당 7주년 기념호, 1930년 10월, 14쪽.

95) 김형준, 「朝鮮에서 規定되는 우리 黨의 歷史的地位」, 『동학지광』 1930년 4월, 10호, 11~12쪽.

96) 위와 같음, 12쪽.

97) 위와 같음, 15~16쪽.

98) 위와 같음, 16~17쪽. '조선에 있어 천도교와 같이 그 민중의 역사적 생활이 지어 놓은 것이 어디 있으며 역사의 새 계급을 짓기 위한 최초의 운동을 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과거생활이 물질적 정신적 생활에서 적■되어온 것을 해결치 않으면 안 될 것을 자각하여서 양방면 즉, 사상개벽과 민족, 사회개벽을 부르짖고 일어났다. 그리하여 역사가 전환되려는 최초의 임무-예여(例如) 갑오운동-를 지고 소리친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 조건에 있어서도 그들은 조선의 특수사정과 다수민중으로 조성되었고, 그들의 이론은 사상개벽으로부터 시작하여 민족개벽 즉 식민지XX을 계단으로 하여 사회개벽 즉 계급문제 해결에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이면 그들의 역사적 실천경험에 있어서는 갑오경장 기미의 삼대운동의 역사적 실천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조직역량에 있어서도 삼대운동 등 기타에 많은 시련을 받은 정예한 의식분자로서 지어졌고 또 조선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것이 다시 있느냐! 그렇다. 우리는 확실히 우리 당뿐이 조선 현계단의 임무 -나아가서는 세계 인류의 문제를 해결한 수도 있지만-를 다 할 역사적 지위를 차지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99) 김정주, 「第四次全黨代表大會에서」, 『동학지광』 10호, 1930년 4월, 18~22쪽. 김정주는 천도교 청년당이 7개의 부문운동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 당과 부문운동이 유기적 관계를 가졌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논했다. 각각의 부문운동이 당의 통일된 방침과 지도 아래 일어나야만, 전체적인 민족운동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 예로, 김정주는 조선이 아무리 농업국이라고 할지라도 농민운동만으로는 조선 사회 전체 운동을 진작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100) 1929년 11월 천도교 청년당 도쿄지부 월례회에서는, 2시간에 걸쳐 학생문제, 상민문제, 유소년문제 등을 주제로 각각 김병순, 최경삼, 한정호가 강연을 했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천도교 유학생은 조선을 떠나 유학처에서도 조선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있을 것이다.[101] 그러나 그와 동시에 천도교 유학생들은 식민지 조선 사회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약육강식의 세계질서에 대한 부당함과 불합리함을 비판하는 의식 또한 빠뜨리지는 않았다.
이상으로, 일제강점기라는 조선 사회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천도교 유학생이 당시의 사회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고, 또 바꿔 나가고자 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일제강점기 조선 사회에 대한 그들이 담론이, 최종적으로 식민지 지배로부터의 독립을 목표하고 있었음은 명백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담론의 기저에는 천도교에 대한 신앙심과 천도교라는 종교가 조선 사회를 바꿔 내리라는 강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

5. 맺음말

3·1운동 이후부터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청년조직을 중심으로 전개된 천도교의 민족운동에는 천도교 도일 유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그들은 천도교인이자 일본 유학생이자 교역자, 그리고 당대의 지식인으로서 식민지 조선사회의 여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라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천도교 유학생은 교육과 농민 및 농촌, 사회에 관한 다수의 글을 남기며 각자의 사상과 주의를 표명하고 또 공유하며 논의했다. 그들의 현실인식은 당대 도일 유학생들과 비슷하여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교육과 농촌 문제는 천도교 유학생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안이었다. 더욱이 농촌 개선 방책으로 교육 문제가 언급되는 경우가 많아 두 가지 사안은 당시 천도교 유학생에게 있어 불가분의 관계였다고 보인다.
우선, 교육에 관해서 천도교 유학생은 교육을 민족운동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필요 조건이라고 보았다. 때문에 시대의 흐름과 관계없이 일관적으로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나 농촌에서의 교육 보급이 시급함을 주장하면서 교육기관 설치나 순회 강연을 통해 교인, 비교인을 따지지 않는 교육 제공을 제안하였다. 그들은 교육을 통해 조선사회의 현실을 인식하고 각성하는 것이,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유학생이었던 이들이 끝없이 계몽을 중시했다는 점은 '깨우침'과 '각성'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만큼 중시되었던 것은 농민과 농촌에 관한 문제였다. 당시 조선 민중의 대다수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더욱이 교인의 대부분이 농민이었기 때문에 천도교 유학생들 또한 이 문제를 중대하게 다루었다. 특히 경제대공황 이후 농촌 경제가 더욱 더 어려워지자, 그들은 농업을 모든 산업의 기간 산업으로써 중요시하는 동시에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농민의 부채 탕감과 높은 소작료 인하를 무엇보다 강조하였다. 해결책 제시와 더불어 농촌 경제 파탄의 원인에 대한 고찰 역시 빠뜨리지 않았는데, 그들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현재 조선 농촌 사회에 부조리함을 초래한 원인이라고 비판하였다. 또, 그렇기 때문에 조선 농민들이 자각하여 자발적으로 농촌문제 해결을 위해 단결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그들은 사회와 관련해 크게 두 가지 인식을 보였다. 첫째는 개인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였으며, 둘째는 식민지 조선 사회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인식은 식민지 지배하의 조선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개인이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하나의 주장으로 이어졌다.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곧 조선 독립과 직결되는 일이었던 것이다. 때문에 그들은 천도교인이라는 자각과 교리를 바탕으로 각종 민족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조선 민중 개개인의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1920년대 후반 이후에는 천도교가 사회적 차원을 넘어 정치적으로도 운동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였다.
이처럼 천도교 유학생은 스스로를 천도교인이라고 명확히 인식하는 동시에 식민지 지배하 조선 사회의 각 분야에 관심사와 고민을 두고 끊임없이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노력하고 있었다. 그들은 같은 시기 다른 도

101) 도일 유학생들의 조선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선은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에서도 다뤄진 바 있다. 박찬승, 앞의 논문, 2007, 156~161쪽.

일 유학생과 마찬가지로 조선사회에 대한 책임과 현실참여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학생'이면서 ‘지식인’인 동시에 '교역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때, '교역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유학 이후에 교단이나 천도교의 민족운동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유학 ‘이전’부터 혹은 유학과 '동시에', 천도교단을 중심으로 민족운동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민족문제의 해결이 반드시 천도교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고, 천도교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식민지 지배라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고 굳건히 믿었다. 그와 함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입되는 다양한 사상을 비판하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수용하면서, 조선 사회에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상을 강구해 나아갔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천도교 유학생들의 현실인식과 행적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지는 못하였다. 크게 분류한 주제를 위주로 서술하다 보니 그들이 드러낸 세계정세에 대한 관심이나 사상 및 철학에 대한 관심, 사회주의, 노동자 및 노동문제, 조선농민사나 신간회 같은 민족협동에 관한 언급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미처 다루지 못했다. 이에 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박과사전』

『개벽』, 『농민』, 『동학지광』, 『별건곤』, 『신인간』, 『천도교회월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성주현, 『근대신청년과 신문화운동』, 모시는 사람들, 2019.
조규태, 『천도교의 문화운동론과 문화운동』, 국학자료원, 2006.
청암대학교 재일코리안 연구소, 『재일코리안 운동과 저항적 정체성』, 선인, 2016.

김권정, 「1920~1930년대 유재기의 농촌운동과 기독교 사회사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0, 2009.
_____, 「1920년대 후반 기독교 세력의 반기독교운동 대응과 민족운동의 전개」, 『한국기독교와 역사』 14, 2001.
김인덕·성주현, 『문헌으로 보는 일제강점기 재일코리안 역사와 문화Ⅱ』, 선인, 2012.
박찬승, 「1910년대 도일 유학생의 사상적 동향」, 『한일공동연구총서』 12, 2007.
_____, 「1924년 암태도 소작쟁의 전개과정」, 『한국근현대사연구』 54, 2010.
배영미, 「1920年代における在日朝鮮人留学生に関する研究:留学生・朝鮮総督府・「支援」団体」, 一橋大学大学院 박사학위논문, 2010.
성지윤, 「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天道教の教育活動 －1920年代の平安道を中心に－」, 一橋大学大学院 석사학위논문, 2021.
이용창, 「동학교단과 합동일진회의 일본 유학생 파견과 단지동맹」, 『동학학보』 22, 2011.
장규식, 「1920~1930년대 YMCA 농촌사업의 전개와 그 성격」. 『한국기독교와 역사』 4, 1995.
조규태, 「天道教青年黨 東京部 機關紙『東學之光』」,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5, 2000.
조성운, 「1930년대 천도교의 이상농촌건설론과 공작계」, 『동학연구』 16, 2004.
최성환, 「암태도 소작쟁의 참가인물과 쟁의의 특징」, 『도서문화』 56, 2020.
한석희, 「中国と日本の東学・天道教」, 『朝鮮民族運動史研究』 5, 1988.
한우희, 「일제 식민통치하 조선인의 교육열에 관한 연구」, 『교육사학연구』 3, 1990.

동학의 인물과 역사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한국어 정신문화 교수학습모형개발

정하린(동아대학교 박사과정)

1. 머리말

한국어를 제2의 언어로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한국어교육에서 다양한 교수 방법이나 학습 소재 개발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은 1980년대까지는 한국어 문법을 중심으로 한 전통식 교육의 하나로 언어 사용 능력을 기르는 데 목표를 두었다. 199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야 문화교육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한국어 문화교육이 한국어교육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관점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문화적 요소들을 다룬 문화교육이나 정신문화교육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여전히 문화교육을 언어 학습의 부수적인 요인으로 한 언어 기능적인 방법만을 우선으로 삼은 연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원활하고 정확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기 위함이다. 정확하고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언어의 기능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한국어에 내재한 한국의 문화 및 정신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다양한 문화의 하위 소재 관련 연구도 독자적인 영역으로서의 가치와 의의를 지니지만 이와 같은 문화교육은 학습자들이 배우고자 하는 목표 사회의 문화를 피상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쌀, 밥, 모, 벼와 같은 동일한 의미의 어휘가 어떤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한국인들은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이 농경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문화임을 알지 못한 채 단순한 언어 기능 학습에만 의존한다면 결국 정확한 의사소통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한국의 문화나 정신문화가 지니는 특수성을 보여줄 수 있고 문화 사회적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연구와 개발이 요청된다.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분석한 Benjamin Whorf(1897~1941)도 “언어란 특정 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상징적 체계이기 때문에 지구에서도 다양한 언어가 사용된다는 사실은 놀랄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문화를 배제하고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임을 의미한다.

한 나라의 문화가 사회구성원에 의해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양식이나 생활양식이라면 언어, 풍습, 학문, 예술, 제도와 같은 것들은 정신적 토대에 의해 형성된 정신문화라 할 수 있다. 즉 정신문화는 그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민족성, 가치관, 정서, 사상, 종교, 상징체계와 같은 의식에 그 바탕을 둔다. 이때 의사소통의 매개인 언어가 인간에 의해 의식된 표현이자 그 민족의 문화와 정신을 실어나르는 표현 수단이라면, 정신문화 학습 역시 한국어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이다. 모든 언어 학습의 기저에는 그 민족만의 독특한 문화 양식과 의식은 언어는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낯선 타 문화권의 정신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기초적인 언어 학습과 함께 문화나 정신문화 학습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어 교재에서도 초급 단계를 지나 중급과 고급 과정에서 정신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지금까지 한국어 교재에서 활용한 정신문화와 관련한 인물과 대상으로는 세종대왕, 이황, 이이 등의 인물과 선비 등이 대표적이다.[1] 인물을 포함하여 문화나 역사, 문학 등을 다루고는 있지만, 그 비중이 미미하고 특히 민

족성을 보여 줄 수 있는 종교 관련 분야는 교재에 미포함되어 있어 정작 한국의 정신문화를 학습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는 한국문화와 역사에 관해서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나머지 지나치게 전문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영향도 있다.[2)]

그러나 언어는 단지 생각만을 전달하는 단순히 기능의 성격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언어 속에는 이미 그 사회의 문화와 역사적 사실이 만들어낸 정신적 요소들이 맥락화 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역사와 역사 속의 인물에 의해 발생한 종교 관련 학습은 한국어교육의 고급 단계에서도 배제할 수 없는 중요한 학습의 소재가 된다. 나라마다 역사적 전통을 기반으로 한 독창적인 사상이 있듯이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독창적인 정신문화라고 한다면 동학사상을 들 수 있다. 아울러 동학은 이제 한국만의 문화유산이 아니다. 2023년 5월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6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4.19혁명기록물'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확정하였다. 동학농민혁명은 동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해서 발생한 반봉건 반침략을 위한 역사적 사건으로 이는 동학사상의 독창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뜻한다. 따라서 동학사상을 외국인들에게 알리는 일은 한국의 정신문화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매개이자 학습의 소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 정신문화 교육의 필요성에 착안하여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해 한국의 독창적 정신문화 유산이라 할 수 있는 동학사상을 효과적인 교수학습모형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동학의 다양한 분야를 연구의 소재로 삼을 수 있겠으나 동학이 한국의 역사적 산물로써 지니는 정신문화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다만 동학사상의 발생에 있어 정신적 요체로 볼 수 있는 창시자인 최제우와 그를 이어 동학 교단을 전국화시킨 최시형 두 명으로 한정한다. 교수학습모형개발의 방법으로는 역사적 인물과 정신문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스토릴텔링의 기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2. 한국어교육의 현황

1) 한국어교육의 개념

한국어교육이란 한국어로 의사소통 능력을 익히고자 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역적 범위로 나누자면 ①국내 한국어교육과 ②국외 한국어교육이라는 두 축으로 볼 수 있다. 국내 한국어교육은 대학의 한국어교육 기관들과 민간 학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 이민자를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3대 외국인 계층인 ①외국인 근로자, ②결혼 이민자, ③외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3)]

2020년 현재 국내외 한국어 교육기관의 총수는 1,419개이다. 국내 기관으로는 초·중·고 한국어학습(KSL 과정) 155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170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6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32개, 대학교 부설기관 155개 등이 있다. 국외 기관으로는 세종학당(교육원과 문화원 포함) 75개, 한글학교 330개, 국외 대학기관 286개 등으로 파악된다.[4)] 이들 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내 정부 지원·운영 기관의 교재는 각 운영기관에서 개발한 교재를 선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초·중·고 한국어 학습 기관에서는 대부분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표준 한국어' 시리즈를 채택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는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시리즈를 사용하고 있다. 다문화가

1) 정하린, 「인물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한국어 정신문화 교수학습모형개발」, 동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45쪽.
2) 원미진 외, 『2020 국내외 한국어 교재 사용 현황 조사』, 국립국어원, 2020, 264쪽.
3) 민현식,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국제한국어교육』 제1권 제1호, 국제한국어교육문화재단, 2015.05, 8쪽.
4) 원미진 외, 『2020 국내외 한국어 교재 사용 현황 조사 연구』,2020, 서울: 국립국어원, 5~8쪽.

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정확한 한국어'와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시리즈를 사용하고 있다. 둘째, 국내 대학기관은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셋째, 국외 정부 지원 기관의 교재로 세종학당은 '세종 한국어' 시리즈를, 한글학교에서는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시리즈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5] 이처럼 국내외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의 상승에 따라 한국어교육의 수요가 증가하자 이를 위한 교육기관의 증가와 각각의 교육기관에서 발간한 교재의 차이가 발생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한국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립국어원에서는 2010년에 기존의 무분별한 한국어교육을 표준화하기 위해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모형'을 개발하였다. 2010년 시작한 이 사업은 2017년까지 4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다변화된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현장의 적용성을 더욱 높이고 연구내용의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한국어교육의 체계화가 이루어졌다.

2010년에 처음으로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모형이 만들어지면서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별 목표도 구성되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은 등급별 목표와 내용 기술을 위해 영역을 주제, 언어기술, 언어지식, 문화의 4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영역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로 주제에는 화제와 과제를, 언어기술에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언어 지식에는 어휘, 문법, 발음, 텍스트를, 문화에는 문화지식, 문화실행, 문화관점을 설계하였다.[6] 이상과 같이 4가지의 영역을 포괄해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성취해야 할 등급별 총괄 목표가 수립하게 되었다. 2016년에 보완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별 총괄 목표는 <표 1>과 같다.

<표 1>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별 총괄 목표

급수	총괄 목표	비고
1급	기초적이고 일상적인 내용의 짧은 대화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주 접하는 소재의 짧은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다. 인사나 소개, 간단한 메시지, 정보의 이해나 교환 등의 기초적인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초급
2급	일상적으로 접하는 공적 상황에서의 간단한 대화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다. 정보에 관해 묻고 답하기, 허락과 요청, 메시지의 이해나 교환 등의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3급	자주 접하는 사회적 상황에서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신과 관련된 사회적 소재의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다. 권유나 조언, 간단한 설명에 대한 이해나 표현, 정보 교류 등의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중급
4급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소재나 직장에서의 기본적인 업무와 관련된 담화에 참여할 수 있으며 평소에 관심이 있는 사회적·추상적 주제의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다. 동의와 반대, 지시와 보고, 생각이나 의도의 이해나 표현 등 의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5급	사회 전반에 대한 소재와 자신의 업무나 학업과 관련된 담화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회적이거나 일부 전문적인 내용의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다. 업무 보고, 협의, 체계적인 정보전달, 의견이나 주장에 대한 이해와 표현 등의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고급
6급	전문적이거나 학술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담화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회·문화적인 특수성이 드러나는 소재의 글이나 학술적인 소재의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다. 설득이나 권고, 의견이나 주장에 대한 논리적이고 효과적인 이해와 표현 등의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5) 원미진 외,『2020 국내외 한국어 교재 사용 현황 조사 연구』,2020, 서울: 국립국어원, 9~15쪽 참조.
6) 김중섭 외,『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서울: 국립국어원. 2010. 139쪽)

<표 1>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별 총괄 목표를 살펴보면, 1, 2급은 간단한 대화와 기초적인 정보 해득의 수준을 말하고, 3. 4급은 사회적, 추상적 글을 읽거나 쓸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요구한다. 5, 6급은 전문적이나 학술적인 글의 해독과 의견 소통 등을 습득하여 한국인과 사회와 문화에 관한 전문적인 대화가 가능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개설 이전의 단계로 분류하면 1, 2급은 초급, 3, 4급은 중급, 5. 6급은 고급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표준 교육과정의 문화 영역 등급별 목표 기술의 5급 항목에 "한국사회의 정치, 행정, 교육, 군사, 종교, 경제 등의 제도를 이해할 수 있다."가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적 특수성과 한국의 종교 분야에 해당하는 문화 학습은 5, 6급의 고급 단계에서 다루어져야한다.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모형'에서 제시한 표준 교육과정에서는 한국어교육의 학기당 수업 시간을 최소 72시간에서 최대 200시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국어교육 시간을 200시간으로 한 교육 내용에는 정신문화에 관한 내용을 고급 과정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학습할 수 있다. 하지만 72시간의 최소 시간의 경우에는 언어기술에만 집중하도록 하여 한국어 학습의 기능면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 영역 특히 정신문화에 관해서 학습할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외국인들은 한국의 정신문화에 관해 관심을 갖고 있음을 <표 2>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 정신문화에 관한 외국인 학습자의 요구도(%)[7)]

응답 / 내용	무응답	전혀 알고 싶지 않다	몰라도 된다	조금 관심있다	알고 싶다	매우 알고 싶다	합계
종교문화	4.3	7.8	11.2	22.4	23.4	31	100
문화재	3.4	3.4	7.8	17.3	24.1	44	100
과거의 역사	4.3	2.6	7.8	16.4	29.3	39.7	100
현재의 역사	4,3	4.3	6	18.1	30.2	37.1	100

<표 2>에 따르면 정신문화를 종교문화와 문화재, 과거의 역사, 현재의 역사로 나누어 학습자의 요구도를 물어보았다. 응답자 가운데 종교문화에 관해서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76.8%, 문화재는 85.4%, 과거의 역사가 93.1%, 현재의 역사가 91.4%로 응답자의 2/3 이상이 정신문화에 관해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한국어교육의 문화교육

교재는 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교육에서도 정신문화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어교육의 문화교육의 내용을 살펴보고 학습에 적합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문화교육이 어떻게 교재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모형' 개발에 따른 문화 영역의 내용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를 살펴 한국어교육의 문화교육에서 다루어지는 주제 그리고 구성을 파악하고, 국내 한국어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한국어교육 교재의 문화 영역, 특히 정신문화와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2011년의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통용모형 2단계 연구에서는 1단계를 보완하여 문화교육 항목을 각 등급별로 성취 문화, 행동 문화, 정보 문화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예시로 단계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소분류에는 해당 문화교육 항목에 대한 예시를 넣어

7) 강현화, 「외국인 학습자의 문화 요구조사 -문화교재 개발을 위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1, 2006, 113~117쪽의 도표를 재구성하였음.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외에도 문화교육 현장과 문화의 자료는 교육 현장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8)]

<표 3> 문화 영역 항목의 5등급 한국의 역사 세부 기술[9)]

유형	교수 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 시
성취	한국의 역사	시대별 역사	시대	•고조선, 삼국, 고려, 조선 •근현대사(조선후기,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광복, 대한민국 정부수립)
		역사적 인물	유명 인물	•화폐 속 인물, 역사적 위인 •한국의 대통령, 스포츠 스타, 한류 연예인

2011년의 2단계 보고서에서 문화 영역의 대분류는 한국인의 생활, 한국 사회, 한국의 예술과 문학, 한국인의 가치관, 한국의 역사, 한국의 문화유산, 외국인의 한국생활 등의 7개였다. 특히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 영역 5급의 성취 문화 영역에서 한국의 역사 > 역사적 인물 > 유명 인물에 역사적 위인이 예시되었으며, 시대별 역사에서도 근현대사의 시대별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므로 동학사상을 한국어교육의 문화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문화 영역의 다른 항목인 행동 문화의 유형에서는 한국의 역사 > 시대별 역사 >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동학의 평등적 세계·사회관 민주주의 발전에 끼친 영향을 문화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다.

기존의 교재에서 한국인의 생활문화 중에서 행동 문화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분석한 연구에서 A, B, C 두 교재의 한국인의 생활문화 중에서 행동 문화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을 도표로 정리한 것이 <표 4>와 같다.

<표 4> 한국어 교재의 문화(역사)서술 예[10)]

	활동 내용
A교재	·자국에서 발생했던 역사적인 사건과 그 원인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기 ·자국에서 역사적으로 문화적 특징이 대비되는 왕조나 시대를 비교하여 이야기하기 ·같은 반 친구들 나라와 자국의 문화적 차이점을 알아보고 차이점을 비교하여 이야기하기 ·자국의 대표적인 예술 작품을 소개하고 예술적 특색을 설명하기 ·김치와 한복의 역사 및 변천 과정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하기 ·학습자가 존경하는 자국의 위인을 소개하는 글을 써 보기 ·자국 역사에 등장하는 왕가, 정권, 시대 등에 대해 설명하는 발표하기 ·자국의 건국 신화를 소개하기
B교재	·한국의 한강처럼 학습자 모국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강을 지도에 표시해 보고 그 강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기 ·역사를 가정하여 이야기해 보기 ·'한국 역사와 한강'을 주제로 발표하기 ·자국 역사에 대해 자료를 준비하여 발표하기 ·한국의 역사적 인물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학습자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인물에 관한 일화를 소개하기 ·학습자가 소개하고 싶은 인물에 대해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기 ·학습자가 여행 갔던 곳 중 인상적인 곳에 대해 말해 보기

8) 김중섭 외,『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서울: 국립국어원, 2011. 93쪽.
9) 김중섭 외,『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서울: 국립국어원, 2011.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행문 쓰기
C교재	·자국의 대표적인 문화재에 대해 이야기하기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역사적인 장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곳의 역사적인 가치와 특징에 대해 발표하기 ·역사적인 유물에 대한 홍보문 쓰기 ·인류 역사에 큰 공헌을 한 인물을 선정하여 표창장 만들어 보기

<표 4>를 보면 세 교재 모두 한국의 역사적인 사건과 인물에 대한 내용과 함께 자국의 역사와 인물 또는 문화재와 관련한 내용을 소개하는 내용과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교재에 제시되는 내용과 활동을 문화의 이해, 해석, 비교, 수용, 평가라는 문화 학습 단계와 비교했을 때 역사적 사실이나 현상에 관한 설명이 매우 단편적이고 개별적으로 제시되어 학습자가 역사적 인과관계에 따른 순서와 맥락을 파악하는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비교문화적 활동을 통해 문화 수용 단계에 이르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파악되었다.[11]

교재의 분석을 통해 한국어교육의 문화교육의 중요성은 이전에 비해 높아졌으나 여전히 언어교육의 부수적 요소로 제시되고 있으며 문화 항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지식의 제시가 부족하다. 그리고 문화 항목에서 제시되는 내용이 단편적 정보 전달과 수행적 현상 파악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경우 외부적 관점이나 비판적 시각으로 문화정보나 현상을 파악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그리고 한국어교육이 교실 위주의 수업에 치중되어 현장경험 등의 체험적 문화 활동의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도 나타났다. [12] 이러한 문화교육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코자 한국어교육에 각 단계에 따른 주제들을 <표5>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 5> 문화교육 활용 주제의 예[13]

급수	문화교육 활용 주제
초급	인사·소개/ 지리·기후/ 가족관계/ 식사 예절/ 한국인의 식습관/ 주거 생활/ 신체언어/ 교육제도 등
중급	여가 생활/ 오락 문화/ 학교생활/ 명절 풍습/ 돌잔치/ 결혼 풍습/ 집들이 등
고급	역사적 사건·인물/ 문화유산/ 종교/ 예술/ 가치관·세계관/ 문화 비교/ 정치·경제·사회 문제/ 방언의 차이, 언어 변화/ 개인별·집단별 갈등 등

<표 5>에서 예시한 주제들이 반드시 문화교육의 활동 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조재형 외 해당 연구자들은 다만 초급, 중급, 고급 단계의 문화교육에서 충분히 한국, 한국인, 한국인의 생활양식 등 한국의 문화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고급 단계에서는 전통문화와 성취문화를 나열해 한국의 정신문화의 정수를 익혀 한국문화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표 5>에서 보듯이 고급 단계에서는 종교, 역사적 사건, 문화유산, 가치관 세계관 등과 연관된 주제들로 넣고 있으므로 동학도 충분히 좋은 주제로 활용될 수 있다.

10) 유현정, 「고급 단계 한국어 교재의 한국문화 교육 실태와 방향성 고찰-비교문화적 관점에서의 표현 활동 분석을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38, 2017, 122~123쪽의 내용을 재구성하였음. 한국어교육의 교재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임.
11) 위의 논문, 124쪽.
12) 위의 논문, 126~128쪽.
13) 조재형 외,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문화교육 내용에 관한 연구」, 『어문학집』 53, 2014, 127쪽.

3. 정신문화와 동학사상

1) 정신문화의 의미

문화를 예술, 문학, 미술, 무용, 건축, 음악 등과 같은 것의 제도적 측면의 대문화(Big c Culture)와 일상생활을 나타내는 태도, 신념, 행동양식 등 집단이 공유하는 소문화(Little c Culture)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14)]

Brooks가 정리한 대문화(Large Culture)와 소문화(Small Culture)를 바탕으로 하면서 소문화(Small c)는 전체 주민의 생활방식을, 대문화(Big c)는 한 사회의 일반적인 인물, 특출한 개인의 작품, 사회에 대한 공헌 등으로 다르게 해석하는 연구도 나타났다.[15)] 즉. 대문화(Big c)는 한 나라의 경제, 사회, 정치사, 위대한 영웅, 정치가, 작가를 다루는 데 비해 소문화(Small c)는 의사소통을 위한 생활 방식 위주의 문화를 나타낸다고 분류하였다. Seelye는 많은 외국어 교육이 언어와 더불어 일상생활 양식을 아는 것이 선결 조건이라고 밝혀내 Small c를 Big c보다 강조하였다.[16)] 여기의 Big c는 고급 문명, Small c는 일상생활 문화 중심으로서 현대 문명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학자로 문화를 개념화한 학자는 최준식을 들 수 있다. 최준식은 “문화란 인간 삶의 모든 것을 담은 총체적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문화의 정의를 간단히 정의할 수 없지만, 문화는 대체로 유형적인 것의 물질문화와 무형적인 것의 비물질문화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였다.[17)] 최준식이 말한 물질문화란 인간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일체의 것이며, 비물질문화란 그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상과 종교, 신념, 관습, 등과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최준식은 문화의 비물질문화를 정신적인 것에 해당하는 사상과 종교, 신념 등으로 개념화했는데 이를 포괄적으로 개념화하면 정신문화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제인 동학도 정신문화의 영역인 사상과 종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신문화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신문화의 정의에 관해서는 학자들마다의 차이가 있다. 국내의 학자들이 정의한 정신문화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정신문화의 정의[18)]

연구자	정신문화의 정의
최은영[19)]	정신문화를 문화 공동체 구성원들이 형성한 업적이나 행위 양식 등의 토대가 되는 정서, 사상, 가치관, 성격 등을 포함하는 것
박숙영[20)]	한 집단이 공유하는 믿음, 사고방식, 가치관, 등과 같은 정신적인 요소들로 인해 나타나는 모든 행동 방식과 생활양식의 총체
권오경[21)]	인간이 이룩한 물질과 비물질적인 것으로 상징체계로서 자연·생물문화도 성취문화에 포함시킬 수 있음. 정신문화가 이룩한 성취문화로는 자연물 중에서도 민족 정서나 민족적 상징으로서 선정된 무궁화, 역사적 인물, 길거리 응원의 대명사인 붉은 악마, 남북의 비극을 상징하는 비무장지대 등의 유·무형의 업적들도 포함된다고 봄.

14) Brooks, N. D., *Languege and languege learning: Theory and ptactice,* New York; Harcourt, Brace., 1964.
15) Kenneth Chastain, *Developing second-language skills : theory to practice*, Chicago : Rand McNally College Pub. Co., c1976.
16) Seelye, H.N. *Teaching Culture*. Lincolnwood : National Textbooks Company, 1984.
17) 최준식,『한국의 종교, 문화로 읽는다』, 파주: 사계절, 1998, 48쪽,
18) 정하린,「인물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한국어 정신문화 교수학습모형 개발」, 동의대학교 교육대학원, 2021, 8쪽.

신윤경[22]	타 문화권의'행동 문화'현상의 발생 원인이며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적인 가치' 즉 어떤 가치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이 발생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문화 내용
노지영[23]	정신문화를 한 사회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 사상, 정서, 성격 등과 같은 정신적 요소로 성취문화 및 행위문화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문화의 근원
전은혜[24]	한 집단 구성원들이 형성한 행동 양식이나 생활 방식에 근원이 되고 비가시적으로 표출되는 문화를 지칭하는 것

<표 6>을 종합하면 정신문화란 문화 공동체 구성원들에 의해 형성된 행동 방식이나 생활양식 등의 토대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 집단이 공유하는 문화가 정신적인 가치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총체적 행위를 만들어내는 근원적 토대가 되는 것이 정신적 산물에 의해 생성된다는 것이다.

<표 6>에서 권오경은 특히 정신문화의 영역에서 우리나라의 정신문화의 내용을 포함해 설명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신문화가 풍부하고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우리나라의 정신문화를 범주화하면 <표 7>로 정리할 수 있다.

<표 7> 정신문화의 범주와 세부 내용[25]

범주	세부 내용
가치관	가족주의, 권위주의, 출세주의, 집단주의, 우리 의식, 공유문화, 관계문화, 서열문화, 교육열, 선비문화, 물질 중심문화, 최고지상주의, 남성주의, 운명 문화, 획일 문화, 효 문화, 수직 사회, 빨리빨리 문화, 경쟁문화, 자연 친화적, 저축·절약, 경로사상 문화.
민족성	우리 문화, 운, 미안하다는 말과 싫다는 말을 잘 못함, 겸손문화, 냄비근성, 조급성, 공유문화, 운명문화, 눈치문화, 근면·성실 문화, 은근·끈기 문화, 체면문화.
정서	정, 한, 신명, 흥, 체면문화, 눈치문화, 겸손문화, 근면·성실 문화, 은근·끈기 문화, 빨리빨리 문화, 쏠림 문화, 우리 의식.
사상	유교 사상, 인내천 사상, 농본사상, 효 사상, 선비 사상, 남성 위주 문화, 전통적인 성역할 구분, 경로사상, 선비문화.
종교	불교, 무속신앙, 샤머니즘, 천신 숭배, 풍수지리.
상징 체계	태극기, 숫자나 색깔, 민담 속 소재, 훈민정음, 탈춤, 판소리, 살풀이춤.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신문화의 범주는 가치관, 민족성, 정서, 사상, 종교, 상징체계 등의 6개로 분류된다.[26] 각 항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첫째, 한국의 정신문화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19) 최은영. 「수필을 활용한 한국 정신 문화 교육 방안 연구 : 재미동포 청소년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20) 박숙영. 「문화간 의사소통을 위한 가치문화 교육 방안」.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21) 권오경,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 내용 구축 방안」, 『언어와 문화』 5(2), 2009.
22) 신윤경. 「한국의 가치문화 교육과 문학 활용」, 『 한국어문교육』 9(0), 2011.
23) 노지영. 「재외동포 청소년을 위한 한국 정신문화교육 내용 및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배재대학교 대학원. 2012.
24) 전은혜.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한국 정신문화 교육 방안 연구 : <TV동화 빨간 자전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15.
25) 정하린, 위의 논문, 9쪽.
26) 박영순, 『(한국어교육을 위한)한국문화론』, 서울: 한국문화사, 2002.

것이 한국인들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우리'를 중시하는 공동체 의식에서 싹튼 가치관이다. 국어학자인 유창돈은 친족 칭호의 어원적 고찰에서 우리라는 말은 울타리의 울과 같은 의미로서 자신이 속하고 있는 범위를 뜻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개인을 넘어 가족과 집단을 하나의 울타리와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고자 했던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효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유도 혈육이라는 공동의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인들은 1인칭의 표현보다는 우리 가족, 우리 학교, 우리 부모님, 우리 사장님과 같은 표현들을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하면서 공통의 문화를 공유해 온 것이다. 또한 관계 맺기를 즐기고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의 협력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했던 모습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민족성으로는 어느 민족이든 그들만이 지니는 고유한 민족의 특성이 있다. 한국인들의 생활 속의 행위를 보면 자신을 낮추는 겸양에 대한 의식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은 자신을 낮춤으로써 상대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자세라고 생각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는 상대방을 대하는 떳떳한 도리나 예를 중시하려는 겸손과 체면문화에서 비롯된 정신이라고 할 만하다.

셋째, 한국인의 정서로는 위에서 거론한 가치관이나 민족성에 이미 한국인의 정서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적인 도리를 중시하고 우리라는 공동의 의식을 통해 사람과의 정을 느끼면서 그 속에서 흥과 신명나는 삶을 즐겼으며 그 가운데 때로는 한 많은 삶이 싹트게 된 것이다.

넷째, 사상으로는 한국에서 태동한 사상이야말로 한국인의 정신문화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 줄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사상과 종교적으로 외래의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향유 하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한국의 사상에 대한 고민은 가치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한국의 민족 종교로서 창명한 동학은 조선조 말엽 인내천 사상, 곧 사람이 곧 한울이라는 기본 교리와 후천개벽 사상을 종지로 삼아 세상과 백성을 구제하려 했던 혁명적 정신이자 자주적 근대화를 지향한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는 사람이라면 빈부귀천을 떠나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한국인의 혁명적 정신과 의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상이다. 그뿐만 아니라 농업을 근본으로 삼아 삶을 영위하고, 부모를 지극히 공경해야 하는 일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라고 보았던 효 사상과 경로사상, 선비 사상 그리고 남성 위주의 문화가 유교가 낳은 대표적인 정신문화의 유산이다.

다섯째, 종교적 시선에서 바라보자면 인도에서 전파되어 한국뿐만 아니라 동양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불교의 자비 정신, 한국의 지하수맥이라 불리는 한국의 토속 신앙이자 무속 신앙은 오늘날에도 한국인의 생활 속에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원시종교의 한 형태인 샤머니즘, 고대 원시적 종교로 하늘을 신격화하여 초자연적인 힘이 있다고 믿었던 천신 숭배, 지형이나 방위를 인간의 길흉화복과 연결지어 땅의 기운과 장소를 신성시했던 풍수지리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이 정신 문화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여섯째, 한국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태극기의 상징적 의미, 또는 숫자나 색깔의 특징에 뜻을 담아 기원하고 의미를 부여했던 한국의 전통과 풍습 민담,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 탈춤과 판소리에 깃든 정신과 서민 문화, 살풀이를 통해 한을 승화시키려 했던 행위 속에 한국인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LeVine은 정신문화를 빙산에 비유하였는데 문화 학습에 있어서 삶의 표층에 자리잡고 있는 행동 문화나 성취문화 못지않게 가치관이나 신념 등의 내면적인 영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중요하다고 보았다.[27] 이는 정신문화야말로 한 집단 구성원들이 형성한 행동 양식이나 생활 방식에 근원이 되는 것으로서 목표 언어와 문화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이 알아야 하는 필수적 조건으로 본 것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역사의 줄기가 통시적으로 흐르는 과정에서 정신문화가 응축되고 형성되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역사의 정태적 모습으로든 통시적 모습으로든 역사 속의 인물이나 사건을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고 공유한다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고도 가치 있는 활동이다. 그중에서도 한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은 해당 문화의 정신적 가치를 가장 명백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학습자는 역

27) Robert A. LeVine, *Human parental care: Universal goals, cultural strategies, individual behavior, Issue 40,* Summer 1988, pp.3-12.

사적 인물을 통해, 인물의 업적이나 가치관에 대한 탐구뿐만 아니라 그들이 활동해온 시대적, 문화적 배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요컨대 정신문화는 문화 영역에 해당하는 소문화로 인간들의 정신적 활동으로 이룩해낸 문화, 학술, 사상, 종교, 예술, 도덕 따위의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문화에 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달라 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정신문화를 6개의 범주로 나누고 세부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6개의 범주가 각각 독립적인 성격을 지니지는 않는다. 정신문화의 범주와 세부 내용은 서로 유기적인 의미를 함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동학의 정신문화 요소

① 동학의 성립과 발전

동학은 1860년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가 창도한 한국의 독창적인 사상이며 종교이다. 그는 어린 나이에 이 세상이 불평등하고 무질서한 세상임을 파악하고 이런 세상을 구하려는 뜻을 품고 10여 년간 구도(求道)를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이름있는 학자나 고승을 만났지만, 기존의 사상으로는 동서양 문명의 회합과 국내외적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의와 낙망 속에서 세월을 보내던 30대 초반에 이승(異僧)을 만나는 신비한 체험을 통해 하늘에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얻게 되고 내원암과 적멸굴에서 기도하였으나 작은 이적을 얻었을 뿐 세상을 건질 가르침을 얻지 못하고 고향인 경주로 돌아왔다.

용담에 돌아온 최제우는 세상을 구할 방책을 찾기 전에는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하고 용맹정진한 결과 1860년 4월 5일 결정적인 신비체험을 통해 동학을 창도했다. 그의 가르침의 핵심은 시천주(侍天主)였다. 모든 사람이 한울님을 모신 존엄한 존재이기에 양반과 상놈,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의 구별이 없이 모두 평등하다고 가르쳤다. 그리고 그는 주문 13자를 외우면 시천주를 체험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전했다. 그의 가르침은 갈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민중에게는 한 줄기 햇살과도 같아 도를 편 지 얼마 되지 않아 용담으로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최제우가 창도한 동학은 기존의 질서인 성리학적 통치이념에 반했기 때문에 탄압을 피할 수 없었다. 최제우는 조정의 탄압 속에서 경전을 저술해 자신의 가르침인 동학의 세상에 퍼뜨렸다. 그리고 최시형에게 도통을 물려주어 후계 구도를 정하였고, 접주제를 시행해 교단의 체계를 조직화했다. 동학의 교세가 경상도 일대에 퍼지자 조정에서는 동학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를 체포해 1864년 3월 10일 대구에서 참형 당하였다. 최제우는 창도한 지 4년만에 41세로 생을 마감했다.

최제우를 이은 최시형은 동학 교단을 더욱 발전시켰으며 교리도 체계화시켰다. 1861년 동학에 입도한 최시형은 최제우의 가르침을 따라 주문 수행에 매진해 종교체험을 하고 동학을 전하였다. 1863년 8월 14일 최제우가 후계자로 삼았고, 이듬해 수운이 순도한 이후 동학교단의 최고책임자로 교단 정비와 확산에 힘썼다. 관의 탄압을 피해 태백산중에 은거하여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로 교세를 확산시켰고, 1890년대 들어와서 전라도와 황해도까지 교세를 확산시켰다. 확산된 교세를 바탕으로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하여 종교의 자유를 조선정부로부터 얻으려고 하였고, 1894년 전봉준이 일으킨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를 이끌었다.

최시형은 1898년 체포될 때까지 36년간 교단의 최고책임자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헌신하였다. 그는 최제우의 가르침인 시천주를 사인여천(事人如天), 이천식천(以天食天), 삼경(三敬), 향아설위(向我設位) 등으로 재해석해 생활화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1897년 12월 그는 손병희를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선정하였다.

손병희는 최시형을 보좌하여 동학농민혁명 이후 교단의 정비에 주력한 인물이었다. 그는 보국안민과 광제창생의 동학의 목적에 찬동해 젊은 시절의 방탕한 모습을 청산하고 3년간 독공수련하였다. 이후 최시형의 옆에서 교단의 주요 업무를 처리하였다. 교조신원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동학농민혁명의 9월 총기포를 지휘하였다. 전봉준의 호남 동학군과 논산에서 합류해 공주점령을 위한 우금티 전투에 총력 하였으나 일본과 관군의 우세한 화력에 밀려 물러났다. 최시형으로부터 도통을 전수받은 이후 일본 외유를 통

해 세계 대세를 확인하고 동학을 근대적인 종교 체제로 변환시키고자 1905년 12월 동학을 천도교로 개명하고 정부로부터 공인받았다. 이로부터 동학의 종교적 자유가 허용되었다. 그러나 일제에 국권을 빼앗긴 후 독립을 위한 3·1운동에 천도교의 역량을 쏟아부었다. 그는 민족대표로 일제의 고문 후유증으로 1921년 환원하였다.

이후 천도교는 1920년대 신문화운동, 방정환이 주도한 어린이운동, 사회주의계와 연합한 6·10만세 운동과 신간회 운동 등 민족운동에서 큰 족적을 남겼다. 해방 이후에는 남북분단저지운동에 앞장섰으며, 현재에는 통일운동, 생명운동에 힘쓰고 있다. 동학의 핵심사상으로 시천주의 인간편등, 보국안민의 민족의식, 다시 개벽의 사회변혁, 삼경의 생명 존중을 들 수 있다.

요컨대 동학은 한국 사상사와 민족운동사, 문학사, 교육 운동사 등 전 분야를 합하여 매우 높은 생태의식과 완전한 학문체계 및 실천력을 지닌 독보적 사상이라 할 수 있다.[28] 동학은 동서양 문명의 통합 시기 기존의 동서양 각각의 문명에 대해 낡은 문명으로 규정하고 비판하였다. 동학은 우주적 시각을 바탕으로 한 존재론에서부터 생태, 과학, 노동, 종교, 문화, 교육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사상 체계를 정립하였다. 그리고 동학농민운동과 민족운동, 어린이운동, 교육운동, 문화운동을 통해 이 땅 위에 구현하려는 실천성을 증명했다. 특히 동학이 동학농민혁명과 3·1독립운동과 같이 미증유의 대규모 혁명운동을 전개하였고, 천도교로의 개명 이후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운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동학의 사상적 역량이 뛰어났고 이를 세상 사람들이 호응하였음을 뜻한다.

② 시천주(侍天主)

최제우는 동학을 창도하면서 수행 방법으로 “시천주(侍天主) 조화정(造化定) 영세불망(永世不忘) 만사지(萬事知)‘의 주문 13자를 언급하였다. 최제우는 시(侍) 자를 ”內有神靈 外有氣化 一世之人 各知不移者也“[29]라고 풀이했다. 최제우가 말한 시자의 의미를 간략히 말하면 사람이 한울님을 모셨다는 의미이다. 한울님이 인간 몸 안에 모셔져 있다는 의미는 동학 고유의 신관이며 인간관이다. 한울님은 인간의 밖에서 인간에게 자신의 의지를 전달하는 외재적인 신암이 아니라. 인간의 내부에서 자리잡고 있는 내재적 신이기도 하다.[30] 최제우는 인간은 최령한 수준의 기로써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지인 한울님을 모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한울님처럼 존엄하다.[31]

최제우는 주문을 외움으로써 이런 시천주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시천주를 체험함으로써 후천의 주역인 새로운 인간상인 지상 신선으로 화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최제우가 1860년 한울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신비체험으로부터 시작한다. 최제우는 신비 체험을 통해 시천주를 자각하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자신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체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최제우는 주문 수행을 통해 종교적 영성을 지닌 기화지신(氣化之身)을 갖출 때 비로소 시천주가 완성된 인간을 지상 신선이라고 하였다. 최시형은 이러한 인간을 금사(金士)와 옥사(玉士) 같은 귀한 사람이라고 불렀고, 손병희는 천사(天士)라고 하였다.

인간은 본원적으로 평등하다는 시천주 사상은 성리학의 기질지성(氣質之性)에 의해 차별받는 세상을 배격했다. 최제우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두 명의 여종을 1명은 며느리로, 1명은 수양딸로 받아들였다. 시천주를 깨닫기 이전에는 성리학에 기반한 사회경제적 차별에 관해 특별한 인식 없이 받아들였던 최제우는 시천주의 체험 이후 이를 거부해 파쇄했다. 이러한 수운의 시천주의 인간 평등은 불평등한 세상에서 신음받고 있던 민중들의 열열한 호응을 받았다. 이러한 시천주의 인간 평등은 동학농민혁명에서 청상과부의 개가를 허용하고, 백정의 평량갓을 없애는 폐정개혁에 그대로 드러나 사회운동화하였다.

최시형은 시천주를 사인여천(事人如天)으로 실천화하였다. 최시형은 모든 사람이 한울님을 모시고 있는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섬길 때 한울님처럼 섬기는 사인여천을 실천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최시형

---

28) 최서윤, 『동학의 생태적 교육철학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9쪽.
29) 『동경대전』, 「논학문」.
30) 장영민, 『동학의 정치사회운동』, 경인문화사, 2006, 91쪽.
31) 위의 책, 92쪽.

은 손님이 집에 오거는 한울님이 오셨다고 하라고 말하며 손님을 극진해 대접하는 것이 사인여천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하였다.

③ 삼경(三敬)

삼경(三敬)이란 경천(敬天), 경인(敬人), 경물(敬物)을 말한다. 최시형은 이 삼경을 통해 한울님과 사람과 만물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생명공동체를 영위해간다고 하였다. 최시형은 경천을 결단코 눈에 보이는 하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울님의 공경하는 것에서 진리를 갈구하는 마음이 생기고 진리를 기준으로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경천을 할 줄 알아야 세상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였다. 나아가 경천을 할 줄 알아야 자기의 영생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과 내가 하나의 동포이고 물건과 내가 하나의 동포라는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경인은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다. 최시형은 사람은 한울님을 공경하는 경천이 사람을 공경하는 경인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하였다. 한울을 공경하는 사람은 사람도 공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인은 곧 사인여천을 뜻한다. 최시형은 경천의 이치는 아는 사람이 경인을 하지 않는 것은 마치 농사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종자를 땅에 뿌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경천은 경인 곧 사인여천의 행위를 통해서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경물은 만물을 공경하는 것이다. 사람은 지구의 주인으로 만물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시형은 만물이 시천주 아님이 없으니 능히 이 이치를 알면 살생은 금치 아니해도 자연히 금해지리라. 제비의 알을 깨치지 아니한 뒤에라야 봉황이 와서 거동하고, 초목의 싹을 꺾지 아니한 뒤에라야 산림이 무성하리라. 손수 꽃가지를 꺾으면 그 열매를 따지 못 할 것이오, 폐물을 버리면 부자가 될 수 없느니라. 날짐승 삼천도 각각 그 종류가 있고 털벌레 삼천도 각각 그 목숨이 있으니, 물건을 공경하면 덕이 만방에 미치리라.[32]하여 사람은 만물을 공경해야 천지의 기화와 상통하는 경지에 도달한다고 하였다. 동학의 삼경 사상은 바로 현재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다. 천지를 생명공동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경물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보국안민(輔國安民)

최제우는 자신이 받은 도를 동학(東學)이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가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에서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33]. 공자가 만든 유학이 추나라에서부터 시작되었듯이 자신이 깨달은 도는 동국(東國) 곧 우리나라에서 받았기 때문에 동학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는 자주적 민족의식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운의 자주 의식은 「포덕문」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 是故 我國 惡疾滿世 民無四時之安 是亦 傷害之數也 西洋 戰勝攻取 無事不成而 天下盡滅 亦不無脣亡之歎 輔國安民 計將安出

최제우는 서양 사람들이 천주의 뜻이라고 하면서 부귀는 취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무력을 동원해 중국을 침범하고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종교인 천주교의 집회 장소인 천주당을 세워서 세상사람들에게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였다.[34]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서양에 멸망하면 우리나라가 위기가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최제우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보국안민(輔國安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나라를 돕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책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답으

---

32) 『천도교경전』, 「해월신사법설 7. 대인접물」.

33) 『동경대전』, 「논학문」. “曰同道言之則 名其西學也 曰不然 吾亦生於東受於東 道雖天道 學則東學 況地分東西 西何謂東 東何謂西 孔子生於魯風於鄒 鄒魯之風 傳遺於斯世 吾道受於斯布於斯 豈可謂以西名之者乎”

34) 『동경대전』, 「포덕문」, “至於庚申 傳聞西洋之人 以爲天主之意 不取富貴 攻取天下 立其堂 行其道 故 吾亦有其然 豈其然之疑”

로 동학을 창도해 제시하였다. 따라서 동학은 보국안민을 통한 자주적 민족의식을 강조하였다. 이는 자주적 근대화의 출발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동학이 지닌 보국안민의 민족의식은 1892~3년에 걸친 교조신원운동에서 외세의 침탈에 저항하는 척왜양운동이나 벽서, 괘서 사건 등으로 나타났고,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 와중에 외국군대가 출병하는 상황에서 일본군이 경복궁 침탈과 내정간섭을 자행하고 우리 땅에서 청일전쟁을 일으킨 일본군에 대항하기 위한 9월의 총기포로 이어졌다. 이는 동학의 보국안민의 민족의식에서 발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 국권이 피탈당한 상황에서 천도교가 종교적 활동만 그치지 않고 천도교인의 역량을 총동원해 3·1독립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도 보국인민의 민족의식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이러한 보국안민의 민족의식은 6·10만새운동으로 이어졌다.

⑤ 후천개벽(後天開闢)

동학의 사상 가운데 가장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다시개벽, 곧 후천개벽이다. 최제우는 혼돈과 고통의 시간인 하원갑의 시대가 지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상원갑의 시대가 반드시 오고야 만다고 하였다. 그것은 곧 세계 전체가 다시 개벽하는 것을 의미한다.[35] 최제우는 조선의 상황을 임진왜란과 비슷한 위기 상황이라고 하였고, 나아가 온 세상이 괴질 운수에 빠져있다고 하였다. 국내적 위기와 문명사적 위기를 동시에 갖고 있는 조선은 전환기에 봉착했다고 진단하였다.

최제우는 이러한 세상이 만들어진 근원적인 이유로 천명을 공경하지 않고 천리를 따르지 않는 각자위심(各自爲心)이 판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자신이 창도한 동학으로 다시 새롭게 개벽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자신이 받은 무극대도를 오만년을 이끌어 갈 운수라고 하여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면 새로운 질서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강조하였다.

최제우가 말한 다시 개벽의 사회변혁은 동학의 정치운동으로 나타났다. 1871년의 영해 교조신원운동은 영해부사 이정의 폭정에 항거한 동학의 다시개벽의 사회변혁이 처음으로 드러난 사건이었다. 이어 1892~3년의 교조신원운동은 기본적으로는 교조 최제우의 신원을 통한 종교자유의 획득을 목포로 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시대의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는 정부를 대상으로 동학을 공인해 외세에 위협받은 국내의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동학의 다시개벽의 사회변혁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시개벽의 사회변혁이 가장 크게 드러난 것이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이었다. 안으로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의 심판과 밖으로는 외세의 침탈에 저항해 자주적 역량을 기반으로한 다시개벽의 사회변혁운동이 동학농민혁명의 기포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4. 교수학습모형의 개발

1) 스토리텔링의 특성과 절차

20세기 말로 접어들면서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은 점차 서사적으로 발전되고 기교화 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 등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영화와 TV 프로그램, 광고, 기업 마케팅 등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포함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활용하고 있다. 이른바 스토리텔링의 시대라고 할 정도이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스토리텔링은 교육 현장에서도 유용한 교육방법의 하나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스토리텔링을 구연, 낭독, 읽어주기, 이야기해주기, 이야기 들려주기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개념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스토리 즉, 이야기란 우리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사건들에 맥락, 즉 문맥(Context)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시간의 연속성 속

35) 장영민, 앞의 책, 83쪽.

에서 인과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이루어지며 여러 가지 일이 서로 얽혀서 하나의 문맥을 형성하고, 그 문맥에 인간적인 경험, 삶의 경험을 녹여내야 이야기(story)라 부를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36]

효율적인 스토리텔링의 기법으로는, 첫째, 스토리텔링은 상호작용적 수행 예술의 형태로서 상호작용은 스토리텔링의 기본 요소이다. 화자는 즉흥적으로 목소리의 톤을 조절하고 청중들의 반응과 필요에 따라 이야기의 속도를 조절하며,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사용할 수 있다. 청자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화자의 말과 표정, 몸짓에 반응하며 상호작용의 상태에 몰입한다. 즉, 스토리텔링은 화자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청자와의 친밀한 관계와 소통을 전제로 펼쳐지는 하나의 과정이다. 둘째, 스토리텔링은 협력하여 완성되어가는 창조적 활동이다. 스토리텔링은 특별한 무대 장치나 소품 없이도 이야기책을 바탕으로 하여, 화자와 청자 간의 상상의 교류로 진행이 가능하다. 청자들은 이러한 무대 장치가 없어도 화자의 이야기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와 관계있는 배경들을 창조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스토리텔링은 인간 생활의 본질을 전하는 수단이다. 이야기는 인간의 의사소통은 본질적이고 기초적인 형태로서 일상적인 생활, 사건, 경험부터 인간의 본성까지의 개념을 해석하는 제1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스토리텔링은 내용을 공유하고 제안하며 청자에게 이야기의 의미를 전달하는 매개체이다. 스토리텔링을 통해 청자와 화자는 자연스럽고 역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37]

나아가 스토리텔링 기법이 잘 이루어지려면 4가지의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구성 요소 4가지인 메시지, 갈등, 등장인물, 플롯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토리텔링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한다. 하나의 스토리에 하나의 메시지를 담도록 하여, 주된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스토리텔링은 갈등의 상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좋은 스토리는 스토리 속에 적절한 요소의 갈등을 포함하여 갈등이 해결될 때까지 듣는 이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이렇듯 갈등의 요소는 이야기를 보다 생생하게 만들고 긴장감 있게 만들어서 이야기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스토리텔링은 스토리의 흥미진진한 전개와 효과적 메시지 전달을 위해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는 등장인물이 있어야 한다. 주인공과 그에게 적대적인 인물을 등장시켜서 성공적인 갈등을 만들어내고 결국 이러한 주인공의 여정을 통해 스토리텔링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넷째, 스토리텔링은 플롯이 치밀하게 조직되고 구성되어야 한다. 이야기의 전개를 펼쳐감에 있어서 지루해지지 않도록 갈등 상황 제시 및 등장인물들의 과업 수행들이 개연성과 통일성을 갖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38]

따라서 스토리텔링 기법의 활용은 스토리텔링 기법은 이야기를 주요 소재로 하여, 이야기의 수집, 선택, 이야기의 표현, 이야기의 분석, 평가를 주요한 일환으로 하여, 조직, 설계, 전개하는 일종의 교수학습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은 화자가 단순히 텍스트만을 읽는 것이아니라 화자가 청자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면서 역동성과 생동감을 살려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39]

---

36) 황신웅,『스토리텔링을 이야기하다』, 서울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4.

37) 백영미.「스토리텔링을 적용한 수학수업이 초등학교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수학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청주: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7쪽.

38) 홍숙영.『스토리텔링, 인간을 디자인하다』, 서울: 상상채널. 2011; 재인용, 최지이.「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협동적 동화 재구성 활동이 만 5세 유아의 의사소통능력과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17, 12~14쪽.

39) 윤택남,「동화와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초등영어과 교수.학습모형 탐색」,『교육과학연구』20(2), 2018, 1-19쪽.

<표 8> Ellis & Brewstar의 스토리텔링의 절차[40]

단 계	활 동
스토리텔링 · 전	분위기 조성 & 도입 준비하기
	주요 단어 선정하기
	단어 제시하기
	단어 익히기
	스토리 내용 추측하기
스토리텔링 · 중	스토리 듣고 즐기게 하기
	스토리 이해 돕기
	다음 스토리 예측하기
	학습자의 반응 유도하기
	학습자의 참여 유도하기
	소리 내어 참여하기
스토리텔링 · 후	이해도 점검하기
	스토리 다시 말하기
	역할극으로 꾸미기
	스토리 재구성하여 들려주기

지금까지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다양한 수업모형이 만들어져 왔는데 외국어 교육에서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쓰이고 다른 스토리텔링 모형이나 연구에 모태가 된 <표 8>의 Ellis & Brewstar의 수업모형이 대표적이다. 수많은 스토리텔링 도서와 수업에 영향을 준 중요한 모형이며 이후에 등장한 모형들도 모두 여기서 파생된 것으로 그 변화가 크지 않다. 이 모형은 스토리텔링 활동을 전·중·후 3단계 활동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전반적으로 이 모형을 보면 학습자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하고 즐겁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듣는 상호 작용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용을 이해하도록 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토리텔링의 전 활동은 먼저 스토리텔링을 위한 친밀감 있고 유대감이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듣는 수업인 만큼 이러한 분위기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스토리텔링의 중 활동은 교사가 들려주는 스토리를 듣고 즐기게 한다. 나아가 들려준 이후의 이야기는 학습자 스스로 예측해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발문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시하여 관심을 유도한다. 이후에는 학습자가 스토리텔링에 직접 참여해 보도록 한다. 참여할 때는 소리 내어 참여하도록 한다. 소리 내어 읽어보고 말해 보는 것이 학습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은 이미 기존의 연구에서 입증된 바가 있다. 셋째, 스토리텔링 후 활동은 이해도 점검이다. 스토리를 다 들려주고 학습자가 반응하고 참여까지 하면서 중 단계에서 일차적으로 끝맺음을 하였다. 교사는 학습자가 들려준 스토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을 한다. 이후 스토리를 다시 말해 보는 활동을 한다. 스토리를 다시 말할 수 있다면 학습자는 성공적인 공부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시 말하는 활동을 '리텔링'이라고 한다.

이야기하는 본성은 인간성의 한 측면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인간은 호모 나랜스(Homo Narrans)로 불리기도 하고, 인간을 스토리텔링 애니멀(Storytelling Animal)이라고도 규정하기도 한다.[41] 이는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이야기하기의 본능을 타고난 존재이며 이야기를 통해 얻은 지식을 축적해 진화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인간의 삶의 본능이 통시적 역사 속에 축적되고 진화되어 온 것이라면 역사 속

40) Ellis, G. & Brewster, J., *The storytelling handbook for primary teachers.* New York Penguin Books, 1991.

41) 허원기,「이야기인문학의 전통과 가능성」,『스토리앤이미지텔링』7, 2014, 245쪽.

인물에 관한 이야기와 사건들이 정신문화의 가치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에 한국어 정신문화교육을 위한 스토리텔링은 외국인을 위한 정신문화교육의 한 방법으로 적합한 특성을 지닌다.

2) 동학의 인물 교수학습모형 구조

인물의 생애와 업적을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하여 학습자들에게 스토리텔링의 기법과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면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하나의 사건을 인물의 행위, 의도, 동기, 목적, 이유 등을 중심으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일방적 전달식의 수업방식을 탈피하여 상호소통의 방식으로 역사 속의 인물을 가르치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용하다.

첫째, 역사 인물 이야기는 그 자체로 역사의 문화적 틀인 동시에 외국인 학습자들이나 아동에게 친숙한 방법이며 역사가들도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역사를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적합하다. 둘째, 이야기는 서술 형식뿐 아니라 역사적 사고력에 적합한 인지 도구 내지는 사고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이야기는 맥락적 이해에 도움이 된다. 이야기는 다양하고 내적 관계들의 총체를 단일한 전체로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야기를 접하고 난 후 인물의 행위와 배경을 알 수 있고 이를 종합해서 상황과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넷째, 이야기는 학생들이 자신들과는 다른 시대·사람·관점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며, 역사적 인물의 입장에서 그 인물을 통찰하게 해준다.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한국문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한 외국인에게 한국의 대표적인 인물을 소개하고 그 인물과 관련된 스토리를 구성하여 한국의 역사와 가치관 등의 정신문화를 학습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표 9> 동학 인물 스토리텔링 교수학습모형의 구조

단계	주요 내용	시간(분)	준비물
도입	⬩전시 학습 점검 ⬩동기 유발 ⬩본시 학습 목표 제시	10	PPT 자료 칠판
어휘	⬩본시 학습 어휘 습득	15	PPT 자료 어휘(단어) 카드
전개	⬩정신문화 관련 인물 소개 ⬩인물 스토리텔링(1) ⬩인물 스토리텔링(2) ⬩리텔링 학습 : 인물의 생애	30	PPT 자료 학습자료
활용	* 역할극으로 인물 재연 * 스토리텔링으로 소개하기	25	
정리	* 형성평가 * 점검 및 상호 평가 * 차시 학습 예고	10	형성평가 문제지

한국어교육 수업 시간은 50분, 90분, 120분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학습 단계를 네 단계로 진행할 수도 있다. 대개 대학에서는 50분의 수업 시간이 일반적이지만 <표 9>의 본 교수학습모형에서는 스토리텔링의 방식을 활용하여 다섯 단계로 구성하였고 고급 단계의 학습자들을 위한 수업임을 감안하여 90분을 기준으로 교수학습모형을 개발하였다. <표 9>에서 보이듯이 총 90분간의 수업을 도입 단계 10분, 어휘 단계 15분, 전개 단계 30분, 활용 단계 25분, 정리단계는 10분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50분의 수업일 경우에는 내용을 보충해서 두 시간으로 나누어 학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도입 단계에서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학습에 대한 동기가 유발되도록 하였고 학습의 목표를 제시하여 배울 내용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4단계 과정의 수업에서는 어휘 학습을 전개 단계에 포함해

서 지도하거나 제외하는 경우가 있지만, 본 모형에서는 고어나 한자어가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어휘 단계를 별도로 안배하여 학습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전개 단계에서는 스토리텔링의 방법을 활용하여 교사가 먼저 스토리를 제시하고 학습의 주요 내용을 학습자들이 다시 리텔링 하거나 질의응답의 과정을 통해 수업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활용단계에서는 앞에서 배운 내용을 이해 수준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상황에서 소개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는 활동 중심으로 구성하여 원활한 의사소통 중심과 활용성에 초점을 두었다. 마지막 정리단계에서는 전체 수업의 내용을 정리하고 학습자들이 배운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 형성평가로 마무리 하였다. 한국어교육 현장에서의 원칙은 평가기준표를 만들어 반영해야 하지만, 본시에서는 분량과 시간의 문제를 고려하여 자가 평가와 상호 평가로 대신하고 평가기준표를 생략하였다. 아래, 본시 교수학습모형의 실재에서 제작한 스토리 1과 2는 역사적 인과에 의한 줄거리를 다루고 있고 다소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어 교사들의 이해를 돕고자 상술하였다.

2) 교수학습모형의 실제

① 동학의 인물 스토리 구성

고급 단계의 한국어교육의 정신문화 수업에서 활용할 동학의 대표적인 인물 최제우와 최시형을 스토리 형식으로 재구성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고급 단계 동학 스토리 구성

스토리	내용
1	**최제우의 동학 창시와 시천주 사상에 깃든 정신** 최제우는 조선 말기였던 1824년 10월 28일 몰락한 양반이었던 최옥의 서자로 태어났어요. 제우의 어릴 때 이름은 제선이었다고 해요. 제선은 학자였던 아버지 최옥의 가르침을 받아 어릴 때부터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아주 총명하고 비범한 아이로 자랐어요. 그러나 제선은 십 대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두 잃고 스무 살에는 집에 불이 나 물려받은 가산을 모두 탕진하고 말았어요. 게다가 조선 사회는 신분제도가 엄격했기 때문에 서자 출신들은 과거에 시험을 볼 수가 없었어요. 더구나 조선 후기는 양반 관료들의 부패와 수탈이 극심했고 밖으로는 다른 나라들의 간섭과 침입으로 백성들은 살기가 매우 힘들었답니다. 살길이 막막했던 제선은 하는 수 없이 세상을 돌아보며 공부도 하고 장사를 할 마음으로 장삿길에 올랐어요. 제선은 장사를 하면서 세상의 불합리함과 백성들의 고통을 보는 일이 많았어요. 또 밖으로는 이양선의 잦은 출몰로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임을 직감했답니다. 힘들고 궁핍한 삶을 견디다 못한 백성들은 여기저기에 모이기만 하면 이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모래가 잔뜩 섞인 쌀을 환곡이라고 빌려주더니, 이번에는 있지도 않은 땅에 세금을 내라고? 죽은 사람한테도 군역을 지라는 판에 그놈들이 못할 짓이 뭐가 있겠어? 내가 억울해서 잠도 못 잔다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억울한 사연 없는 사람이 없지. 그렇다고 괜히 관아에 찾아가 항의할 생각일랑 말아. 얼마 전에 이 서방이 관아에 항의하러 갔다가 곤장을 맞고 골병들어 누워 있다네. 나도 들었어 그러나 어쩌겠나 참고 살 수밖에 없지.”

제선은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10여 년간의 장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고통스럽게 살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세상은 왜 이렇게 불합리하고 사람들의 삶은 고달픈 것일까. 어딘가에 답이 있으리라 믿고 해답을 찾고 싶었어요. 제선은 '보국안민'의 정신과 '광제창생'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생각들로 날들을 보내다가 이내 제선은 형님에게 어려운 가정 살림과 아내와 자식을 부탁하고 세상과 백성을 구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고자 집을 떠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제선은 산중에서 홀로 지내며 도를 구하기 위해 수련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선은 정성을 다해 하늘에 기도했어요. 당시 조선에는 천주교가 퍼져있었고 천주교가 조선에 들어 온 초기에는 서양에서 온 학문이라 하여 '서학'이라 불렸습니다. 제선은 기도와 수련을 하면서 유고, 불교, 도교의 경전뿐만 아니라 실학과 서학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제선은 궁금했답니다. 서학에서도 인간의 평등을 가르치지만 서학을 믿는 서양의 나라들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그 나라의 전통을 무너뜨린다는 것에 대해 의심을 품었어요. 그러므로 서학의 가르침으로는 조선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다른 해답을 찾게 된 것이에요.

제선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 기도와 수련을 시작한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별다른 해답을 얻지 못하던 중 어느 봄날 금강산 유점사에서 한 스님이 제선을 찾아왔어요. 그러고는 책 한 권을 건네주며 아무도 책의 내용을 풀지 못해 찾아왔다며 책의 내용을 제선에게 풀어달라는 것이었어요. 제선은 자신에게 3일간의 시간을 달라고 하고는 책의 내용을 열심히 연구했답니다. 3일 후 약속한 대로 다시 스님이 찾아왔고 제선은 스님에게 말했어요.

"이 책의 내용은 하늘의 이치가 담겨 있으며, 사람의 마음이 곧 하늘과 통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하늘에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라고 일러 주었는데, 제선의 말을 듣자 스님은 제선에게 말하기를 "과연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이 책의 주인은 선비님이며, 선비님은 반드시 큰 업적을 이루실 겁니다." 하고는 어디론가 홀연히 사라졌다고 해요. 그런데 잠시간의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잠을 깨어보니 비몽사몽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제선은 꿈을 통해 하늘이 자신에게 계시를 준 것이라 생각했어요. 이때 제선이 스님으로부터 받은 책을 동학에서는 '을묘천서'라고 해요. 을묘(乙卯년-1855년)에 만난 천기(天氣)가 담겨 있는 책이라는 뜻이에요. 이 환상 체험을 통해 제선이 깨닫게 된 것은 사람들은 모두 같은 하늘의 기운을 나눠 가졌음에도 서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백성의 고통은 양반이니 천민이니 하며 같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하늘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다. 제선은 이런 깨달음을 세상에 알리면 세상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죠. 이때 이르러 제선은 자신의 이름을 가난하고 어리석은 백성을 구제한다는 의미를 지닌 '제우'로 바꾸게 된답니다. 그 후로도 최제우는 유명한 산속의 사찰과 동굴에서 기도와 수련을 이어갔어요.

시간이 흘러 최제우는 자신의 고향인 경주 구미산 아래 용담정으로 돌아와 집에 문을 걸어 잠그고 하늘에 기도를 이어가던 중 1860년 4월 5일 어느날 신비한 종교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갑자기 온몸이 감기처럼 심하게 떨리고 소름이 끼치도록 흔들리는 기운이 몸을 감싸더니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 귀를 기울여보니

"두려워 말고 두려워 말라 세상 사람들은 나를 상제라고 부르느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하며 상제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최제우는 그 순간이 수습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믿을 수 없었지만, 곧 상제와 대화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때 상제와 최제우가 묻고 답했던 이 사건을 “천사 문답‘사건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상제께서는 최제우에게 바로 ’오심즉여심(吾心卽汝心)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해요. 이 오심 즉 여심의 뜻은 ”나(한울님)의 마음이 너(최제우)의 마음이다.”라는 뜻으로 동학의 핵심인 ‘시천주 사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풀이하자면 ‘내 몸에 한울님을 몸에 모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답니다. 동학에서는 상제라고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울님으로 지칭하여 쓴다고 해요. 최제우는 자신이 한울님으로부터 얻은 올바른 도를 세상에 많이 알려 한울님의 덕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 세상이라면 빈부와 귀천을 떠나 모두가 한울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천국과 같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믿었답니다. 이러한 최제우의 정신을 동학에서는 ‘포덕천하’, ‘지상천국’이라고 말해요. 이전과는 다른 세상 즉 ‘후천개벽’의 세상을 열고 싶었던 것이랍니다. 당시에 핍박과 가난에 허덕이던 백성들에게 최제우의 가르침은 희망이 되어 주었기에 많은 사람들은 최제우를 스승으로 모시고 그의 도를 따르게 되었답니다. 특히 최제우는 한울님을 만나 동학을 창시하고 난 이후에 자신이 깨달은 바를 몸소 실천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최제우의 집안은 몰락한 양반이었기 때문에 여종을 둘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두 명 중 한 명은 며느리로 삼고 한 명은 수양딸로 삼아 가족으로 받아들였지요. 이것은 당시 신분제 사회 속에서 인간을 신분제의 속박으로부터 해방한 혁명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제우의 이러한 파격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여종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하며 한울님처럼 공경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후에 이러한 정신은 ‘사인여천’의 정신으로 이어집니다. 동학의 뜻은 동쪽의 나라인 조선에서 나온 학문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서학에 맞선다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도는 하늘의 도라고 하여 ‘천도’라고 하였답니다. 최제우가 동학을 창시할 당시에는 동학이라는 말로 전파되었지만, 후에 그의 뒤를 이은 2대 최시형을 지나 3대 손병희가 1905년 12월 1일 ‘천도교’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고 해요. 이후로도 천도교는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독립운동과 어린이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어린이 운동 그리고 ‘개벽’ 잡지 발간 등의 사회문화운동 및 교육 운동을 전개해나갔다고 해요. 이러한 동학의 정신을 이어받아 천도교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답니다. * 출처: 권용찬,『who? 한국사 최제우· 최시형』, 다산 어린이; 곽은우,『최제우 동경대전』, 주니어 김영사
2	**최시형의 사인 여천과 삼경 사상에 깃든 정신** 최제우의 뒤를 이어 동학의 제2대 교조가 되는 최시형의 본명은 최경상이에요. 최경상은 1827년 3월 21일 경상북도 경주에서 농부와 다름없는 몰락한 양반의 집안에서 태어났답니다. 그도 역시 최제우와 다름없이 어린 시절에 두 부모를 모두 잃고 어린 누이와 함께 친척 집을 전전하며 목숨을 연명했어요. 그러던 중 조지서(한지공장)에서 일하게 되어 부지런히 돈을 모아 땅을 사고 결혼도 하였지만 가난함을 면할 수가 없었답니다. 탐관오리들의 지속적인 수탈 때문이에요. 경상은 견디다 못해 가족을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가 화전을 일구며 살면서도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사람들의 입을 통해 최제우와 동학의 가르침을 듣게 되었죠. 최경상은 답답한 마음에 최제우를 찾아가 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최경상은 최제우를 만나 그의 가르침을 받을수록 세상을 변화시킬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최제우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교리 공부와 수련을 하면서 부단히 노력했어요. 조금씩 깨닫게 되면서 스스로에게 자문을 하기도 했답니다. '사람과 천지 만물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하늘이 만물을 만들었고 그 안에 하늘이 깃들어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만물이 곧 하늘과 같다는 것이리라. 세상 모든 것들을 하늘처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만 귀한 것이 아니다. 하늘이 깃든 모든 만물이 귀한 것이다.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나아가 만물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다.' 최경상은 마침내 모든 만물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야 만물과 조화롭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최경상은 스승 최제우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스승님 이제야 우리가 만물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을 제 생명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니 최제우는 "그래, 그것이 하늘이 사람에게 준 마음이니라 이제부터는 네가 할 일이 있다. 네가 깨친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다. 네가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본래의 마음을 회복하면 이 세상의 차별과 고통이 없어지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경상은 그날부터 사람들에게 동학을 전파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점차 동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났지만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데다가 당시에는 교리를 정리한 책도 없었기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최경상은 관아의 감시를 피해 여러 지방을 돌며 스승님을 대신해서 동학을 알리는 일에 힘썼어요. 예상치 못한 위험한 일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그는 고단한 삶에 지친 사람들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한 백성이 최경상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저같은 과부도 하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 이 말에 최경상은 "이미 모든 사람이 하늘의 뜻을 품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귀하고 천한 것도 상관없고, 가진 것이 많거나 적거나 하는 것도 상관없이 사람은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진리를 모든 사람이 깨닫는다면 분명히 불합리한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그는 목청을 높여 외쳤어요. 그때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점차 늘어나자 조정과 지방의 관아들의 감시가 더욱 심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교세가 커져, 이때 이르러 각 마을마다 접주를 통해 가르침을 전하고자 접주제라는 조직체계를 두게 되었다고 해요.

최제우는 최경상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1863년 8월 14일에 그에게 동학의 제2대 교조의 자리를 물려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최제우는 시형에게 이렇게 당부하였다고 합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동학교도들과 뒷일을 부탁한다." 최시형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백성들을 마음으로 품고 스승님을 잘 보필하자' 그러나 뜻밖에도 그 무렵 최제우는 경주 용담정에서 체포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어 가던 중 철종 임금이 승하했다고 합니다. 한편 조정에서는 후계자가 세상을 떠난 철종의 죽음에 더해 동학을 믿고 최제우를 따르는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자 불안을 느낀 나머지 최제우에게 사도 난정의 죄목을 씌워 효수형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1864년 3월 10일에 대구 관덕정이라는 곳에서 목이 잘리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 말하자면 탐관오리의 횡포와 문란한 국가 기강 속에서 백성들에게 가혹한 수탈이 행해지던 시대,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백성들을 고통에서 구할 진리를 깨쳐 '사람을 하늘처럼 여기라'라는 교리로 동학을 창시한 최제우는, 기존의 성리학적 통치이념을 따르지 않아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들을 미혹하였다는 죄목으로 참형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최제우가 참형을 당하자 슬퍼할 겨를도 없이 최시형에게도 체포령이 내려져 계속 도망을 다녀야 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최시형은 숨어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도 다시 동학교도들의 민심을 수습하고 동학의 포교를 위해 온갖 정성을 기울였어요. 최경상은 마음을 다잡기 위해 최경상에서 최시형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시형의 뜻은 때 시(時)와 형통할 형(亨)자로 동학의 진리를 가지고 때를 따라 나아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즉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동학사상을 활용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최시형은 관군의 눈을 피해 항상 보따리를 하나 들고 다니며 동학을 전국에 포교하러 다녔기 때문에 최보따리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최시형은 혼자서 전국을 돌며 동학을 알린다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동학을 더 넓고 정확하게 알려 한다고 생각하고 경전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레서 최시형은 태백산중에 거처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최제우가 강론했던 내용을 정리하였는데 그 책이 오늘날 동학(천도교)의 경전인 '동경대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완성된 경전은 접주들을 통해서 전국으로 보급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자 동학을 믿고 따르던 동학군의 기세가 날로 심해졌고 외세의 침략이 더욱 거셌던 소용돌이 속에서 관군의 탄압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에 최시형은 종교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교조신원운동과 낡은 제도를 개혁하고 외세를 물리치자는 동학농민운동을 지도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최시형도 1898년 3월에 붙잡혀 그해 6월에 교수형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비록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최시형은 나라를 지키고, 사람이 하늘인 세상을 위해 스승의 가르침을 받들어 백성들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최시형이 얼마나 사인여천의 정신을 중시하고 만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인물인가 하는 것은 그의 일화를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최시형은 "도인의 집에 사람이 오거든 사람이 왔다고 하지 말고 한울님이 강림하셨다고 말하라"라는 말을 할 정도로 사람을 한울님처럼 공경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최시형을 따르던 인물 중에서 천민 출신이었던 남계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최시형은 그의 능력이 출중하여 동학의 간부로 임명하였으나(편의장) 양반 출신의 동학도들이 그의 낮은 신분을 빌미로 간부 인명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에 최시형은 동학의 모든 사람은 평등하므로 신분에 관계 없이 능력에 따라 반상의 차별을 두지 말라는 말을 하였어요. 또 최시형이 하루는 동학의 경전인 동경대전 간행할 때 간행 터와 가까운 거리에 있던 이명수의 집에서 기거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거기에 있던 장한주와 김연국에게 "저 새들의 울음은 무슨 소리인가?" 하고 물으니 두 사람은 알지 못하겠다고 대답했으나, 최시형은 이렇게 말했어요. "시천주의 소리이니라. 모든 사람과 생물이 숨을 쉬는 것도 모두 천지, 우주의 기운에 근원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가르침 속에는 사람만이 아니라 천지 만물과 모든 생명이 한 한울님을 모신 존재임을 밝힌 것이며 '만물이 시천주 아님이 없다."는 동학 생명 사상의 근원이 발아한 곳입니다. 이것이 동학의 생명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경천, 경인, 경물의 삼경(三敬) 사상으로 정립되었어요.

* 출처: 권용찬, 『who? 한국사 최제우· 최시형』, 다산 어린이

② 동학의 인물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고급 단계 교수학습모형

동학의 대표적인 인물인 최제우와 최시형의 스토리를 활용한 고급 단계의 외국인을 위한 안국어교육의 교수학습모형 개발은 <표 11>과 같다.

<표 11> 동학 인물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교수학습모형

단계	고급 단계			
단원	1. 동학의 인물과 정신	교사	정하린	
일시	20○○년 ○○월 ○○일	대상	한국어 고급 A반 16명	
주제	동학의 인물 최제우와 최시형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야기하기			
학습 목표	1. 최제우와 최시형의 삶을 통해 동학의 정신을 이해할 수 있다. 2. 시천주와 사인여천 그리고 삼경 사상을 이야기할 수 있다.			
자료	PPT, 인물 사진, 어휘 카드, 활동지, 형성평가지			
수업 단계	교수학습 활동		수업 시간 90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 출석 확인 및 수업 준비 점검** *** 동기 유발** ➤ 먼저 출석을 확인한 후 인사를 나눈다. 준비된 ppt를 제시하고 동학의 창시자 최제우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책에서 보았거나 알고 있는지 물음으로써 수업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시킨다. ➤ 학습자들에게 자신의 나라나 세계 인물 중에 존경하는 인물이 있는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수업할 내용을 스스로 예측해보도록 유도한다. 최제우 존영(경주 용담정) 최제우 커리캐처(출처: 우리역사넷) T: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모두 수업에 참여해 주어 고맙습니다. 주말을 즐겁게 잘 보냈죠.~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서로 얘기 나눠 볼까요? S1: 저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한국인 친구들과 만나서 놀았습니다. S2: 저는 주말에 한국어능력(TOPIC) 시험 쓰기, 듣기, 읽기 준비를 위해		**10분** 도입단계에서 교사는 수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교사는 문화간의 종교 차이를 인정하고 학습자들이 종교로 인하여 불쾌	PPT 사진 활용 ↓ 칠판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T: 네, 모두 주말 시간을 알차게 보냈군요. 저는 이번 주에 여러분들과 공부할 학습자료들을 만들면서 시간을 바쁘게 보냈습니다. S: 네~ T: 여러분 앞에 보이는 화면의 사진 속 인물을 책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거나, 최제우 또는 동학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S: 아니요. 없습니다. S6: 네, 동학이라는 용어도 낯설고, 또 화면 속의 인물을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T: 그럼 여러분들은 혹시 자신의 나라나 세계 인물 중에 존경하는 인물이 있나요? 교연 학생이 말해 볼까요? S4: 네, 저는 루쉰 작가를 매우 좋아합니다. 특히 그의 광인일기와 아큐정전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아서 그때부터 루쉰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T: 네~ 저도 참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또 다른 친구가 한번 말해 볼까요? S12: 네 저는 아주 옛날 배우이지만 세계적인 미인이면서 숭고한 삶을 살다간 오드리 햅번을 존경해요. 우연히 오드리 햅번의 삶을 다룬 다큐와 영화를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외모가 예쁜 여자들은 많지만 외모만큼 마음이 그렇게 아름답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T: 네, 그렇죠. 여자라면 누구나 닮고 싶은 그런 배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혹시 선생님이 두 친구와 나눈 이야기와 앞의 사진을 보면서 오늘 수업의 주제가 무엇일지 감이 오나요? S: 네~ 인물 이야기요. T: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들 종교가 무엇인 줄 알지요? S: 네, 이슬람교, 기독교, 불교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 부처님 같은 분들을 믿어요. T: 네, 맞습니다. 세계에는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고 여러분들도 또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한국에서 발생한 민족 종교인 동학 그리고 동학을 만든 최제우라는 인물과 최시형을 소개하고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 S전체: 네~ **➤ 본 수업을 시작하기 전 학습할 목표를 제시하고 다 같이 소리 내어 읽어보게 함으로써 수업에서 도달해야 하는 목표를 상기시킨다.** T: 자, 그럼 오늘 배울 학습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칠판을 보고 소리 내어 읽어볼까요. S전체: 네~ 학습 목표 1. 최제우와 최시형의 삶을 통해 동학의 정신을 이해할 수 있다. 2. 시천주와 사인 여천 그리고 삼경 사상을 이야기할 수 있다. T: 네, 아주 잘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동학을 좀 쉽게 소개하고 싶어서 이야기 형식으로 학습해 보려고 해요. 지금 선생님이 내어 주는 학습자료가 최제우와 최시형의 이야기입니다. S 전체: 네~	감을 닦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어휘	*** 어휘 학습** ➤ 준비된 ppt 자료의 어휘를 보여주면서 스토리에 나오는 어휘와 뜻풀이를 설명하고 읽어보게 한다. ➤ 어휘와 뜻을 각자의 노트에 한 번 써보게 한 후 짝과 함께 어휘 카드로 번갈아 가면서 말해 보게 한다. T : 학습자료를 보면 모르는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중급단계에서 많은 어휘들을 배웠으리라 생각하지만, 동학은 지금으로부터 160여 년 전에 한국에서 발생한 종교이기도 하고 또 동학에서만 표현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23개의 어휘를 준비해 보았어요. 앞의 ppt에 보이는 어휘들이 이번 학습에서 꼭 알아야 할 어휘들이랍니다. 선생님이 어휘를 먼저 읽으면 여러분이 다 같이 소리 내어 뜻을 말해 볼까요? 두 번 반복해서 읽어봅시다. S전체: 네~	15분 너무 많은 어휘의 분량은 학습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음으로 적절하게 조절하고 꼭 설명이 필요한 어휘들은 설명으로 대신한다.	PPT ↓ 어휘 카드

순서	단어	뜻
1	가산	한 집안의 재산
2	군역	군대의 진영에서 부역하는 일
3	관아	예전에 벼슬아치들이 모여 나랏일을 처리하던 곳
4	곤장	예전에 죄인의 볼기를 치던 형구
5	관료	정치에 영향력이 있는 고급 관리
6	광제창생	널리 백성을 구제함
7	도	종교적으로 깊이 깨친 이치
8	동경대전	천도교(동학)의 경전
9	보국안민	나랏일을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함
10	서자	양반과 양민 여성 사이에서 낳은 아들
11	서학	서양의 학문(천주교를 이르던 말)
12	사인여천	한울님을 공경하듯이 그와 똑같이 사람도 공경해야 한다는 윤리 행위
13	수양딸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제 자식처럼 기른 딸
14	상제	우주를 창조하고 주재한다고 믿어지는 초자연적인 절대자
15	이양선	다른 나라의 배를 이르는 말
16	여종	종살이를 하는 여자
17	오심즉여심	내(한울님) 마음이, 네(최제우) 마음이다.
18	용담정	천도교의 교조 최제우가 무극대도인 천도를 깨달은 곳 (경주에 위치함)
19	지상천국	천도교, 하늘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사회에서 세워야 한다는, 영육이 모두 완전한 이상세계
20	천기	하늘의 기밀 또는 조화의 신비
21	천도	하늘이 낸 도리나 법
22	포덕천하	천도교에서 덕을 천하에 편다는 뜻
23	환곡	조선 시대에 곡식을 저장하였다가 백성들에게 봄에 꾸어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 거두던 일

	T: 다음은 23개의 어휘와 뜻을 여러분 노트에 한 번씩 적어보도록 합시다. S전체: 네~ T: 여러분 노트에 다 적어보았나요? S전체: 네~ 선생님 T: 이번에는 옆 짝과 함께 지금부터 선생님이 나눠주는 어휘 카드를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한 친구가 어휘 카드를 들어 보이면 다른 친구는 해당 어휘의 뜻을 말해 보는 시간을 갖기로 해요. 지금부터 시작해 봅시다. S전체: 네~ T: 혹시 그래도 어휘의 뜻이 어렵거나 이해가 어려운 것이 없나요? S전체: 네~		
전개	**➤ 학습할 내용의 핵심 스토리를 제시(전개)한다.** *** 스토리 1 들려주기** '동학을 창시한 최제우와 시천주 이야기' 듣기 「"이 책의 내용은 하늘의 이치가 담겨 있으며, 사람의 마음이 곧 하늘과 통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하늘에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라고 일러 주었는데, 제선의 말을 듣자 스님은 제선에게 말하기를 "과연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이 책의 주인은 선비님이며, 선비님은 반드시 큰 업적을 이루실 겁니다." 하고는 어디론가 홀연히 사라졌다고 해요. 이때 제선이 스님으로부터 받은 책을 동학에서는 '을묘천서'라고 해요. 을묘(乙卯년)에 만난 천기(天氣)가 담겨 있는 책이라는 뜻이에요. 이 환상 체험을 통해 제선이 깨닫게 된 것은 사람들은 모두 같은 하늘의 기운을 나눠 가졌음에도 서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백성의 고통은 양반이니 천민이니 하며 같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하늘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다. 제선은 이런 깨달음을 세상에 알리면 세상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죠. 이때 이르러 제선은 자신의 이름을 가난하고 어리석은 백성을 구제한다는 의미를 지닌 '제우'로 바꾸게 된답니다. 시간이 흘러 최제우는 자신의 고향인 경주 구미산 아래 용담정으로 돌아와 집에 문을 걸어 잠그고 하늘에 기도를 이어가던 중 1860년 4월 5일 어느날 신비한 종교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갑자기 온몸이 감기처럼 심하게 떨리고 소름이 끼치도록 흔들리는 기운이 몸을 감싸더니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 귀를 기울이니 "두려워 말고 두려워 말라 세상 사람들은 나를 상제라고 부르느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하며 상제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최제우는 그 순간이 수습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믿을 수 없었지만, 곧 상제와 대화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때 상제와 최제우가 묻고 답했던 이 사건을 '천사문답'	30분	PPT사진 ↓ 학 습 자 료

	사건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상제께서는 최제우에게 바로 '오심즉여심(吾心卽汝心)'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해요. 이 오심 즉 여심의 뜻은 "나(한울님)의 마음이 너(최제우)의 마음이다."라는 뜻으로 동학의 핵심인 '시천주 사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풀이하자면 '내 몸에 한울님을 몸에 모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답니다. 동학에서는 상제라고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울님으로 지칭하여 쓴다고 해요. 최제우는 자신이 한울님으로부터 얻은 올바른 도를 세상에 많이 알려 한울님의 덕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 세상이라면 빈부와 귀천을 떠나 모두가 한울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천국과 같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믿었답니다. 이러한 최제우의 정신을 동학에서는 '포덕천하','지상천국'이라고 말해요. 당시에 핍박과 가난에 허덕이던 백성들에게 최제우의 가르침은 희망이 되어 주었기에 많은 사람들은 최제우를 스승으로 모시고 그의 도를 따르게 되었답니다.」 T: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내준 학습자료에 더 자세한 이야기의 내용이 있으니 같이 보면서 학습하기로 해요. S: 네~ S14: 선생님, 그러면 최제우는 그 당시에 조선에 살았던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서 그들을 위해 한울님께 의지했던 것인가요? T: 맞습니다. 자신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 차별과 침략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보국안민과 광제창생을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S6: 선생님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한울님을 모셨다는 것이 시천주라는 것인가요? 저는 시천주라는 말이 어려워요. T: 네~ 시천주라는 말은 한자어로 侍(모실시), 天(하늘 천), 主(주인 주)라는 뜻으로 풀이하면 사람은 마음에 한울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학에서는 시천주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시천주의 진리를 알면 모든 사람이 서로와 서로를 한울님을 모시듯 공경하게 됩니다. S9: 그럼 동학에서 말하는 한울님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나 하느님과 같은 존재인가요? T: 네, 다른 각 종교와 부르는 표현이 다를 뿐 같은 존재입니다. S: 그러면 최제우는 한울님과 실제로 대화를 나누면서 한울님에게 들은 '오심즉여심'이라는 말속에서 모든 사람은 한울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군요. T: 네 정확합니다. 앞의 영상 속 사진이 최제우가 1860년 4월 5일 한울님을 만나 '천사문답' 사건을 통해 진리를 얻고 동학을 창시한 용담정과 내부의 모습입니다. 최제우는 동학을 창시하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을 후천개벽의 세상이라고 했어요. S: 네~	배분된 시간을 고려하여 스토리를 선정한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주어진 학습자료를 참조한다. 질문을 유도할시 교사가 강제적으로 특정한 학생을 지목하거나 해서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한다.

*** 스토리 2 들려주기**

'최시형의 사인여천과 삼경 사상' 듣기

「최시형은 "도인의 집에 사람이 오거든 사람이 왔다고 하지 말고 한울님이 강림하셨다고 말하라"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사람을 한울님처럼 공경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최시형을 따르던 인물 중에서 천민 출신이었던 남계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최시형은 그의 능력이 출중하여 동학의 간부로 임명하였으나(편의장) 양반 출신의 동학도들이 그의 낮은 신분을 빌미로 간부 인명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에 최시형은 동학의 모든 사람은 평등하므로 신분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반상의 차별을 두지 말라는 말을 하였어요.

또 최시형이 하루는 동학의 경전인 동경대전 간행할 때 간행 터와 가까운 거리에 있던 이명수의 집에서 기거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거기에 있던 장한주와 김연국에게 "저 새들의 울음은 무슨 소리인가? 하고 물으니 두 사람은 알지 못하겠다고 대답했으나, 최시형은 이렇게 말했어요. "시천주의 소리이니라. 모든 사람과 생물이 숨을 쉬는 것도 모두 천지, 우주의 기운에 근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 **사진과 함께 스토리를 들려주고 감동적인 내용을 학습자들이 리텔링 하면서 내용의 의미를 재인식하게 한다.** T: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앞의 사진이 방금 들려준 일화의 주인공 최시형입니다. 최시형이 교수형을 받기 직전의 사진이라고 해요. 들은 내용에서 감동적인 부분을 리텔링 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S16: 선생님, 왼쪽 사진의 모습이 참혹합니다. 사진만 보아도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돼요. 저는 최시형이 모든 사람은 한울님을 모신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도인의 집에 방문을 하면 한울님이 강림했다고 표현한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T: 그렇지요. 오른쪽은 경주 황성공원에 세워진 최시형의 동상입니다. 최시형은 사람을 곧 한울님처럼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동학은 오늘날 천도교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천도라는 의미는 하늘의 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당시 최시형은 동학도들의 집을 도인의 집이라고도 한 것 같습니다. S8: 저는 조선 사회가 신분제의 사회였다고 하셨는데, 그 당 시에 높은 신분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능력을 보고 남계천을 인정한 부분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상이라는 말이 궁금합니다. T: 네, 아주 훌륭합니다. 모두가 한울님을 모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평등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죠. 또 평등사상이 동학의 핵심적인 사상이자 사인여천의 정신입니다. 반상이라는 말은 양반과 상민에서 한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로 곧 바로 지위에 따라서 사람을 구분한다는 의미랍니다. S8: 네, 알겠습니다. S5: 선생님 보통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이라고 생각하며 동물은 사람보다 더 하찮은 존재로 보고 함부로 대하기도 하는데 최시형은 새소리도 시천주의 소리라고 하면서 모든 동물과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감동스럽습니다. T: 네,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만물을 다 중시하는 가르침을 펴고 있지		학습지자료

	만 특히 최시형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물건에 이르기까지도 공경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삼경 사상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동학에서는 이 우주를 천지 부모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든 만물을 사랑하게 되면 생명을 중시하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소중하게 여기려는 마음이 절로 생기 나게 되는 것입니다. S5: 네, 선생님 최시형은 스승인 최제우의 가르침을 더 깊게 이해하고 모든 만물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인물 같습니다. T: 네, 그래서 우리가 동학의 진리를 알고 나면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고 타인과 세상을 새로운 눈을 바라보게 된답니다. S전체: 네~		
활용	**➤ 앞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로 활용하여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도록 한다.** **➤ 학습자들이 줄거리를 가지고 역할 놀이와 스토리텔링으로 소개하기를 하면서 동학의 정신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T: 여러분 우리는 이번 시간에 동학의 두 인물과 동학의 정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재미가 있었나요? S5: 네~ 동학을 잘 몰랐는데 동학을 배우면서 한국의 종교와 정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T: 네, 열심히 해주어 고마워요. 그럼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는 더 재미있는 활동을 해보기로 해요. S2: 네~ T: 앞에서 배운 최제우와 최시형의 스토리를 가지고 옆 짝과 함께 역할을 나누어 역할놀이를 해봅시다. 학습자료를 보면서 해도 좋습니다. 서로 역할을 나누어서 10분 동안 실제 인물처럼 이야기해 봅시다. S2: 네~ T: 어떤가요? 내용이 좀 더 생생하게 다가오나요? S2: 네~ 선생님 스토리로 들을 때와 달리 제가 인물을 나누어 대사로 이야기를 하니 더 재미가 있고 이해도 잘됩니다. T: 네~ 그럴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세 명 정도만 배운 내용 중에서 아무 부분이나 나와서 동학을 모르는 친구에게 소개한다고 생각하고 스토리텔링의 방법으로 이야기해봅시다. S3: 네, 선생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는 최제우가 한울님과 만나 대화를 한 후 진리를 깨달은 장면이 흥미로워서 그 장면의 내용을 스토리텔링으로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T: 네, 좋습니다. 일어서서 해도 좋고 앞으로 나와서 해도 좋습니다. S3: 여기까지입니다. T: 너무 잘했습니다. 또 다른 내용을 실감 나게 친구들에게 이야기로 소개해 볼 친구 없나요? S3: 저는 최시형 이야기에서 남계천이라는 이야기와 장한주와 김연국에게 시천주의 가르침을 준 부분이 인상 깊어 그 부분을 친구들에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T: 네, 좋습니다.	25분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강요하여 부담을 갖지 않도록해야 하며,자율적으로 임하도록 유도한다.	학습지자료

	T: 어쩜, 이해하기 쉽게 참 잘 소개해 주었습니다. 또 이야기해 볼 친구 없나요? S8: 선생님 저는 최제우가 스님에게 '을묘천서'의 책을 받게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T: 네~ 기대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S8: 여기까지입니다. T: 모두 다들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역할극으로도 활동을 해보고 또 이야기로 친구들에게 소개를 해보니 어떤가요? S8: 일어났던 일의 상황과 의미가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오고 동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T: 여러분이 그렇게 동학을 이해하게 되었다니 선생님도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생활하거나 여러분의 나라에 가서라도 종교와 문화를 얘기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한국의 동학을 오늘 배우고 소개한 것을 바탕으로 멋지게 소개해 주길 바립니다.		
정리	*** 형성평가** **➤ 형성평가를 통해 배운 내용을 최종 정리하고 다음 수업 차시를 예고한다.** T: 여러분 벌써 오늘 수업을 마칠 때가 되었네요. 마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여섯 문항의 형성평가를 보려고 해요. S전체: 네~ T: 선생님이 지금 내어 주는 형성평가 활동지를 보고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풀어보세요~ S전체: 네~ **➤ 자기 평가, 상호 평가** 본시 학습 형성평가 1. 최제우에 대한 설명으로 <u>옳지 않은</u> 것을 고르시오. ① 경주 어느 마을에서 태어났다. ② 가난한 양반집에서 자랐다. ③ 깨달음을 얻고 서학(천주교)을 창시했다. ④ 사회의 불합리함과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하려 했다. ⑤ 시천주 사상을 깨달았다. 2. 다음 중 <u>옳지 않은</u> 것을 고르세요 ① 동학의 1대 교조는 최제우이다. ② 동학의 교조는 최씨만 될 수 있었다. ③ 동학은 오늘날 천도교의 뿌리다. ④ 동학의 2대 교조는 최시형이다. ⑤ 동학은 조선 말기에 발생하였다. 3. 다음 글을 읽고 알맞은 말에 ㅇ표 하세요.	10분 고급단계에 맞는 문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 수업을 정리하고 이해 가능한 문항이 되도록 평가지를 만든다. 형성평가	형성평가지

	최제우는 지금의 (혼란한/안정된) 세상인 '선천'이 무너지면, 모두가 (부유하고/평등하고) 자유로운 '후천'의 세상이 열린다고 하였다. 4. 다음 글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동학의 2대 교조였던 최시형은 동학의 경전인 (_____)을 펴냈으며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한울의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여 (____), (____), (____)이라고 주장하였으며, (_____)사상으로 정립되었다. 5. 동학의 '시천주' 사상에 대하여 써보세요. _____ 6. 동학이 꿈꾸는 세상에 대하여 써보세요. _____ T: 다했나요? 어렵지는 않았나요? S1: 네, 선생님 S7: 저도 모두 풀었습니다. T: 모두 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S전체: 네~만족합니다. 선생님 T: 그럼 이번에는 평가지를 옆 짝과 바꾸어서 서로 상호 평가를 해보기로 해요. 자신이 쓴 답과 친구가 쓴 답을 서로 비교해 봅시다. S전체: 네~ T: 어떤가요. 서로 다른 부분이 있었나요? S: 답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T: 네~ 그럼 이제 선생님이 답을 불러줄테니 여러분이 푼 답을 채점하고 고쳐보도록 해요. S: 네~ T: 오늘 수업의 내용이 한국의 정신문화인 동학이라 다소 어려웠을 텐데 모두 열심히 해주어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디에서든 우리 동학 의 정신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학의 3대 교조인 손병희와 방정환에 대하여 공부하려고 합니다. 모두 다음 시간에 봐요~ S전체: 네~ 선생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 결과를 가지고 학습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차시학습 예고	

5. 맺음말

이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한국어 정신문화교육의 방안 마련을 위하여 교수학습모형개발을 토대로 그 활용적 가치를 탐색해 보았다. 한국어교육이 언어교육을 기초로 하고 있으나, 보다 정확한 상황 및 맥락에 맞는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은 무엇보다 언어의 해당 문화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한 나라의 문화가 사회구성원에 의해 이룩된 행동양식이나 생활양식이라면 행동양식과 생활양식을 규정짓는 의식은 정신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언어의 하위 영역에 해당하는 한국어 역시 해당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민족성, 가치관, 정서, 사상, 종교, 상징체계와 같은 의식을 실어 나

르는 수단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문화는 그 나라의 언어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정신문화에 대한 학습도 한국어교육에서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한국어교육에서도 문화교육이 중시되고 교수법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여전히 문화교육은 언어 학습의 부수적인 요소로만 여기려는 경향이 있다. 2020년대에 들어와서도 국내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한국어교육을 하기 위하여 많은 교육 기관들이 생겼으나 교육의 기본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교재 역시 체계성을 갖추지 못했다. 이후 이러한 실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2010년 처음으로 국립국어원에서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모형을 개발하게 되면서 문화교육의 영역을 세분화하고 체계성을 갖추게 되었으며 문화를 문화지식, 문화실행, 문화관점의 새로운 모델을 설계하게 되었다.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모형개발이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어교육에서는 문화교육에 대한 자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문화교육에 따른 요구도 조사를 보면 외국인 학습자들은 문화와 종교, 역사에 대한 학습의 요구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뿐만아니라 2011년의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통용모형 2단계에 와서는 1단계를 보완하여 문화교육 항목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문화교육 현장과 문화의 자료는 교육 현장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문화 영역 5급의 성취 문화 영역에서는 한국의 역사 > 역사적 인물 > 유명 인물에 역사적 위인이 예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독자적 정신문화라 할 수 있는 동학사상의 인물을 최제우와 최시형로 보고 두 인물의 생애와 사상을 채택하였다. 이어 동학사상의 발생과 성립을 살펴보고 동학의 핵심 사상이라 할 수 있는 시천주와 삼경 사상, 보국안민과 후천개벽의 정신을 중심으로 개진하여 정신문화의 의미와 가치를 정리하였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있어 타 문화의 내밀한 정신문화를 학습한다는 것은 낯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교육의 방법도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아무리 가치가 있고 필요성이 있는 학습이라 하더라도 학습자가 지루함을 느끼거나 어려움을 느낀다면 학습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적합한 교재를 선정하고 효과적인 학습의 기법을 채택하는 것은 교사의 역량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수학습모형 제작을 위하여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 스토리텔링의 기법을 활용하였다.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를 실제로 구현하는 활동으로서 이야기를 글이 아닌 구술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야기란 우리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사건들의 맥락, 즉 문맥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스토리텔링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면서 그 사건과 인물이 지닌 정신문화의 내용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다. 자연스러운 이야기의 흐름과 맥락의 파악을 극대화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의 기법을 통해 학습자들은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게 되고 스토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교수학습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스토리텔링의 기법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활용할 스토리의 내용도 그만큼 긴밀하고 응집성 있게 제작되어야 하고 내용 역시 흥미로우며 풍부해야 한다. 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제우와 최시형의 생애와 중심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학습자들에게 흥미와 감동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한국어교육의 현장에서 수업에 활용될 것을 고려하여 교사가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고 내용 파악에 도움을 주고자 사건의 인과 과정에 따른 의미들을 구체적으로 상술하였다, 나아가 학습모형 제작에서도 학습 내용 이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기초 다지기의 단계를 어휘 학습으로 설정하여 수업의 효과를 높였다. 한국어교육에서는 어휘 단계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도입, 전개, 연습(활용), 정리단계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 학습모형에서는 일반적인 단계를 따르지 않고 수업모형개발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입, 어휘단계, 전개단계, 활용단계, 정리단계까지 다섯 단계로 제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수학습모형은 교사와 학습자가 상호소통하며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정신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나아가 고급 단계의 외국인 학습자들이 아니라 국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물 스토리텔링의 학습을 하기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학의 인물에만 국한하지 않고 학습의 목표와 이야기만 적절히 변경하고 다른 인물로 선정하여 수업을 진행한다면 효과적인 수업의 활용자료가 될 것이다. 나아가 외국인 학습자들이 단순히 언어

기능만을 수행하는 수준을 넘어 한국어가 내포하고 있는 정신문화적 의미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보다 정확하고 원활한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 효과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동경대전』
『용담유사』
『천도교경전』

곽은우,『최제우 동경대전』, 주니어 김영사, 2019.
권용찬,『who? 한국사 최제우· 최시형』, 다산 어린이, 2016.
김중섭 외,『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서울: 국립국어원. 2010.
김중섭 외,『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서울: 국립국어원, 2011.
김중섭 외.『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활용 점검 및 보완 연구』, 서울: 국립국어원, 2016.
류수열 외,『스토리텔링의 이해』, 서울: 글누림, 2007.
박소화,『스토리텔링 基盤 敎授設計 原理 및 模型 探索』.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박영순,『(한국어 교육을 위한)한국문화론』, 서울: 한국문화사, 2002.
원미진 외,『2020 국내외 한국어 교재 사용 현황 조사 연구』, 서울: 국립국어원, 2020.
장영민,『동학의 정치사회운동』, 서울: 경인문화사, 2006.
최준식,『한국의 종교, 문화로 읽는다』, 파주: 사계절, 1998.
황신웅,『스토리텔링을 이야기하다』, 서울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4.
홍숙영. 스토리텔링, 인간을 디자인하다. 서울: 상상채널, 2011.

강현화,「외국인 학습자의 문화 요구조사 -문화교재 개발을 위해-」,『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1, 2006.
권오경,「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 내용 구축 방안」,『언어와 문화』5(2), 2009.
노지영.「재외동포 청소년을 위한 한국 정신문화교육 내용 및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배재대학교 대학원. 2012.
민현식,「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국제한국어교육』제1권 제1호, 국제한국어교육문화재단, 2015.05.
박숙영.「문화간 의사소통을 위한 가치문화 교육 방안」.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백영미.「스토리텔링을 적용한 수학수업이 초등학교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수학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청주: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송정란,「스토리텔링으로서의 인도신화」,『인도연구』12-2, 한국인도학회, 2007.
신윤경.「한국의 가치문화 교육과 문학 활용」,『 한국어문교육』9(0), 2011.
양미경,「스토리텔링의 교육적 의의와 활용 방안 탐색」,『열린교육연구』21-3, 서울: 한국열린교육학회, 2013.
유현정,「고급 단계 한국어 교재의 한국문화 교육 실태와 방향성 고찰-비교문화적 관점에서의 표현 활동 분석을 중심으로-」.『한성어문학』38, 2017.
윤택남.「동화와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초등영어과 교수.학습모형 탐색」,『교육과학연구』20(2), 2018.
전은혜.「여성결혼이민자 대상 한국 정신문화 교육 방안 연구 : <TV동화 빨간 자전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15.
정하린,「인문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한국어 정신문화 교수학습모형개발」, 동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조재형 외,「한국어 교재에 내타난 문화교육 내용에 관한 연구」,『어문학집』53, 2014.

최서윤,『동학의 생태적 교육철학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최은영.「수필을 활용한 한국 정신 문화 교육 방안 연구 : 재미동포 청소년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최지이.「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협동적 동화 재구성 활동이 만 5세 유아의 의사소통능력과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17.
허원기.「이야기인문학의 전통과 가능성」,『스토리&이미지텔링』7, 2014.

Brooks, N. D., *Languege and languege learning: Theory and ptactice,* New York; Harcourt, Brace., 1964.
Egan, K., T*eaching as Story Telling: An Alternative approach to teaching and curriculum in the elementary school,*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6.
Ellis, G. & Brewster, J., *The storytelling handbook for primary teachers.* New York Penguin Books, 1991.
Gail Ellis and Jean Brewster, *Second edition published as Tell it Again! The New Storytelling Handbook for Primary Teachers 2002*, the British Council, 2014.
Kendall Haven and MaryGay Ducey, *Crash Course in Storytelling,* London, 2007.
Kenneth Chastain, *Developing second-language skills : theory to practice*, Chicago : Rand McNally College Pub. Co., c1976.
Probst, R.E. *Reader response theory and the problem of meaning.* Publishing Research Quarterly 8, 1992.
Robert A. LeVine, *Human parental care: Universal goals, cultural strategies, individual behavior, Issue 40,* Summer 1988.
Seelye, H.N. *Teaching Culture*. Lincolnwood : National Textbooks Company, 1984.